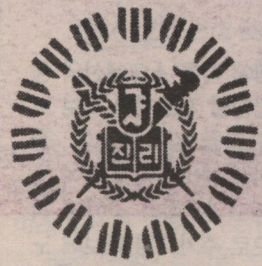


PRSR STD
U.S. Postage
PAID
Elk Grove VLG. IL
Permit #1320



재미서울대동창회

재미서울대학교총동창회
사무국 및 편집국
790 Busse Rd., #201 Elk Grove Village, IL 60007
Tel. (847)981-1464, Fax. (847)981-1465
e-mail: snuausa@snuua.org
website: http://www.snuua.org

발행인 : 李龍洛
편집위원회총무: 具環會
편집인 : 金正守

서로 돕고 사랑하는 우리 서울대학교의 자랑스런 동문들

朴允洙 동문 Global Korean Award" 수상 - 10월 5일 미시건 주립대서 시상식

워싱턴 한인사회의 원로인 박윤수동문(문리대 52년 졸, Ph.D. 재미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초대 회장 역임)이 김용수박사와 함께 미시건 주립대학교 아시아 연구센터가 수여하는 올해의 'Global Korean Award 2002'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이 상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韓民族의 복지 증진, 한국과 국제사회간의 문화 교류, 차세대 교육 등을 위해 꾸준하고도 묵묵히 일해온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이번 수상 소식을 접한 차동문은 "앞으로도 계속 한인사회의 발전과 한미간의 문화 교류 및 국제사회에 한국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의 소감을 밝혔다. 시상식은 10월 5일 (토) 미시건 East Lansing에 소재한 미시건주립대학교 캠퍼스에서 거행된다. 차동문은 현재 美연방정부 해군성 과학기술처 과학행정관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워싱턴지역 한인 100주년 기념사업회장, 한미장학재단 전 이사장 등으로 한인사회를 위해 활발한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박동문은 지난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린 한국 이민 100주년 기념 학술 회의("THE KOREAN AMERICANS: PAST, PRESENT, AND FUTURE", Fairview Park,



Marriott Hotel, 3111 Fairview Park, Falls Church, Virginia 22042)를 International Council on Korean Studies 와 Centennial Committee of Korean Immigration to the United States 후원으로 성공적으로 열리는데 공헌하였다(이번 학술회의 진행경과를 아시고자 하는 분은 웹사이트 www.icks.org or www.cck-igw.org를 참조).

한편 이번에 함께 수상한 김용수박사는 해방 후 굴절된 한국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꿋꿋한 삶을 살고 있는 동포이다. 김박사는 해방 후 創軍의 주역의 한 사람이며, 한국전쟁당시 이사단장을 역임하였고, 5.16군사 정변때에 제 6군단장으로 재직 중 강제 예편 당한 후 김將軍은 渡美하여 새롭게 학자로서의 인생을 시작하여 워싱턴 DC에 있는 카톨릭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한다.

재미서울대동창회보 發展의 課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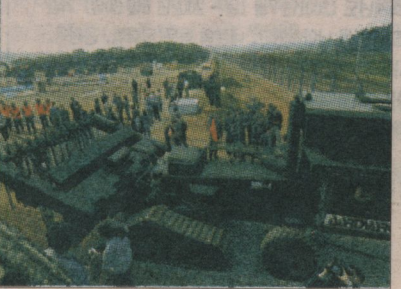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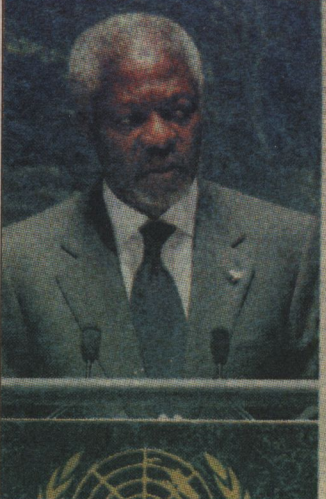
모든 동문들의 자신과 친구들의 소식에 대한 취재기자

자연과학분야의 변화를 소화하고 동문들의 일생의 회고를 담은 지면

재미 총동창회의 발족 12주년을 맞이하여 母校를 高揚하고 재미 동문들의 발전을 지원하는 조직의 기간매체로 확고하게 자리해 가고 있는 "재미서울대 동창회보"가 6월 초로서 그 紙齡 100호를 넘어서고 "지성인의 友情을 글로써 나누는" 文筆과 論考란(2부)의 다양한 기고문의 내용들이 동문독자들의 환영을 받고 있음이 회보 30면의 독자여론조사(1991년 7월부터 지금까지 100여통의 설문지가 회송됨)를 통하여 드러나고 있다. 독자들에게 따라 주목하는 지면의 내용이 다르나 총동창회소식(1부), 文筆과 論考(2부), 동문 및 지역 동창회, 모교 및 서울의 총동창회 소식(3부), 각 난의 내용들이 모두 동문독자들의 관심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창회보에 대한

관심도의 증가의 척도로서 볼 수 있는 회보구독료 납부자의 전년도 숫자가 1,391명으로(납입금액 \$ 71,458.86, 전년도 대비 189명 증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동문들로부터 미주내의 개별 동문 동정란의 지역동창회의 활동 보도가 빈약하여 주로 야유회, 골프대회가 대중을 이루는 상황의 개선이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회보 편집국의 人力 부족으로(편집인 1인과 편집조수 1인) 이러한 동문소식란의 보강을 위해서는 각 지역동창회 및 동문들이 "투고자", "취재자"로서 역할과 참여 확대가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그러므로 회보 편집실은 각 동문들이 자신과 가족들의 활동에 대한 많은 소식자료를 그때 그때 보내주기를 바라고 있다. 회

보의 문필과 논고란이 대부분 동문독자들의 자발적인 투고로 이루어지는데, 급변하는 자연과학과 기술분야를 전공하는 동문들이 "나의 常識은 다른 분야의 동문들에게는 좋은 敎養物"이 될 수 있는 글을 보내주시면 현재 사회분야와 수상록에 치중된 지금의 내용보다 동창회보가 다양하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동문들이 자기 분야에서 개척자적인 삶을 쌓은 평생의 回顧錄에 귀중한 순간들을 담은 寫眞들과 함께 보내주시면 동창회보는 동문들의 삶의 지혜로부터 서로 배우는 지면이 될 것이다. 그러하면 "보고 던지는" 일반 출판물의 홍수 속에서 "읽고 토론하는" 우리만의 동창회보가 될 것이다.



가노라 三角山아

金尙憲 [字 叔度, 號 淸陰] 1570(선조 3)~1652(효종 3)

가노라 三角山아 다시 보자 漢江水야
故國山川을 떠나고자 하라마는
時節이 하 殊常하니 울동말동하여라.

목차

- 제 1부 : 총동창회 소식
- 제 2부 : 문필과 논고 4면
- 제 3부 : 동문 및 지역동창회 소식 18면

<사진설명>
"하 수상한" 시절에 瑞光이 비치는 民族의 統一街道

李龍洛회장 母校 총동창회 방문 - 母校 音大연주단 지원에 감사

李龍洛 재미총동창회장(공대 53년 졸)은 9월 9일부터 19일까지 모교 방문기간중 서울의 총동창회(회장 임광수)와 모교(총장 정운찬)를 방문하여 지난 8월 미주 8개 도시 9회의 공연을 통하여 2500여명의 미주 동문 및 음악애호가들을 "신선한 和音의 충격"으로 매료한 母校 音大연주단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財政 지원한 총동창회와 모교에 대하여 감사인사를 하였다.

李회장은 9월 12일에는 총동창회 임원들과의 오찬모임에 참석하였는데, 이 자리에는 임광수회장, 윤근환, 공대식, 장익룡 부회장, 명태현 관악회이사, 박영준 감사, 우인성 공대기계과동문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李회장은 총동창회 재정지원에 미주 동문들의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또 이 자리에서는 지난 6월 16일 시카고에서 열린 재미 총동창회 11회 평의원의 마지막날 있었던 친선골프대회에서 "Hole-in-one"의 진기록을 세운 명태현 동문(공대 50년 졸)(최일주, 조대현, 우인성 동문과 한조를 이루었음)에게 축하 기념패를 증정하였다. (사진)

이날 오후에 李회장은 모교를 방문하여 신임 정운찬 총장을 예방하여 모교와 재미총동창회의 공



동관심사에 대하여 협의하고 음악회를 지원한 母校에 대하여 감사하였다.

이 자리에는 모교 음대 신임 학생처장 黃俊淵 교수(음대 국악과)와 8월 15일부터 2주 동안모교 음대 미주순회단을 인솔한 김형배 교수가 배석하였다. 李회장은 김교수와 10여명의 연주단원들의 성공적인 연주회에 "축하와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참석자들은 2주간 강행군을 한 일정이 성공리에 무사하게 완결되어 모교와 재미동문들의 유대감의 강화에 기여하였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李회장(기계공학박사, 열전도 연구 전문가)은 기간 중 9월 13일부터 15일 간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서 있는 "Idling 방지 기술"에 관한 학술회의 참석 및 대전의 한국 에너지기술연구소, 포항 제철연구소 및 TE Solutions 연구소 등과 전문분야에 관한 연구사업의 협의를 한 후 9월 19일 시카고로 돌아왔다.

재미총동창회 8차 상임임원회 회의록 -7월 18일(목) 6시 30분

재미총동창회 집행부 상임임원회가 7월 18일(목) 6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총동창회 본부가 든 중앙일보사옥 2층에서 열려, 6대 집행부 1차년도 재무결산과 제2차년도 총동창회 운영 및 회보간행 재원확보에 관한 현안 등을 토의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이용락 회장, 송순영 관악후원회부회장, 구경회 사무총장, 전현일 재무국장이 참석하고 김정수 회보편집인이 배석하였다. 김정주(재무), 장기남(섭외) 및 정호(출판)국장은 사정에 의하여 불참하였다

이용락 회장은 8월 16일부터 시작되는 미주음대 연주단의 8개 도시 9회 공연 일정이 확정되었고, 첫 공연지인 시카고에서는 시카고지역동창회(회장 한재은)에서 음악회개최 및 연주단 영접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전하였다. 또 李회장은 제11차 정기 평의원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제6대 집행부가 1차년도에 회보간행등 총동창회 소임을 큰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게 된데 대하여 우선 회보를 통하여 전체동문과 미주 관악후원회 이사님들께 감사의 뜻을 표

하며, 재미총동창회의 평의원회 구성 활성화 및 재미총동창회 장학금 설립에 관한 試案등을 포함한 사업방향에 대한 지난 6월 14일의 창립 10주년 심포지움 및 15일의 평의원회의 결의등을 참작하여 2차년도를 맞는 연두인사도 회보에 게재하겠다고 하였다.

具사무총장은 사업보고 중에서 IRS에 보고할 FY 2001-2002의 총동창회 및 지역동창회의 재무보고서를 위한 표준양식을 각 지역동창회에 조속히 보내어 자료를 취합하여 IRS 보고를 완결함이 급선무임을 강조하였고, 소재재무국장과 함께 이 문제를 법정 기일 내에 완결하기로 하였다.

소재재무국장은 지난해에 구독료 납부인원의 160명 증가로 관악후원회비 지원금의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총동창회의 "긴축예산" 집행으로 지난 1년의 재정적 균형을 이루었음을 보고하였다. 이어 내년도에는 평의원회에서 가결된 예산안에 포함된 사무실 및 회보편집실의 경상경비 증가, 남가주로 총동창회 본부가 이전됨에 따라 회보를 한번

더 간행함에 따른 소요예산의 증가를 뒷받침할 지출재원 확보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李회장은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광고위원회의 구성과 이의 활동으로 추가재원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宋관악후원회 부회장은 李회장의 전년도 관악후원회 이사들에게 보내는 개별 서신 발송 후에 금년도 후원회비 모금에 주력할 계획임을 피력하였다.

또 이날 회의는 재미동창회의 당면과제인 회원들의 노령화의 추세를 상쇄할 젊은 동문들의 발굴과 내년 평의원회의 실제 참석자수가 재적 과반수에 미달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평의원회 구성방안 (총동창회 고문들과 활발하게 움직이는 직능단체장이 同門일 경우에 당연직 평의원으로서 초빙하는 방안 등), 평의원의 선출 절차(젊은 평의원 증가방안) 개선으로 재미총동창회 최고의결기관인 평의원회의 활성화 방안이 내년도 평의원회 이전에 서면으로라도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에 의견을 모으고 散會하였다.

제 6대 집행부 1차년도 사업결산

재미서울대 동창회보의 발행재원의 확보를 위한 관악후원회 종신이사회비를 보내주시는 동문들께 감사드립니다.

문서번호 : SNUAAUSA-02-01907/09/02
발신 : 재미 총동창회 재무국장
수신 : 재미 총동창회 이용락회장, 송순영 관악후원회 부회장
참조 : 구경회 사무총장
제목 : 미주관악 후원회 종신 이사비 CD 구좌 개설보고

5대 집행부(회장 오인석)으로 부터 작년 7월 1일자로 제 6대 집행부로 이관되어온 미주 관악 후원회 종신이사비 적립금 \$43,500은 그동안 김현옥 전 재무국장(문리대 1967년 입)이 Scudder Investments Inc.의 Yieldwise Money Fund에 적립되어 있었으나 현재 시장여건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을 가져 왔으므로 이 구좌를 6월 25일자로 종결하여 원금과 그 수익금(\$634.78)을 합산한 금액 (\$44,147.78)을 당일자로 환불 받았습니다.

NB: 재미 동창회보 2001년 7월 1일자의 89호 20면에는 종신이사비 16명(강영빈, 박경민, 박병기, 방은호, 서영석, 심상은, 오인석, 오홍조, 윤선홍, 이교락, 이기영, 이병준, 이세열, 이진구, 정태 및 이정광)이 기재되어있고 그중 이정광 동문은 당시 종신이사비의 1/2만 납입하였다고 하므로 종신 이사비 적립총액이 \$46,500이 되어야 하는데 이관되어온 금액은 \$43,500이므로 이 기록에 대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제 6대 집행부(회장 이용락)의 첫 회계년도 (2001년 7월 1일 - 2002년 6월 30일) 기간 중에 이정광 동문이 종신이사비 잔여분 \$1,500을 납입하였고, 내분의 동문(전희택, 윤정옥, 한홍택 및 조시호)이 각각 신규종신이사회비로 \$3,000씩을 납입하여 제 6대 집행부 1차 회계년도 종신 이사비 \$13,500을 현재 총동창회의 거래 은행인 Foster Bank에 9개월 만기 CD 구좌를 개설하여 첨부와같이 별도 적립하고자 합니다.

재미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재무국장 전 현 일

첨부 : 1) 적립금액 수표번호 #1208
< 적립금액 \$57,000 >

한국의 最高大學을 세계적인 先進 高等教育기관으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동문들의 母校와 後進을 위한 基金 出捐에 감사드립니다.

문서번호 : SNUAAUSA-02-01806/28/02
수신 : 오인석 母校와 後進을 위한 基金 委員會 위원장
참조 : 기금위원(오인석, 방은호, 윤정옥, 이병준, 김병수, 임낙균, 이용락 총동창회장) 및 구경회 사무총장
발신 : 전현일 재무국장
제목 : 당 회계년도 母校와 後進을 위한 基金 모금액 이송

오인석 기금위원장님, 그간 안녕하십니까?
첨부와 같이 당 회계년도 (2001년 7월 1일 ~ 2002년 6월 30일)에 재미 총동창회 사무국에 접수한 모교와 후진을 위한 백만불 기금 모금액 (21명의 동문 출연금과 워싱턴 DC 지역동창회에서 제작, 기여한 조수미 CD 266매 판매대금을 포함하여 총액 \$14,190)을 그 출연자 명부와 함께 기금위원회로 이송합니다. 당회계년도의 전체 집계표는 재미 서울대 동창회보 100호(2002년 6월 28일)에 게재됩니다.

母校와 後進을 위한 基金委員會의 노고에 敬意를 표합니다. 다가오는 炎火之際에도 기금위원님들의 平康하심을 기원합니다.

첨부 : 1) 당회계년도 기금 출연자 명부
2) 이송금액 수표
- Payable to : SNUAAUSA(백만불 기금 위원회)
- Check No. : S.N.U.A.A. IN USA #1204
- Amount : \$14,190

제 6대 집행부 1차년도 사업보고

재미 총동창회 제 6대 집행부(회장 李龍洛, 공대 53년 졸)는 제 1차년도에 회보간행사업을 중단없이 계속하면서 동문들이 출연한 정성어린 성금(구독료, 관악후원회비와 모교와 후진을 위한 기금)중 재미 서울대 동창회보의 장기적인 발간재원 확보를 위한 積立金인 미주관악후원회 종신이사비 \$13,500을 추가로 확보하여 5대 집행부로 부터 이관된 \$43,500을 합하여 \$57,000을 시카고의 Foster Bank에 별도 적립하였다(아래의 공문참조). 또, 모교와 후진을 위한 기금으로 \$24,190을 확보하여(기금위원회 직접 접수분 \$10,000포함)기금위원회(위원장 吳仁錫, 법대 62년 졸)로 이송하여 뉴욕 Liberty Bank에 별도 적립하게 하였다(아래의 공문 및 3면의 출연자 명단 참조).

"母校와 後進을 위한 基金"

기금의 연혁과 운영방침

吳仁錫(법대 58년 입, 在美總同窓會 제 4,5대회장)

母校와 後進을 위한 基金 및 관리 위원회의 조직을 설명하고, 基金의 미래에 관한 提議를 하기 위하여는, 基金 창설의 배경을 우선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4대 집행부는 동창회의 조직을 견실하게 다지고 확장하는 일과 이렇듯 활성화된 조직을 선용하는 두가지 사명달성을 동창회 운영 목표로 삼았습니다.

동창회 조직활성화는 전국적인 조직만이 할 수 있고 해야 마땅한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지역동창회간의 조직 일원화는 물론 전미국 동창을 계속 발굴, 결집하고 지역동창회를 신설키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 "在美 서울大 同窓會報"의 계속 보완과 발간에 첫째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每月 회보발행에 필요한 여건, 즉 집행부 소재지의 지역동창회의 규모와 재정적 상태의 제약을 인지하게 되고, 설상가상 급기야 수석부회장의 사퇴로 제5대 회장을 연임하게 되는 사태로 발전되었습니다.

문제해결의 한 타개책으로, 제5대 집행부 첫년도에는 관악후원회를 조직하여 187명의 동문들로부터 호응을 받아 \$140,390의 모금실적을 올리고 계속 사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둘째년도에는 신문구독료 납부 campaign을 조직적으로 전개한 결과 불과 6개월만에 1,202명 동문들로부터 \$61,250의 납부 실적을 거두고, 동시에 관악후원회도 계속 177명의 동문들로부터 \$108,262의 모금을 하여 합계 \$169,512라는 재원확보를 하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동창회 활동을 위해 최소한 1200명 이상 동문이 참여한 Base에서 매년 \$13만불 이상의 모금기반이 잡혀졌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적극적인 호응과 찬조

는 재미동창회의 월간회보 발행 계속을 포함한 활동전반이 회원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만족한 운영이 이루어져야 함은 재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 집행부는 둘째 명제, 즉 다져지고 활성화된 조직을 선용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이 사명에 부합하는 적절한 사업을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집행부의 재무를 담당하던 李慶林(상대 64입)동문을 통하여 그분의 선배 CPA partner 이신 이법선(상대 48입)박사가 오래동안 미주의 梨花女大財團의 감사를 맡으시고, 高麗大學校의 美 洲총동창회장을 역임하신 이무림 회장이 家兄으로 두 기구가 美國 內에서 성공적으로, 나아가 高大의 경우에는 단시간내에 모금운동을 하고 있는 사례를 가까이서 관찰해온바, 2000년 평의원회의에서 과감히 母校와 後進을 돕는 사업을 제창하여 만장일치의 찬성을 얻어 "母校와 後進을 돕기 위한 百萬弗 基金"이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 "基金"의 출범이전에 집행부는 동창회관계 선후배 동문, 서울 총동창회와 관악재단, 母校기금에 기부가능성이 있는 동문들, 미국내 大學校들의 모금담당 관계자, 資產 관리자(asset manager), 변호사들을 포함하여 각계각층의 人事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한바 있습니다. 이 결과 基金의 필수적인 사명과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 결론을 얻었습니다.

- 1) "基金"은 투명성을 지켜 동문들에게 모금과 관리, 사업내용을 만족스럽게 전달하고,
- 2) "基金"관리가 간혹 있는 사례이며 기부자가 염려하는점, 솔직히 표현하여, 몇년 후에 책임자가 바뀌면 元金の 行方조차 묘연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고,
- 3) "基金"모금과 운영 費用을 최



- 소한도로 줄여 비용남용을 막고,
- 4) 정성껏 기여한 "基金"은 이에 맞도록 뜻있게 使用하고
- 5) 기부자와 "基金"자체는 IRS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稅制上的 혜택을 받도록 하고,
- 6) 위의 모든 條件이 美國法에 따라 合法的으로 이루어 져야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基金"을 관리하는 동문들은,

- a) 다른 동문은 물론 사회에서 人格의으로나 능률적 관리 능력면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어서 기부자가 마음놓을 수 있는 분,
- b) 同窓會本部가 자리를 옮길때마다 많은 동문이 동창회보의 계속성을 우려하고, 元金の 사용처 내지 行方에 대한 우려를 하는 현실에 입각하여, 基金관리의 계속성을 가능한한 보장토록 하며,
- c) 재미 전체 동문이 所有하고 參加하는 基金으로 운영을 하여야 한다는 原則을 세웠습니다.

制度的으로나 法的으로 위의 조건들을 가장쉽게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정관에는 남아있지만 의도적으로 잠재우고 있는(dormant), 서울대학교 재미 동창회 재단을 다시 양성화하여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同窓會와 財團을 통합 운영하기 위해 선임 회장단들과 재단측이 매우 힘든 노력을 한것을 목격한 저로서는 그 재단의 활성화는 피하고 차선책을 찾도록 전문가들에게 지시하였습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제5대 집행부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던 金容學(法大70입)변호사가 중심이 되어 이경림 재무국장, New York市에 本社를 둔 Curtis, Dallet, Prevost, Colt, Mosel, LLP의 會社法, 稅法담당 변호사들이 검토한 결과 tax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창립 10주년기념 論壇 "재미서울대학교총동창회의 미래에 대한 소망과 제언"

2002년 6월 14일 토요일 오후7시

Court A-C room, Oak Brook Hills HOTEL, Oak Brook, IL

[편집자주] 재미 총동창회는 지난해에 맞이한 창립 10주년을 기념하여 금년 제 11차 정기 평의원회의 前夜에 "재미서울대학교 총동창회의 未來에 대한 所望과 提議"이라는 주제로 31명의 동문들이 참여한 가운데 5명이 발제자(박윤수, 강수상, 이병준, 오인석 및 김호원 동문)로 초청된 바 있다. 이번 호에는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제 4,5대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모교와 후진을 위한 기금위원장인 吳仁錫동문이 "100만불 기금"의 연원과 운영방침에 대하여 대하여 논하고 있다.

exempt status를 유지할 수 있고, 당시 계류중이던 group tax exemption status를 취득하는데 상충되지 않으며, 최고의결기관이던 전국 評議員會의 권한을 변경하지 않는 원칙에서 정관개정 작업에 들어가, 2001년 평의원회의 직전에 서면투표로 가결된 정관개정 상세한 설명은 김용학 변호사가 당시 준비한 서면결의 내용설명서인 "회칙 개정안요지" 회보 88호, 2001년 6월 1일자 5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을 要約하여 말씀드리자면,

- 1) 在美 同窓會의 조직을 체계화하여 미국의 會社法 원칙에 따르되, 評議員會와 會長의 기존 권한을 변경하지 않도록 하고,
- 2) 基金 제도화를 위한 기구를 美國會社法과 稅法이 요구하는 기구로 조직하고,
- 3) 이 기구는 재미총동창회와 평의원회의 산하기구로 하고, 基金 관리위원은 평의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며 동창회장은 당연직 기금관리위원이 되도록 하고,
- 4) 출연자들이 기대하는 투명성, 안정성, 계속성, 경제성, 효율성을 갖춘 기금으로 계속 성장시키기 위해 기금관리책임은 당연직위원이외에 6명의 위원이 5년간의 임기로 책임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初代委員들에 한하여 각 2명씩, 3年次, 4年次, 5年次로 임기를 정하여 美州 전동문과 평의원회가 원하는 새로운 관리위원을 점진적으로 引入하는 방법을 취했습니다.(현재의 기금위원명단 아래 참조).

정식 출범한지 불과 1년밖에

안된 基金이지만 현재까지 동문들의 호응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133명의 동문이 \$725,083을 약정하시고, 3명의 동문이 유증을 약속하셔서, 이미 현금 \$541,583과 \$81,000상당의 주식(6월 13일 현재 가격)을 출연하셨습니다. 이중 \$392,760은 5차례 걸쳐 母校와 後進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고, 현재 \$245,740 상당의 현금과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집행된 금액의 대부분은 출연자의 희망을 참작하여 사용되었으나, 基金운용의 원칙은 在美 同窓會에서 元金を 보유하여 百萬弗까지 基金을 키우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募金에 주력하지만, 자선이 일정수준에 도달하면 합리적인 관리를 통한 자산증식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 단계가 母校와 後進을 위한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시기라고 봅니다. 基金 출범이전부터 계획하여 수년간 同窓會報를 통해 홍보한 知的資源 奉仕團과 견, 후진교수의 美國과견시 보조와 장학사업에 중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또한 募金기반을 기존등록 동문의 현금출연과 유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재미 동창회의 큰 과제인 後進발굴과 참여를 적극 추진하여, 募金기반을 확대하여 영구적이고 계속 성장하는 基金으로 발전시켜, 同門한분 한분께 母校와 後進을 위한 사업에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랑스러운 서울大人으로서 긍지와 보람을 느끼게 하는 基金이 되도록 모두 全力 하십시오.

FY 2001 基金 출연자 명단

- ▶이용락(공대 48년입) \$1,000
- ▶정정수(의대 56년 입) \$500
- ▶조영재(상대 68년 입) \$300
- ▶정인환(법대 60년 졸) \$200
- ▶임춘수(의대 57년 입) \$200
- ▶이규섭(상대 68년 입) \$150
- ▶권길상(음대 46년 입) \$100
- ▶변우진(인문대 81년 입) \$100
- ▶소진문(치대 58년 입) \$100
- ▶김석식(의대 56년 입) \$100
- ▶박양세(약대 48년 입) \$100
- ▶강영빈(문리대 58년 입) \$250

- ▶이양숙(치대 31년 입) \$200
- ▶도운회(농대61년 입) \$200
- ▶강영빈(문리대 58년 입) \$250
- ▶송창원(문리대 53년 입) \$100
- ▶최수용(상대 55년 입) \$5,000
- ▶황석우(의대 53년 입) \$100
- ▶한홍택(공대 60년 입) \$1,000
- ▶김기훈(상대 52년 입) \$250
- ▶방은호(약대 42년입) \$10,000

- ▶워싱턴 DC (조수미 CD 판매대금) \$3,990
- 총 22명 (\$24,190) (조수미 CD 판매대금 \$3,990) -본부 접수 모금액 21명 (\$14,190) ; 기금위원회 직접 접수 1명 (\$10,000)

- 母校와 後進을 위한 基金委員會 委員 명단
- 吳仁錫(법대 58입, 4년 임기, 위원장)
- 方恩鎭(약대 42입, 5년 임기)
- 尹在玉(약대 50입, 5년 임기)
- 李丙俊(상대 55입, 4년 임기)
- 金秉洙(상대 55입, 3년 임기)
- 任洛均(약대 64입, 3년 임기)
- 李龍洙(공대 48입, 총동창회장 당연직)

[9·11 일주기 追慕詩]

2002년 9월 11일

워싱턴 한인연합회, 워싱턴 한인교회연합회 공동주최 911 추모식에서

소리 없는 음성

白 梅 (1958년 법대입학, 1962년 졸업, 현 미국노동성 선임경제학자)

곡식을 익히는 초가을 햇살이
파란 하늘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던 아침
산더미 같은 테러의 검은 연기가
뉴욕 맨해튼과 워싱턴 펜타곤을 뒤 덮고 있었네

콩크리트 회색 먼지가
9월의 청청한 하늘을 뿌옇게 물들이던 날
소리 없는 부르짖음이
문명의 침묵을 깨고 있었네

인류의 번영을 시기하는 미움의 테러 때문에
자유를 외면하는 파괴의 테러 때문에
솟아오르는 밝은 빛을 저주하는 검은 세력의 테러 때문에
천진한 평화의 생명들이 죽음을 맞보았네

경제를 움직이는 건장한 일꾼들이
나라를 지키는 늠름한 모습들이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아들, 딸들이
그리고
그대들을 구출하고자 뛰어 들어가 돌아오지 못한
뉴욕 소방대원들이
태양마저 퇴색해 진 잿빛 먼지 더미와 함께
사라져 갔네

"당신은 어디에 있으" 라고
울부짖는 아내의 절규 속에서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송하는 아들의 눈물 머금은 음성 속에서

"천사의 팔에 안겨 있는 친구들"을
노래하는 어느 시인의 낭만한 율음 속에서
소리 없는 부르짖음이
잔잔히 들려 오고 있었네

테러집단을 소탕하는 포성이
아프간의 산악을 가득히 채우고

성조기의 물결 속에서
워싱턴 물을 진동시키고
포성과 합창이 어우러져
교향악을 연주하는 가운데에
소리 없는 부르짖음이
세미한 음성으로 반주를 하고 있었네

소리 없는 부르짖음
"검은 세력을 쳐 부수기에
용감하게 싸우라고"

"흩어져 제 갈길 가는 생명들을
불러모아 하나됨을 이루라고"

"미움을 변화시키어
사랑으로 바꾸어 놓으라고"
부드럽게, 뚜렷하게 속삭이고 있었네

이제
그라운드 제로의 말없는 패배이었지만
두려움의 엄습을 대면하여 우뚝 서 있는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그대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리
그대들에게 정중히 경의를 표시하리
그대들의 소리 없는 부르짖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
그대들과 우리 모두 앞에 남기어진
미완성의 사명에 헌신할 것을 굳게 다짐하리
그대들을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God Bless America 의 합창이



2부 文筆과 論考 목차

母校와 後進을 위한 基金, 오인석	3
소리 없는 음성(추모시), 백순	4
權力の 跼과 民衆의 跼, 장동만	5
변화하는 북한(투고요청)	6
솔대 연주단 아틀란타 공연을 돌아보며, 문종현	9
12대 6,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이영목	7
피카소의 청색시대<서평>, 오태희	7
오레스테스(Orestes)의 選擇, 정유석	8
서울대학 울타리 안에서, 윤정나	10
전쟁과 평화: 9.11사태 1주년을 지나면서, 김종을	11
미국時論 (3편)	11
탁구 기술과 우울증 치료, 이수일	14
나의 人生, 나의 學問(II), 강경식	16

<지면>

民主主義, 테러사태, 帝國의 平和와 戰爭

이번 달은 지난해 9.11 사태의 일주년을 맞는 달이다. 미주동문들의 삶의 터전인 미국에 닥친 비극적인 재난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인권의 신장이라는 인류문명의 상승궤적에 큰 암초를 던진 미증유의 反人類 反文明的인 그 만행을 우리 동창회보도 반추하지 않을 수 없다. 3,800여명의 숨진 영령들과 그 유가족에 우리는 다시한번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인간적 무차별 폭력 테러가 왜 일어났는가? 왜 미국이 테러분자의 미움의 대상인가? 이에 대한 해답과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人類文明史의 進歩의 軌道를 복구하는 길이 될런지는 많은 숙고를 요한다. 그러나 冷戰의 종식이후 탁월한 軍事力과 經濟力을 바탕으로 지구상의 唯一의 帝國으로 등장한 美國은 "테러와의 戰爭"으로 부터 "사담후세인"政權의 전복을 목표로 하여 새로운 공격적인 전략(preemptive strike) 개념을 부시정권이 추진하여 미국 朝野와 국제 사회의 논란이 비등한 "하수상한 시절(phony war)"이다. 이 와중에도 南北韓의 철도망 연결과 북한의 자본주의 경제의 실험의 시작등은 우리 民族의 念願인 統一街道에 瑞光을 비치고 있다. 문필과 논고자는 우리 동문들의 다양한 玉稿를 모아 함께 읽고 토론하는 場을 풍요롭게 하고자 한다.

權力の ʒ대와 民衆의 ʒ대

국무총리 인준과정을 보며

장동만(문리대 63년졸)

장 상, 장 대한 씨를 총리로 지명, 국회 인준을 제청할 때, 청와대는 이렇게 말했다. "철저한 검증 을 거쳤다. 문제될 것이 조금도 없다." 그런데 웬걸, 두 사람 모두 연거푸 인준이 부결됐다. 어떻게 된 영문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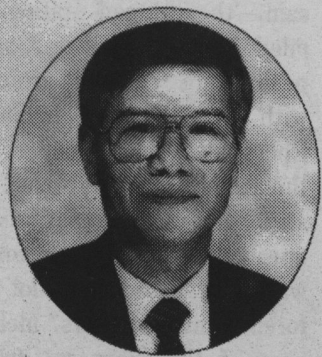
대선을 앞둔 여야의 복잡다단한 정치 역학도 작용했겠지만, 필자는 그 가장 큰 원인을 청와대라는 '권력의 ʒ대'와 의회로 대변되는 '민중의 ʒ대'가 너무나 다른데서 오는 괴리에 있다고 본다.

두 번째 장씨 지명을 발표하면서 청와대는 "재산 공개는 차후에—" 하는 단서를 달았다. 이 때 벌써 사람들은 의아해 했다. "재산 56억 원(약 500만 달러)"이 공개되자 "50대에 돈이 너무 많구먼—" 심지어 미국에 사는 동포들 입에서까지 이런 말이 나왔다. 더욱이나 "56억 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은 공시지가로 산정한 액수, 이를 현 시가로 계산하면 "재산 100억 원 대"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자, 사람들은 입을 딱 벌렸다. "민중의 ʒ대"로는 너무나 엄청난 돈이었기 때문이다.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청와대 말대로, 물론 "돈 많다"는 것이 정치인의 결격 사유가 될 수는 없다. 어찌 보면 한국적 상황에서는 플러스 기능을 할 수도 있다. 권좌에 앉은 후, 최소한 치사하게 탐관오리 짓은 덜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시대가 너무나 달라졌다. 이제 '민중의 ʒ대'는 '지금의 너'를 보기에 앞서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의 너'가 되었는가를 묻고져 한다. "돈 많은 것, 좋다. 그러나 납세 의무를 다했는지, 졸부들이나 하는 부동산 투기를 안 했는지, 좀 보자." "외국 학위, 더 할 수 없이 좋다. 허나, 출입국 관리법, 병역법 등을 모두 준수하면서 유학 생활을 했는지, 좀 보자."

'권력의 ʒ대'로선 "재산 56억 원(실제는 100억 원대?)"은 별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아무 문제없다."고 큰 소리 쳤을 거다. 허나, '민중의 ʒ대'로선 그 돈은 너무나 엄청난다. 그리고 "개발 독재와 정경 유착 시절 지배 계층 중에 재테크에 손 안 댄 사람 있느냐?" (여당 한 대표 말) 라고 거침없이 말할 수 있는 그 '권력의 ʒ대'로선, 그의 부동산 증권 투기 의혹도 대수롭지 않았을 거다. 그러나 집안 칸 마련이 힘겨운 '민중의 ʒ대'로선 그것은 도덕적으로 도저히



응답할 수 없는 괴리치 행위로 비추었을 거다. 탈세 의혹만 해도 그렇다. 고의적인 脫稅는 안 했다손 치자. 그러나 유수한 회계사 계리사를 고용해 법의 틈새를 가능한 한 이용, 최대한의 節稅를 했을 거다. 그래서 "강자의 ʒ대"로선, "세금을 100% 정직하게 냈다. 세무 당국이 더 내라고 하면 더 내겠다."고 당당할 수 있었지만, 그만큼 힘도 머리도 없는 일반 서민들 '민중의 ʒ대'로선, 그것이 너무나 불공평하고 부정의 하다고 생각했을 거다. 왜냐하면 소득 100만원인 사람에게 세금 1만원은 그 소득의 1%에 불과, 대수롭지 않지만 소득 10만원인 사람에게 1만원은 그 소득의 10%, 그 비중이 천양지차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두 총리 지명자를 나마 시킨 이 "민중의 ʒ대"를 고이 간직, 앞으로 대선 총선 등 우리의 대변자를 뽑을 때마다 이를 서슴없이 휘두르자. 그리고 그들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꼼꼼히 재단하자. 이는 오늘 날 투자자들이 기업들에게 투명한 회계, 투명한 경영 관리를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유권자들에게 주어진 권리가 아닌가?

自然속의 隨想

What is Equal?

정태 (의대 62년졸)

One lazy, hot, summer afternoon, I was enjoying a cold iced tea in my living room, looking out my window at the serene lake and sensing the peace of the surrounding woods. I felt pulled to wander about among the trees, bushes and wild flowers that were stretching to capture their needed sun and inching their roots beneath the earth to claim what is needed(water and nutrients) from below. Everything seemed to have its own, unique place. An imposing hundred year old oak, bearded with moss, stood next to a fragile maple, who with its thin branches, leaned gracefully away from the oak, reaching easily to the sun's rays above. Another maple, lush with an abundance of greenery, bursting forth in full vigor, comfortably reached sturdy limbs to the sky above to find its needed sun. Evergreens, a variety of bushes and shrubs, wild flowers and winding vines; all seemed to comfortably find their place, to meet their needs to thrive. And, the resulting landscape was breathtaking and pure rapture.

In a fleeting moment, the peaceful picture was altered. The cracking of thunder, followed by the scream of the wind, announced a summer storm. The light dimmed, and the day became dark and cool. Rain drops pelted with their own urgency, and my heart began to pound as I returned to the safety of my living room to watch the rain drench the earth and hear the wind rattle the window panes, a summer storm fell upon me.

As I lingered to watch, I began to ponder the ease with which the stately oak took in its needed drink, deferring to the slender maple and lesser shrubs, bushes and flowers, who waited patiently for their share. No complaints were

voiced. Each seemed to take what it needed and was thankful to have its portion. There is perfect harmony and peaceful order in nature. No one complains, no one is unhappy, no one protests. "Everything" in nature, no matter its size, its physical beauty, its strength and ability to withstand adverse conditions- everything has the same opportunity to take a long drink from the sweet shower and to bask in contentment.

As the rain eased, I wandered back out to the yard to listen closely to the stately oak, bearded with moss, to the graceful maple and its sturdy brother, to the bushes and shrubs, to the colorful flowers and to the plain, winding vine to hear if there was the slightest sense of discontent over the unexpected shower, after long days of scorching summer heat, and quenching their thirst. I didn't hear a thing. What I found was not only nature in harmony but each tree, all shrubs and bushes, the graceful maple and the sturdy oak, as well as the trailing vines and each blooming flower—they were all fresher, greener and more beautiful than before. There was order, and each element of nature appeared relaxed and perfectly harmonious. There was enough for all, not more, not less.

I walked gingerly on the grass, attempting to absorb the peace of the scene and not wanting to deprive any of the plant life of their long awaited drink of precious raindrops. I was overwhelmed with joy and humbled to have witnessed Mother Nature's grace, peaceful order, and harmony. Looking above, I could see brightly colored butterflies fluttering. Listening closely, I could hear the faint buzzing of bees. On the ground below, were inchworms an-

cing on leaves. The newly softened earth was the sight of plump earthworms crawling easily and racing to claim their drink of fresh rain. I was happy to be a part of all of this and to be able to observe Mother Nature's grace, peace, and harmony.

The tall, one hundred year old oak didn't overwhelm the maple, the shrubs and flowers didn't dominate, taking more moisture than they required to thrive. The meandering vines and insignificant bushes didn't attempt to outsmart their more vibrant neighboring flowers, nor their more stately evergreens. It is quite clear that the shrubs and bushes are not equal in size to the ancient oak, and that many of the flowers, in their eye catching hues, would certainly reign king if beauty was nature's criteria for what is considered the best. In nature, competition is no contest. In nature, everything has a valued place. In nature, there is the certainty that all belong, all have a significant place, all matter. Greenery, flowers, tall, sturdy trees, slithering inchworms, butterflies—each one has the opportunity and the space to thrive, none seems to protest to be equal to have squire and fair opportunity and place to thrive.

I was fortunate to have had a glimpse of life in the woods that scorching Sunday afternoon, to watch nature recharged following a long awaited, drink from a sweet, summer shower. I sensed that in this harmonious interplay, everything thrived, and I began to feel a sweet shower in my heart and soul and to long for more.

Is everything equal? We must ask Mother Nature, in her wisdom, to reveal the answer. Perhaps a wise man with an untainted view could really see nature the way it is, could actually learn from a day in the woods observing, contemplating and pondering. Then, and only then, could a wise man, with clarity of vision, define what is equal.

조수미 초청음악회 실황 녹음 CD 판매 계속 "Love from Washington"

소프라노 조수미(Sumi Jo) Washington, DC Concert(2001년 8월 25 일)에서 실황 녹음하여 제작된 CD를 500개 한정판으로 우선 판매한다. 이 판매 대금은 관악부원들의 휴가와 장학금 위한 불순으로 사용된다. 가격: CD 17개권 \$15(송료는 첫 번째 \$3 복수 구입 시 개당 \$1 추가) 구매수량(인당): 제한 있으나 500개의 제한된 수량으로 신속한 주문 판매하거나 가격과 우송료를 포함한 수표를 아래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재미 서울대학교 동동맹회 사무국 SNUAA USA 790 Busse Road, Suite 201 Elk Grove Village, IL 60007 전화: 847-981-1464, Fax: 847-981-1465 e-mail: sunausa@panuaa.org * 수표는 Payable to SNUAAUSA로 작성 바람.

北韓은 어떻게 변하는가?

〈투고요청〉: 동문여러분! 언론보도에서 아시다시피 北韓은 최근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미 동창회보는 이미 北韓의 변화 방향에 대하여 최진백 동문의 中國의 新自由主義(회보 97호 12면~14면 참조)와 고병철 동문의 南北韓 關係의 展望(회보 100호 10면~11면 참조)을 통하여 北韓의 변화의 가능성에 대하여 예측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창회보는 일반출판물같이 "보고 버리는" 紙面이 아니고 우리 동문들께서 성심으로 쓰신 글을 바탕으로 "읽고 토론하는" 知性人의 友情을 글로써 나누고자 합니다. 北韓의 변화의 정도와 앞으로의 변화방향에 대한 동문여러분들의 玉稿를 기다립니다. 아래 글은 뉴욕타임즈 9월 25일자 3면에 게재된 기사인데 여기에 우리동문들의 집필의 단서로 기록합니다. 이 글의 원 저자는 HOWARD W. FRENCH이며 원제목은 'North Korea to Let Capitalism Loose in Investment Zone'입니다.

TOKYO, Sept. 24 - In the most significant reversal of economic policy since North Korea was founded, that Communist nation has announced the establishment of an autonomous capitalist investment zone near its border with China. According to the official Korean Central News Agency, North Korea has adopted legislation mandating the

control access by North Koreans.

In perhaps the biggest surprise of all, the special economic zone will be run by a Chinese agricultural and manufacturing magnate, Yang Bin(楊斌, 39세), a frequent visitor to North Korea aboard his private jet, and a confidant of the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Il. According to Forbes magazine,



북한 當路者에게 答배를 붙이고 있는 중국계 화란인 자본가 양빈

creation of an "international financial, trade, commercial, industrial" zone to be built in the northwestern city of Sinuiju(신의주), operating free of central government interference for a period of 50 years. According to news reports from both North and South Korea, the new zone will seek private capital from China, Japan and South Korea, as well as the West, and will operate its own legal and economic system, and even issue its own passports. Foreigners will reportedly be able to enter without visas, although the government will build walls around the city to

Mr. Yang, 39, is China's second richest man. A native of Nanjing who has taken Dutch citizenship, Mr. Yang is chairman of Euro-Asia Agriculture Holdings, a grower of orchids and vegetables that was one of China's most popular stocks with investors until media reports earlier this year raised questions about Mr. Yang's finances and the firm's transparency. According to Forbes magazine, his personal fortune is about \$900 million. Mr. Yang has said he will hire Westerners to run the special zone's legal system along European

lines. "This is an attempt to build Hong Kong north, and it is an extraordinary leap" for North Korea, said Marcus Noland, an expert on the North Korean economy at the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in Washington. Mr. Noland said North Korea had tried to build special economic zones in the past, notably a decade ago in the northeast region of Rajin-Sonbong, but had largely failed because of poor planning and a lack of commitment, perhaps reflecting ambivalence toward a capitalist model so fundamentally at odds with the self-sufficiency and sacrifice preached by North Korea's Stalinist founder, Kim Il Sung. The current plans involving a site close to the border with China and right on the rail line to Beijing are, by contrast, ambitious. "The degree of autonomy described in the press reports is greater than the independence granted by the Chinese to their new economic zones in the late 1970's and early 1980's," Mr. Noland said. He called the new venture "an enormous gamble" for Kim Jong Il, who succeeded Kim Il Sung, his father, eight years ago.

North Korea has also toyed recently with building a special economic zone jointly with South Korea, at Kaesong, and granted the Hyundai conglomerate permission to operate there. Hyundai broke up before setting up in the zone, however, and North Korea dragged its feet over opening up rail links there, ostensibly because it got cold feet over allowing South Korea to play such a large direct role in its economy. Last week, however, the rail link was reconnected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end of the Korean War. The 132-square mile Sinuiju zone lies across the Yalu River from the Chinese city Dandong in a relatively conservative region where the Communist party still holds strong sway, and ethnic Koreans are numerous.

A recent American traveler to the region called Sinuiju "one of the most barren places in Korea." In bustling Dandong, by contrast, he said, "the railroad station is piled high with fruits, and people are running around with cellphones." Nicholas Eberstadt, a Korea expert at the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said: "China's opening to the outside world was effectuated by a lot of foreign entrepreneurs, members of the diaspora, from Hong Kong and Taiwan. The question has always been where does North Korea get its entrepreneurial talent?" The obvious answer might seem to be South Korea, but that represents a terrible ideological peril, Mr. Eberstadt said. "They seem to have chosen China."

Mr. Yang said on Monday that North Korea would build 100,000 greenhouses to grow vegetables for export, with his company handling the sales, the South China Morning Post reported. Although he said work would begin quickly, Mr. Yang did not offer a timetable. The Hong Kong newspaper said the new zone would have no import or export tariffs, and a fixed income tax of 14 percent. Two months ago,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nnounced a radical overhaul of the exchange rate, wage and price systems. With food production flagging, and industries operating at 10 percent of capacity, according to one diplomat, the government eliminated its food ration system, raised food prices and told factories to make a profit. "Until recently, you could not even use the word reform, and now not only is it widely accepted, it is always used with a positive connotation," said a senior United Nations official in Pyongyang, the capi-

al. Regional political analysts cite a number of factors in the shift. President Bush's description of North Korea as part of an "axis of evil" may have created a sense of urgency about overcoming isolation, as has China's irritation over an increasing flow of North Koreans across their mutual border. South Korea holds crucial presidential elections in December, and North Korea is eager to see a government that favors friendly engagement, rather than isolation. Until recently, North Korea had treated the doctrine of self-reliance as untouchable, even if dependence on China for food aid and subsidized trade had always made this a partial lie. "There were a lot of people here in 1995, when the food crisis really began, who said we would rather die than have your food," an international relief official said in a recent interview in Pyongyang. After a famine that human rights groups estimate has cost more than two million lives, Kim Jong Il appears to be eager to attract capitalist funds and create a mixed-market communist system like the ones in China and Vietnam. Last week, Mr. Kim took the surprising step of acknowledging and apologizing for the kidnapping of Japanese in the 1960's and 1970's, setting the stage for normalization of relations with wealthy Japan, which in turn apologized for its colonial rule of Korea and is now expected to give \$10 billion in aid.



일본수상에게 北韓의 일본인 납치행적을 시인하는 김정일

<모교음대 연주단 공연 참관기>

12대 6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李英默(공대 63년졸, 워싱턴 지역 서울대학교 동창회 부회장)

나는 평화나눔공동체에 대해서 아주 피상적으로 알뿐이다. 그저 홀리스들에게 식사를 주기도 하고, 생수를 나누어 주기도 하고, 이웃 흑인동네에 꽃 심기도 하고, 그런 뉴스들을 듣는 정도였지 적극적인 참여를 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평소 몽고니, 우즈베키스탄이니, 멕시코니 하면서 먼 나라에 선교사 파송 운운하는 소식 속에서, 우리 한인 중 많은 사람들이 총에 맞아 죽기도 하고, 강도와 절도 피해를 입으며 생활의 터전으로 삼는 워싱턴 DC에 뛰어든 평화나눔공동체는 나에게 너무나도 신선한 충격이었기에 관심을 가져왔었다.

나는 평화나눔공동체 역시 쓰고 있는 '한흑 갈등'이란 말을 쓰지 않았으면 하고 평소 생각해왔다. 옛말에 말이 씨가 된다라고 정말 갈등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것만은 아니었다. 나는 한흑 간에 갈등이 아니라 서로간의 '무지' 또는 '몰이해'가 존재한다고 믿었고, 서로 이것을 '해소'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던 차에 지난 8월 23일 국내외의 권위있는 콩쿠르에서 1등 또는 특등으로 입상한 서울대 음대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구성된 연주단이 이곳 워싱턴으로 오게 되었다. 그리고 연주회 실무를 맡았던 나는 정말 우격다짐이랄까, 재주를 부렸다고 할까, 이 연주단이 워싱턴 DC의 한 흑인 교회에서 연주하도록 하였다.

우리 한인 측에서는 최고 수준의 음악과 한국의 전통 음악을 소개한다는 자부심, 그리고 흑인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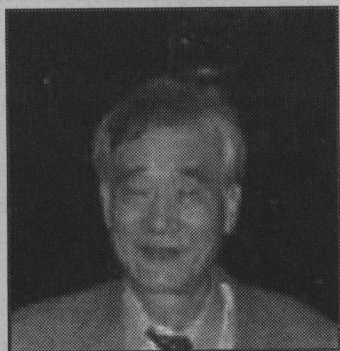
민들에게는 그러한 훌륭한 음악회에 초대받았다는 인격의 존엄성을 느끼게 하는 소위 '쌍방승리'이자, 한흑 간의 상호 이해를 돕는 행사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우리집에서 민박한 2명의 단원을 태우고 워싱턴 DC로 차를 몰고 가면서 마음속으로 '제발 많은 사람이 모였으면...'라고 바랐지만, 교회에 도착하여 7시 30분이 되었을 때, 나의 소망과 기도는 실망, 좌절 그리고 연주단에 대한 무안 그것이었다.

10분 늦게 공연을 시작할 때, 자리에 앉은 관객은 고작 22명. 참담한 숫자였다. 그리고 연이은 공포가 나를 엄습해왔다. 다른 도시로부터 도착하여, 여장을 풀기도 전에 직접 이곳 교회에 왔으므로 우리들의 차안에는 연주단의 가방과 각종 짐들이 그대로 실려 있었던 것을 생각해낸 것이다. '차를 부수고 물건을 훔쳐간다는 데...'

나는 연주장소인 교회를 빠져나와 자주 주차장을 돌아보곤 했다. 하지만 공연 시작 30분이 지나자, 나는 이미 바이얼린 소리의 깊은 골짜기에 빠졌다가, 피아노 소리에 하늘로 솟아오르기도 하고 오보에 소리에 마음이 가라앉기도 하면서 처음의 절망과 공포가 없어짐을 알게되었다. 게다가 한사람 한사람 관객을 관찰하는 여유도 생겼다.

관객은 그 동안 늘어나 50명이 조금 넘어 있었다. 그리고 그들 중, 하나, 둘, 셋, 넷... 나는 여섯 명을 찾아냈다. 화려하거나 값비싼 옷은 아니었지만, '예의'를



갖춘 옷을 입은 사람들. 그들은 나의 메시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공연이 끝나고 나와 나는 '미소' 그리고 '눈과 눈의 대화' 그것으로 충분하였던 것이다.

그들 중 한 여인이 평화나눔공동체의 최상진 목사에게 다가와 "혼자 듣기에는 너무 아깝고 안타까웠다"라면서 내미는 1불짜리 몇장. 그것이 미소를 넘어선 오직 하나의 대화였다.

12대 6.

예수께서 일생 12 사람을 얻어 지구 끝까지 전도하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그날 밤, 짧은 시간에 6명을 얻어 워싱턴 DC 구석 구석까지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기초를 닦지 않았을까.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8장 8절)'라는 성경의 구절을 되새기면서 6명의 전도사를 얻은 흐뭇한 마음이 되었는데, 동네 흑인 꼬마 아이들과 어울려 환한 웃음을 띄고 사진을 찍고 있는 우리의 자랑스런 연주단원들의 얼굴 속에서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다.

나의 자랑스런 후배들이여, 수고했다거나 고맙다고 하기에 앞서 자랑스럽구나. 너희들의 공연이 몇백 몇천 관객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것도 좋지만, 진정 이곳의 우리 한인들을 위해서 6명의 전도사를 낚아준 소중한 보물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워싱턴 DC를 떠나려 무나.



다민족 사회에 화음을 전파하는 관악의 음악도들:워싱턴DC의 흑인교회에서 음대연주단 공연후 기념촬영

<書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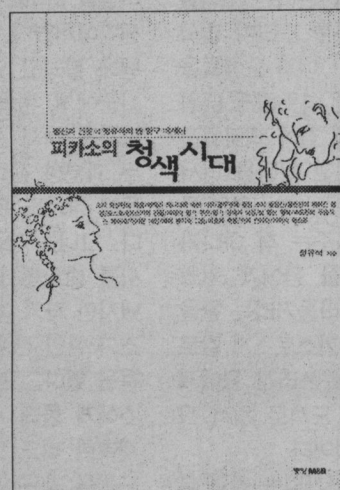
정유석, 피카소의 청색시대
서울, 중앙 M&B, 2002
性과 精神醫學

오태희(의대 64년졸, 예일대교수)



금년으로 교포 수필작가 정유석(의대 64졸)이 글을 쓰기 시작한지 어느덧 10년이 되었다. 어느날 그와 통화중에 10년 동안 한 주일도 거르지 않고 매주 글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어디서 나오느냐고 물어 보았더니 첫째로 골프를 치지 않으니 시간이 있다고 하였다. 십년이면 강산이 변하다 못해 골프장으로 둔갑하는 요즈음, 페스트처럼 번져나간 골프중독증에 다행히 감염되지 않고 글을 쓰는 일에 전념하다

니 쉬운 일이 아니다. 글을 쓰려면 글을 더 많이 읽고, 읽은 글을 또한 소화해야 하는데 시간이 있다고 해서 글을 그냥 쓸 수는 없다. 중학을 들어가서 대학을 졸업하는 교육기간이 대개 10년이



지만 저자에게는 의학과 문학을 접목시킨 인내와 집념의 십년이라 할 수 있다.

그간 출판된 저자의 단행본을 살펴보면 1995년 중앙일보사가 서울에서 선보인 "마음속의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두 번째 에세이 집 "사랑에 빠진 사람이 가장 아프다" (1999)가 나오자 저자는 번민과 갈등 속을 잠시 헤매는 듯하다. 그러나 세 번째로 발간된 "나는 나를 시험하고 싶다" (2000)를 계기로 안톤 채흠이 될 수 있는 자신감에 엘리베이터의 문을 활짝 열어 놓았다. 그의 마음속은 타고난 미술과 음악적 재능에만 만족하지 않고 본업인 의사의 경지를 벗어나 문필가의 욕구로 가득차 있다.

이번에 출판된 "피카소의 청색시대"는 전공한 정신의학 지식을 유감없이 발휘한 작가 정유석의 네 번째 수필집이다. 저자의 말처럼 이 책에서는 성문제에 관해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들을 가능한 한 많이 전달하여 독자들이 흥미를 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한 흔적이 뚜렷하다.

모두 3부로 나누어진 수필집은, 피데가 시골 처녀와 바람을

피우려다 실패한 일화가 머리말에 인용되고, 22편의 에세이가 실린 1부는 동서고금에 이름을 남긴 위인들의 정신질환과 관련된 행동양상을 흥미롭게 파헤치고 있다. 책이름 "피카소의 청색시대"는 피카소가 젊었을 적에 우울증에서 헤매던 얘기를 다룬 에세이 제목이다.

2부의 '性 障 碍의 원인과 치료'는 성에 대한 진부한 종래의 통념을 탈피하고 대담하고 박력있게 성에 대한 전문지식과 견해를 피력한 보기드문 성에 관한 지침서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수록된 12편의 에세

이 가운데 "성 없는 행복"은 저자의 후우머가 가득찬 유일한 단편 소설이다.

3부 '예술작품 속에 나타난 정신질환'은 신화, 신학, 성경, 문학, 미술, 음악, 제 분야에 나타난 정신질환을 자세하게 소개하며 정신의학이 일상생활과 가까운 학문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 책자는 소설이 아닌 에세이 묶음이라 내용의 연관성을 찾기 힘든 경우가 많을 수 밖에 없다. 오히려 그런 다양성이 책을 손에 들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게 되는 장점이다. 책에 인용된 외국어는 대부분 미국식 영어발음에 가깝게 한글로 표기하였다. 따라서 한국식 외국어 표기법에 익숙한 독자들이 다소 생소하게 느낄지도 모른다.

끝으로, "피카소의 청색시대"는 독자들이 남녀 모두 부담없이 읽을 수 있는 드물게 보는 정신 의학적 성생활 탐구 에세이집이다. 교포 문필가인 정유석의 전성시대를 예견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작품이다 <투고일 05-15-02>.

재미동창회보는 동문여러분들의 알찬 書評을 기다립니다.

오레스테스(Orestes)의 選擇

鄭有碩(의대 64년졸)

<첫번째 선택>

오레스테스는 그리스 神話에 나오는 인물이다. 그의 할아버지인 에이트류스는 뤼케네의 왕이었다. 그는 인간의 신분이면서도 항상 자기가 신보다 더 힘이 세다고 믿고 이것을 증명하려다가 신들의 진노를 입은 결과 자손에게 해가 있으리라는 저주를 받았다. 이 저주로 인해 그의 아들 아가멤논 왕이 10년간의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고국에 돌아왔을 때 부인 클리템네스트라 왕비에 의해 피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왕이 출전한 사이 왕비는 아이기스토스와 정을 통하고 있었다. 속으로는 트로이 공방전이 영원히 끝나지 않아 치정관계를 계속하기를 바랐던 왕비였건만 남편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자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법석을 떨었다. 왕비는 여자 노예들을 시켜 욕탕에 물을 따뜻하게 데워 놓았다. 오랜 여행 끝에 피로해진 왕이 목욕을 마치고 욕탕을 나서는 순간 옆에 있던 왕비는 왕의 몸을 수건으로 닦아주는 척 하다가 숨겨두었던 그물을 왕에게 씌웠다. 그물 속에서 버둥거리는 왕을 왕비의 정부 아이기스토스가 칼로 후려쳤다. 바닥에 쓰러진 왕에게 왕비가 덩벼들어 도끼로 쳐서 그 목을 잘라 버린 것이다.

오레스테스는 아가멤논 왕과 클리템네스트라 왕비 사이에서 태어난 맏아들이다. 그는 아버지가 죽자 아이기스토스의 핍박을 피해 고향을 떠났고 그리스 북쪽에 위치한 포키스 주의 크리샤 읍에서 왕 노릇을 하고 있던 외삼촌을 찾아가 그 집에서 성장했다. 뤼케네에서는 아이기스토스가 아가멤논의 자리에 들어앉아 전왕의 마차와 예복과 침대를 그대로 사용하고 전왕이 누리던 권세와 재산 그리고 왕비까지 차지하여 자기 마음대로 즐겼다. 그러나 전왕이 남긴 아들 오레스테스의 보복이 두려워 그는 하루도 마음이 편한 날이 없었다. 그는 외국 출신 호위병들을 심복으로 항상 주위에 세워 놓았지만 불안한 마음이 하루도 가시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오레스테스를 암살하면 거금을 주겠다고 약속하여 자객을 각지에 풀어 놓았다.

어른으로 성장한 오레스테스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야 할 지 그 만둬야 할 지 판단이 서지 않아 델포이 신전에 찾아가 보기로 했다. 그 결과 원수를 갚지 못하면 사람으로써 제 구실을 하지 못하리라는 신탁이 내렸다. 그러나 남의 힘

을 빌지 말고 혼자 힘으로 하라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8년째로 접어든 해에 오레스테스는 남몰래 포키스 주를 떠나 아테네시를 거쳐 뤼케네로 돌아왔다. 아버지 아가멤논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였다.

그가 제사를 드리려고 부왕의 무덤에 찾아갔을 때 그곳에 들른 누이 일렉트라(Electra)를 만난다. 그녀가 시집가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 손에 보복 당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때문에 아이기스토스 왕은 그녀에게 들어오는 무수한 청혼을 모두 거절하고 있던 중이었다. 그러다가 왕은 일렉트라를 한 시골 농사꾼에게 시집 보내버렸다. 아들을 낳아봤자 농사꾼의 아들일 터이니 후한이 없으리라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복수의 일념에 불타고 있던 일렉τρα라는 농사꾼에게 몸을 허락하지 않았고 농사꾼 역시 공주가 자신에게 너무 과분한 상대라고 여겨 그녀의 몸에 한번도 손을 대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시골에 파묻혀 항상 감시를 받으면서 굴욕의 세월을 보냈지만 자기 어머니와 아이기스토스가 살인 간통범이라고 공공연히 욕을 했다. 그리고 동생 오레스테스에게 몰래 사람을 보내 복수를 재촉한 바도 있었다. 일렉τρα의 도움을 받은 오레스테스는 왕궁에 침입하는데 성공한다.

한편 오레스테스가 죽었으리라고 믿은 아이기스토스는 마음을 놓고 한시도 옆을 떠나지 못하게 했던 호위병들의 도움이 이제는 더 이상 필요없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오레스테스는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혼자 힘으로 손쉽게 아이기스토스를 찢러 죽일 수가 있었다. 클리템네스트라는 살인자가 바로 자신의 아들임을 알아차리자 자기의 찢가슴을 드러내면서 내가 바로 이 찢을 먹고 자랐다고 사정하였다. 그러나 오레스테스는 두말하지 않고 같은 칼로 왕비까지 죽여버렸다. 아버지를 죽인 殺人者들을 모조리 처단하여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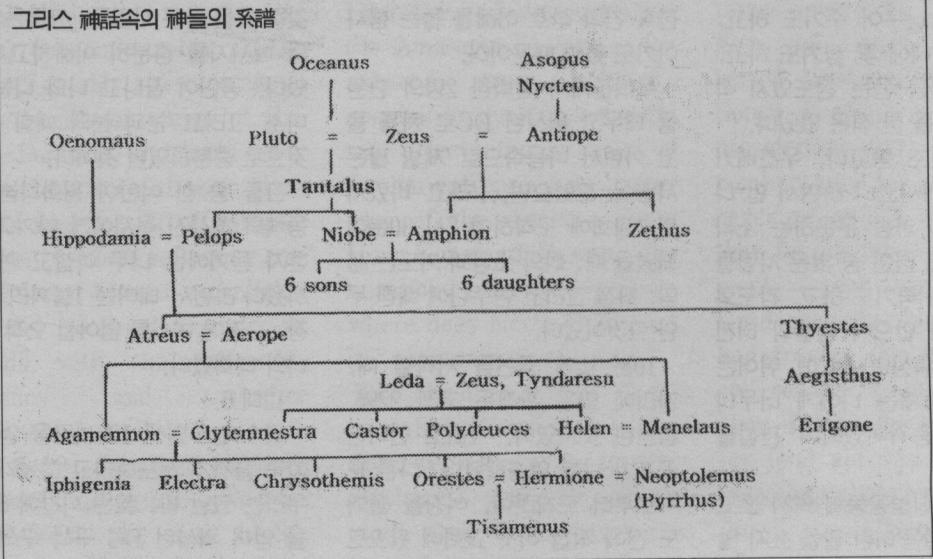
그러나 당시 그리스는 母系社會의 전통이 많이 남아있어서 어머니를 죽이는 행위는 엄청난 범죄로 취급되었다. 오레스테스가 아이기스토스만 죽이고 어머니를 살렸다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그의 복수는 불완전했을 것이지만 모친 살해라는 중벌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도 그는 아버지를 위하고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두 사람을 모두 살해하는 완



전한 복수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두번째 선택>

神들은 모친 살해라는 중죄를



범한 오레스테스에게 復讐의 女神들로부터 시달림을 당하게 하는 형벌을 내렸다. 이 세명의 女神들로부터 여자의 형상에 새의 몸통을 갖추었는데 형상국은 용모에다가 밤낮으로 무서운 소리로 짚어대어 오레스테스를 잠들지도 쉬지도 못하게 했다(이들을 그리스 신화에서는 하피(harpy)라고 부르며 지금도 성질부리는 못된 여자를 부르는 말로 쓰인다). 이들 여신들은 오직 오레스테스만이 볼 수 있었고 그들의 시끄러운 울음 소리도 그만 들을 수 있었다. 잠시도 쉬지 않고 뒤를 밟으며 괴롭히는 여신들에 의해 쫓기면서 꼬박 일 년 간 그리스 각지를 전전하던 오레스테스는 마침내 아테네시에 위치한 아테네 여신의 사당을 찾았다.

거기에서 그는 그동안 어머니를 죽인 대가로 고통을 당할 만큼 당했으므로 에이트류스 집안에 내린 저주와 복수의 여신들에게 쫓기는 형벌로부터 벗어나게 해 달라고 신들에게 요구했다. 재판장에서 오레스테스는 아폴로 신과 아테네 여신의 후원을 받았다. 예언과 운명의 신인 아폴로는 변론에서, 자신이 운명을 주관하는 신의 입장에서 오레스테스와 그의 가문에 운명을 점지해 내린 장본인이었기 때문에 오레스테스에게는 모친 살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대해 오레스테스는 항변했다. "어머니를 죽인 것은 나 오

레스테스이지 아폴로 신은 아닙니다." 여기서 오레스테스는 자신의 행동을 운명이나 자기 가문에 내린 저주로 탓하지 않고 자신이 궁극적인 책임을 지는 중대한 선택을 한 것이다. 신들은 깜짝 놀랐다. 지금껏 재판정에서 잘못에 대해 논란을 벌일때 신들을 탓하지 않고 자신이 책임을 지려는 사람을 처음 보았기 때문이었다. 결국 오레스테스는 무죄 석방되어 복수

동에 따른 결과로 받아들였고 따라서 길고도 지루한 치유의 과정을 스스로 택했다. 심리학자인 롤로 메이 박사는 베스트셀러였던 「Love and Will」이란 그의 저서에서 복수의 여신을 분노, 복수, 보복을 상징하는 충동(Id)으로 해석했다. 이드란 원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 비합리적인 기능이다. 정신병 환자가 경험하는 환청이나 환

의 여신들에 의한 시달림과 에이트류스 가문에 내린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그리고 왕위에 올라 숙부 메넬리오스의 딸 헤르미오네와 결혼하여 아들을 얻었다고 한다. 그리고 스파르타의 왕 메넬리오스가 죽자 스파르타의 왕위까지 겸하게 되었다.

정신과 의사인 스킷 펙 박사는 그의 유명한 저서 「The road Less Travelled」에서 오레스테스가 신들 앞에서 취한 태도는 우리가 정신 치료를 통해 질병에서 벗어나는 데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형상국은 용모에 무서운 소리로 오레스테스를 1년간 끊임없이 괴롭히면서 고통을 준 여신들의 복수가 사실은 본인 자신만이 경험할 수 있던 정신병의 증상이라고 한다면(정신병 환자들은 남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오레스테스가 이런 고통의 원인을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여 궁극적으로 여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복수의 여신들을 공평하지 못한 형벌로 간주하지도 않았고 자신을 사회로부터 피해받은 억울한 희생자로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는 할아버지 때부터 가문에 내린 저주를 잘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불행은 조상 때문이라고 탓하지 않았으며 신이나 운명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다.

자기가 처한 상황을 자신의 행

시 역시 비합리적인 현상인 것이다.

그래서 오레스테스의 재판정에서 합리성을 존중하는 아폴로 신은 이들을 지상으로부터 영원히 추방시킬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아테네 여신의 인목은 달랐다. 그녀는 인간 사회에는 복수의 여신들(더 나아가 해석한다면 그들이 상징하고 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본능적 충동)이 감당할 역할이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이러한 충동을 무조건 추방(억압이란 기전을 통해 무의식의 영역으로) 해 버린다면 이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나타나 우리들에게 고통을 준다(다시 말해 심리적이나 신체적인 증상이 초래된다).

비합리적이랄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우리 사이에 머물게 하면서 합리적인 자아의 기능과 융합 시키려 할 때 우리는 새로운 인식과 이해를 갖고 이들이 야기하는 문제들을 극복 할 수 있는 것이다. 아테네 여신은 복수의 여신들에게 아테네에 머무르면서 이 도시의 수호신 역할을 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하피 여신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아테네 시는 결국 더욱 번성하고 풍요해졌다고 신화는 말하고 있다

[이의 두 글은 필자의 신간 性 탐구 수장록, 피카소의 청색시대(서울, 중앙M&B, 2002년 4월 15일) 제 211면부터 16면까지 내용의 전재임].

서울대학 울타리 안에서

윤정나(미국명 Chungma Doughty, 음대 63년졸)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동문회 모임이 점점 더 귀하게 느껴져서 될 수만 있으면 참석하는 요즈음이 다. 서울예고를 졸업하면 당연히 서울대 음대를 가는 것이 하나의 절차처럼 되어있기에 그리 흥분하지 않고 다니던 서울대학이 지금에 와서야 그 귀중함을 알게된 것 같다.

미국 와서 공부한다고 오로지 책과 벗이 되어 외롭게 지내면서 미국 교육과 문화에 적응하느라 온 신경을 써가며 지내다보니 뜨거운 정이 오고 갈 친구도 없이 내 일에만 충실히 실행하는 메마른 사람이 되고 말았다. 그러던 중 서울대 동문회에 한 두 번 참석하면서 그동안 잊고 살았던 대학시절을 상기할 수 있게 되었고 모임이 있을 때마다 여러 동문들과 한 자리에 모여 저녁식사로 나누며 귀한 연사님들의 말씀도, 교양강좌도 들을 수 있게 되니 동문회가 있을 때마다 참석하게 된다. 같은 대학은 아니라도 서울대라는 울타리 안에서 공부하며 독특한 서울대 분위기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인지 단지 동문이라는 간단한 이유로 서로 친근감을 느끼고 알지 못했던 사람도 서울대 동문이라면 금방 반가운 인사를 하게 된다.

내가 다니던 서울대학은 그 당시 이화동에 있었다. 단발머리에 정숙하게 여학교 교복만 입고 다니다가 대학생이 되어 서울대학가를 걸어다니려니 어딘가 내가 들어가기에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게다가 음대에 가려면 의대 좁은 옆길을 통과해야만 했다. 그 당시

나는 다리가 아파서 서울 음대에 등록금만 내고 휴학하여 부산 동래 온천장에 있는 미국 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일년을 휴학하여 후배들과 같은 교실에서 강의 들어야만 하는 것도 기분에 차지 않는데 게다가 매일 의대생들을 뚫고서야 음대로 가야하는 것이 나에게 큰 고역이었다. 이 한 소녀의 심정을 알지 못했던 의대생들은 강의 시작하기 전에 밖에 나와 음대 여학생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하루의 낙이었다고 한다. 그들은 강의에 들어갔어도 창 너머로 음대 여학생이 지나가면 note 정리하는데 몇 줄씩 빼먹는다는 농담도 들은 적이 있었다. 나는 이 고역을 면하기 위하여 친한 친구를 교문 앞에서 만나 같이 가기도 했다. 어쨌든 의대 옆길을 지나가던 일은 지금 몇 십년이 지났어도 잊혀지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한 법대생의 이야기도 있다. 약수동에 살았던 나는 학교로 가려면 퇴계로에서 버스를 갈아타야 했다. 서울대 여학생 교복을 입고 버스를 타면 서울대 남학생들이 많이 타고 있었다. 내가 버스에 올라타면 어떤 남학생이 자리를 내주어 고마운 미소로 답변하며 자리에 앉곤 했다. 이것이 우연이라기엔 너무 자주 일어나는 일 같았다. 자리를 내 줄 때마다 감사히 앉아왔는데 차츰 주위 친구들이 낱낱거리는 눈치가 보였다. 그때야 눈치 차리고 버스 시간을 변경하기도 했지만 영락없이 내가 버스를 타면 의례적 자리를 내주는 친절한(?) 남학생도 있었

다. 그 친절이 변하여 어느 비오는 아침에 우산을 들고 의대 앞으로 가는데 내 우산 밑에 들어와 두툼한 편지 봉투를 주고 갔다. 눈썹도 까맣게 많이 닳고 눈도 크며 아주 잘 생긴 법대생의 연애편지였다. 내용인즉 강의 시간에 들어가면 온통 내 얼굴로 칠판에 그려져 있어 공부도 안되고 고민 끝에 편지를 보내니 한번만 만나달라는 내용이였다. 지금 생각해도 가슴 아픈 것은 그렇게 나를 만나 얘기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원을 나는 냉정하게 그를 묵사발로 만들어 놓았다. 아마도 철이 없어 그랬는지 생각하면서도 남의 의견을 존중할 줄 모르는 냉정한 행동을 한 일. 한 번쯤 그의 소원을 들어줘도 되었을 것을 지금도 그 때 일을 회상하면 후회를 하게된다. 하기가 대학시절에 있었던 재미나는 episode로 흘러보낼 수도 있겠지.

나의 음대 생활은 즐거웠다. 여학교 교복을 벗어버리고 사회복(?)으로 모양내며 봄을 맞이했을 때, 몇 잎 안되는 개나리꽃 앞에서 사진 찍던 일, 선생님들과 함께 교수회관에서 차 마시던 일, 수업이 끝나면 친구들과 함께 재잘거리며 의대 옆길을 지나야만 했기에 그

들의 수업을 휘방하기도 했던 일 등등. 그 대학시절이 얼마나 즐거웠던가. 앞날에 큰 포부를 품고 들어간 서울대학, 그 곳에서 우리의 교양과 인간성을 닦으며 보이지 않는 꿈을 이루려고 노력해 왔던 열기에 찬 청춘시기가 아니었던가.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와 열정이 있었다. 철학적인 높은 차원에서 세상을 고민도 해봤고 감정이 넘치는 정열로 음악감상도 하며, 또 사랑하는 연인과 다방에서 시간가는 줄 모르며 얘기하던 시절. 이 귀중한 시간들을 우리는 서울대 안에서 양성하며 우리들의 교양을 닦아왔다.

나는 3학년 때 다시 다리가 아프기 시작하여 병원에 들어가 수술을 받아야만 했다. 집에서 몇 달을 지낸 후 다리에 회복대를 하고 택시로 학교에 다녔다. K.B.S. 지휘자며 예교 교장선생님이신 임선생님은 "대학을 다녀서 뭐해. 내가 오케스트라에 들어 보내 줄께." 하시며 진정 나를 말리셨다. 이러한 역경 속에서도 나는 대학을 꼭 졸업해야겠다고 마음으로 다짐했다. 음대 학장 이해구 선생님도 나를 보며 애석하다는 뜻이 "공부가 뭐 그리 중요한가!" 하시며 나를 위로해 주셨지만 나의 결심을 꺾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그 동안 뒤떨어진 학과목과 Violin을 열심히 연습했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현악 4중주단을 조직하여 발표회도 여러 번 했고 줄리아드 현악 4중주단이 처음으로 서울에 왔을 때 우리 여성 4중주단이 그들을 맞이하여 연주도 하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가졌던 것도 서울대학 때문이었다. 우리 현악 4중주단은 여름이면 잔디밭에 나가 연습하곤 했다. 그럴 때면 의대생들이 하얀 gown을 입은 채 잔디밭에 누워 우리 연습을 감상하

기에 어느 덧 연습이 변하여 야외 음악회가 되기까지 했다. 의대와 음대, 앞 뒷집에서 많은 romance도 이루어졌지만 그것들은 생략하기로 하겠다.

두 번째 휴학을 마치고 음대로 돌아 왔을 때는 의대 뒤에 있었던 음악대학은 동대문 시장 옆, 바로 중앙의료원 뒤, 을지로 6가로 이사해 왔다. 의대생들을 뚫고 들어가는 thrill은 없었지만 시장 바닥이 보니 분위기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 성악과 학생들은 2층 연습실에서 노래하고 있으면 중앙의료원 뒷문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눈물에 찬 가족들을 보게되니 도저히 연습할 수가 없다고 불평이 있었다. 어쨌든 나는 6년만에 서울대학 졸업식에 참석하게 되었다. 곡절이 많았던 나의 대학 시절, 졸업 후 미국에 왔으니 을지로 6가에 얼마동안 음대가 머물렀는지 알 길이 없었다.

나이트 지금에도 지난날의 서울대학 시절을 생각하면 즐겁기만 하다. 우리 모두에게 한 때 젊음이 있었다. 현 생활이 고달파도 아름다운 옛 추억을 생각하면 그지없이 즐거워진다. 그 행복했던, 인생의 절정기였던 우리들의 청춘이 어디서 자라왔고 어디서 꿈을 꾸어 왔던가! 그것은 우리 모교인 서울대학이다.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그곳에서 내가 일류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그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여 자라게 해 준 나의 모교 서울대학. 나는 지난 날을 생각하며 힘들게나마 서울대학을 졸업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와 동시에 서울을 떠난 이곳 Philadelphia에서도 동문끼리 다시 모여 서울대학의 긍지를 살릴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바이다.

<남가주소식>

권길상 童謠의 밤

2002년 10월 6일 (일) 오후 7시

남가주에 거주하는 원로 동요작가 권길상 동문(음대 48년 졸)이 작곡한 동요들을 8개 합창단이 발표하여 청중들이 함께 부르는 권길상 동요의 밤이 10월 6일 오후 7시 남가주의 미주 장로교회(THE FIRST PRESBYTERIAN CHURCH 521 E. Olive Ave. Burbank, CA 91501)에서 아래와 같이 열리므로 많은 동문들이 함께하여 "추억과 감동에 젖는 아름다운 가을 저녁"을 갖기를 바라고 있다.

조국이 분단되고 민족이 상전하벽화 혼란과 궁핍이 사회를 휩쓸던 와중에서도, 맑고 아름답고 힘찬 노래들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부르게 하신 권길상 선생님이 이곳 LA, 바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저희 미주 장로교회에서는 그 분을 모시고, 잠시나마 이민 생활의 메마름을 벗어나 동심을 되찾으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아래와 같이 "권길상 동요의 밤"을 마련했습니다.



그분이 작곡하여 우리 모두의 노래가 되었고 온 국민의 노래가 되었던 주옥같은 동요들을 8개 유수 합창단의 화음으로 재생하여 들어보며, 또 함께 부르기도

하면서, 추억과 감동에 젖어보는 아름다운 가을 저녁이 될 것이오니 모쪼록 오셔서 동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때 : 2002년 10월 6일 (일) 오후 7시
곳 : The First Presbyterian Church

521 E. Olive Ave. Burbank, CA 91501

<출연진> 미주 한국 청소년 예술단, KAMA 소년소녀 합창단, 영엔젤스합창단, KAMA 여성 합창단, 배재 Choral, 사랑여성합창단, 한소리 Choral, 미주 장로교회 성가대와 Hand Bell Choir, 피아노 변주곡(권희원 편곡) 노형진(사회) <협찬> 남가주 한인 음악 가협회, 남가주 한인 교회 음악협회, 원로음악인협회, 미주동요 사랑회 <주최> 미주장로교회, <주관> 한국일보사, <후원> : KTE 미주 한국방송, 미주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우, 준비위원장 신영근 장로, 교무일동 올림, 문의 : 818-848-0000, 818-807-3220)

金素璇 동문(미대 조소과 67년졸) 백자民畫展

시카고에서 9월27에서 10월10일까지



金素璇 동문(미대 조소과 67년졸)이 "호랑이, 꽃과 새를 주제로 한 陶窯 (Tigers, Flowers and Birds on Ceramic)" 작품전시회가 2차에 걸쳐 시카고에서 열린다. 김동문의 작품은 이조와 근대 한국의 백자에 담긴 民畫들의 부활을 주제로 하고 있다. 1차 전시회는 "Zen Buddhist Temple(1710 W. Comelia Ave. Chicago,

L 전화 773-528-8685)에서 9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열리며, 2차 전시회는 Northeastern Illinois University(5500 N. St. Louis Ave. Chicago, IL 60625-4699 전화 773-442-5449)



에서 열린다. 한국의 전통미술과 도예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관을 바라고 있다.

音大 연주단 아틀란타 공연을 돌아보며

문종현(사화대 88년졸)



지난 8월 27일 아틀란타 한인교회에서 열린 모교 음대 젊은 학도들의 미주 순회 공연을 위해서 아틀란타 지부는 그동안 최선을 다해 준비해 왔으며, 결과는 큰 성공이었다고 자평한다. 그럼 그 공연 성공의 순간들과 과정들을 여기에 정리해보고자 한다.

지난 미주 동창회 평의원의회에서 확정된 순회 공연 일정에 따라, 아틀란타 공연은 8월 27일(화)로 확정되었다. 서울대 동창회 아틀란타 지부의 집행부는 걱정과 기대가 뒤섞인 가운데 그 준비를 위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공연장소 선정, 공연단의 숙식문제, 운송 차량 마련, 예산 및 경비조달 방법, 기타 여러 가지 세부사항들에 대하여 논의한 끝에 이사회는 집행부에 모든 것을 일임하기로 결정하였다.

김재철 회장(공대 64입)이 운영하는 'Printing Place'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음악회 Ticket, poster 와 프로그램이 제작되었고, 이번 공연 준비를 위해서 고문을 맡은 광민자 동문(음대 65입)의 의견에 따라 행사 당일, 공연자들에게 꽃다발을 증정하기로 했다.

총 동창회에서 보내준 일정대로, 공연단은 8월 26일(월) 12시경에 아틀란타 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마중을 나간 사람들 중 두 동문은 아직도 지난밤에 있었던 긴박한 순간을 기억하고 있었다. 8월 25일 일요일 저녁 김재철 회장과 함께 프로그램 인쇄작업을 끝낸 광민자 동문은 새벽 두 시에 귀가하여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제본이 끝난 프로그램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이때 광 동문은 기절할 듯이 놀랐다. 내용을 이리 저리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자나 탈자도 아니고, 사진과 이름이 서로 맞지 않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아,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잠시 고민을 한 후 광 동문은 지체없이 김재철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잠을 깨운 후에 다시 회동, 밤을 꼬박 새우는 스티커 작업에 들어갔다. 스티커 작업을 모두 마무리 한 시간은 아침 8시. 12시에는 공연을 할 후배들이 도착하는데... 잠시 눈을 부치고 공항으로 가니, 출발지 Washington D.C. 에서 기체 이상으로 비행기가 연착한다.

오후 2시가 되어서야 그동안의 무리한 공연 일정으로 지쳐 보이

는 후배 공연단이 도착했다. 이때 최재학 동문(사대 56입)이 공항에 나와서 시장한 일행 모두에게 짐심을 한턱 냈다. 마중 나온 선배(김용건 박사, 김재철 회장, 조덕성 부회장, 광민자 동문)들은 공연단원들을 만나니 그제야 힘이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관중 동원에 대한 걱정이 슬며시 앞선다. 비행기의 도착 지연 때문에 더욱 지쳐 보이는 공연단을 이끌고 숙소인 Comfort Inn에 도착하니 시간은 이미 네 시를 가리키고 있다. 그런데 그때침 폭우가 쏟아지니 내일 공연이 더욱 걱정되는 한편, 잠시 후로 예정된 만찬에 동문들이 혹시 안 나오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스쳐갔다. 호텔에 짐을 풀고 나서 가벼운 복장을 한 공연단과 만찬이 예정된 서울가든으로 가니, 약 20여 동문 가족이 공연단을 아주 반갑게 맞아 주었다. 한식 뷔페의 식사가 끝난 후 공연단과 동문들은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다음 날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고 헤어졌다.

다음 날 12시에 서울대 동문 조종표(문리대 70입) 총영사께서 공연단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특별히 마련한 점심 식사 장소인 Buckhead의 Finacial Center 18층으로 가니, 이미 총영사님, 한 분의 영사(김병연 인문대 84입)와 백순희 동문(음대 57입)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름다운 아틀란타 전경이 내려다보이는 격조 높은 음식 점에서 가졌던 점심 식사는 젊은 공연단원들에게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다.

식사 후 공연단원들은 각자 편승해 온 동문 선배들의 차에 다시 나누어 타고 각각 개인적인 시간을 가진 후 5시경에 공연장에 모두 모였다. 공연시간이 다가오면서 공연단원들은 공연에 대한 심적 부담으로, 집행부는 청중 동원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을 졸이는

가운데, 공연장 마이크 시설 및 리셉션 준비상황을 마지막으로 점검했다. 공연장은 약 2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아틀란타 한인 교회"였다. 시각이 7시 30분을 넘어서면서, 청중들이 입장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목표했던 150명만 찾아와 주어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청중이 계속 밀려오고 있었다. 8시에 임박하여 관객석을 보니 이미 초만원! 50여명의 동문가족이 보이고 약 200여명의 비 동문 손님들이 온 것이다.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다. 주말도 아닌 화요일 8시 공연에... 물론 주간지 3개를 선정하여 전면 광고를 하고, 포스터를 한인 타운 곳곳에 부치고, 지역 대학의 한국 학생회 게시판에 광고를 했었으나 이렇게까지 호응을 얻으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날의 공연은 세계정상급의 기량을 갖춘 성악, 기악, 국악의 고른 장르의 음악으로 객석을 가득 메운 청중을 완전히 사로잡고도 남았다. 중간에 프로그램에 예정됐던 가고파 대신 다른 노래를 선보이는 변화가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훌륭한 조화를 이룬, 참으로 기대 이상의 성공이었다.

공연이 끝나고, 김재호 동문(공대 80입)과 문종현 동문(사화대 84입)의 부인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떡, 과일, 편지등이 곁들여진 리셉션장은 공연단에 대한 찬사와 환호로 가득했다. 리허설 직전에 저녁식사를 이진수 동문(음대 56입)이 정성스럽게 마련해준 스페어로 떼웠으나 밤이 늦은 탓에 다시 시장해진 공연단을 이끌고 철야 숙부 집에 도착하니 시계는 어느덧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다. 늦은 밤까지 김재철 회장(공대 64입) 부부, 광민자 동문(음대 65입) 부부, 조덕성 부회장(공대 71입) 부부, 김수경 동문(음대 89입)등이 후배들의 성공적

인 공연을 축하하기 위해 함께 남아 있었다. 내일이면 출발.. 새벽 6시30분에 호텔에서 만나기로 하고 집에 돌아오니 벌써 시간이 2시.. 내일 아침 기상을 걱정하며 눈을 붙였다. 그리고 바로 눈을 떴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시간이 벌써 6시 30분.. 세수를 하는 등 마는 등 회장단에 연락하니, 다른 선배님들은 이미 모두 호텔에 와 계신다. 잠도 덜 깬 눈으로 정신없이 차를 몰아 호텔에 도착하니, 7시 10분.. 비행기 출발은 9시 40분이니 별일만 없으면 시간 내에 도착할 것 같다. 공연단이 김재철 회장님, 조덕성 부회장님, 광민자 동문, 문종현 동문(사화대 84입)의 차에 분승하여 공항에 도착하니 8시. 공연단을 배웅하기 위해서 김용건 박사(문리대 48입)님 내외는 벌써 공항에 도착해서 기다리고 계셨다. 공연단원들이 각각 Tiketing을 마치고, Gate를 하나씩 빠져나가는데, 한 명씩 악수를 할 때마다 일정이 너무 짧아 아틀란타 관광 한번 못시켜주고 떠나보내는 아쉬움이 스쳐간다. 불과 3일간의 짧은 만남이었으나 한 울타리를 거뒀다는 사실이 이렇게도 깊은 정을 듣게 한 것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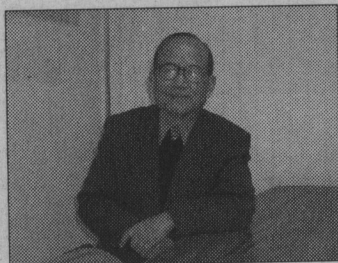
공연단을 떠나 보내고, 집행부 임원들은 공항에 남아 커피를 마시며 이번의 행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커다란 행사를 위해서 뒤에서 준비를 한다는 것이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니었으나, 공연이 참으로 성공적이었던 것은 역시 이번 미주 순회 공연단원들의 뛰어난 기량 때문이었으리라. 끝으로 이번 행사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데서 많은 수고를 해주신 아틀란타와 시카고 집행부 임원들, 그리고 여러 동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사진: 아틀란타 지부 총무 문종현동문 가족)

911사태추모와 동문/가족들의 활동

임이섭 동문(미대 59년졸)

9.11 사태 기념 그래픽아트 전시회 개최 9월5일~12일까지 The James Thomson Center

임이섭 동문(미대 59년 졸)이 9.11사태 1주년을 기념하여 시카고 시내에 있는 일리노이주 청사(The James Thomson Center)에서 평화와 자유의 회복을 기원하는 주제의 그래픽아트 전시회를 성황리에 9월 5일부터 12까지 개최하였다. 임동문은 위의 주제로 지난번에 시카고 시청사(Daly center)에서 성황리에 전



<사진제공 시카고 중앙일보> 시를 가진바 있다.

정명희교수(정호동문 부인) 9.11추모 음악회 출연

정호 동문(공대 62년입)의 부인 정명희 교수(위스칸신 대학 피아노 교수)는 911테러 사태를 기념하는 음악회에 출연하여 911테러 사태 1주년을 추모하였다.

이 음악회는 Argonne National Lab(Argonne, Illinois)에서 열린 24th International Free Electron Laser Conference & 9th FEL Users Workshop행사의 일환으로 9월 11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APS Auditorium 에서 Fontana Piano Trio (피아노 정명희교수, 바이올린 이상미, 비올론첼로 벤자민 위트콤) 가 로보트 슈만의

idmung(Dedication) 및 8곡을 연주하여 911 희생자들의 영혼을 추모하였다.



FEL2002
24th International Free Electron Laser Conference
& 9th FEL Users Workshop

MUSIC CONCERT
Fontana Piano Trio
Myeong-Hee Chung, Piano
Sang-Mee Lee, Violin
Benjamin Whitcomb, Violoncello

Wednesday, 8:00 p.m.
September 11, 2002
APS Auditorium
Argonne National Laboratory
Argonne, Illinois, USA

전쟁과 평화: 9.11사태 일주년을 지나면서

김종율(사대 55년졸, 뉴욕지구 동창회장)

9.11 사태를 회고하면 먼저 헤아릴 수 없는 고층 건물에서 선풍으로 사랑하는 이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애라는 모습이 떠오른다. 그리고 수많은 자원 봉사자들, 헌혈지원자, 성조기의 물결을 연상케 한다. 9.11 사태는 또한 이쁨과 분노를 넘어 단결된 모습을 보였다.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부시 대통령을 무조건 지지하였고 빈 라덴을 비호하고 있는 탈리반 정권을 무너트리게 하였다. 그러나 일년이 지난 지금 테러에 대한 위협은 가지 아니했다. 정부는 國內安全부를 신설하고 위협수준을 우리에게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다. 아프간 전쟁은 아직 끝이 안보이고 경제는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공격을 고집하고 있다. 그는 이라크가 미국을 직접 위협하고 있으며 그들이 핵무기를 완전히 개발하기 전 후세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제 2의 무역화관 테러사건은 반드시 일어난다고 공언하고 있다. 후세인에게 겁을 주

기 위한 虛勢로서는 너무나 단호한 태도이다. 이런 미국 정부의 戰爭 논리를 테러와의 전쟁에 동참한 友邦國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전쟁 후에 平和가 올 것이라고 그들은 믿지 않으며 오히려 7억8천만의 무슬림 족의 反美 감정은 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군대를 아프간에 투입하고 있는 獨逸은 UN의 결의가 있더라도 參戰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영국수상만이 미국노선을 지지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반응은 그와 반대이다. 지금은 핵무기나 화학무기를 침략을 위해서는 사용할 수 없는 시대라는 것은 모두 잘 알고 있다. 수십 년 동안의 冷戰시대에도 미국과 소련은 核武器를 사용할 수 없었다 한국전쟁이나 월남 전쟁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 얼마 안되는 핵무기를 가지고 이라크가 그 이웃이나 미국을 위협한다면 그것은 自殺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미국이 추구해야 할 목표는 國家가 아니라 "얼굴없는 개인"이나 "테러 집단"이다. 9.11 여객



기 납치에 가담한 19명 모두 아랍인이나 이집트인들이다. 그러나 어느 국가가 지원했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 이들은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힘 앞에 無氣力한 자기나라들을 보고 격분하고 있는 청년들이다. 그들은 주변에 깔려있는 빈곤과 무지와 정부의 獨裁에 분노하며 西邦의 풍요로운 物質文明을 보고 자존심을 잃은 자들이다. 그들은 근본주의 이슬람 종교 속에서 反美 反西歐 문화에 대한 敎理를 찾아낸 것이다. 그들이 따르는 빈 라덴은 이슬람 근본주의적인 理想論者 인듯하다. 그의 궁극적인 목적은 순수한 이슬람 정부를 온 세계에 세우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목적을 저해하는 미국과 그들의 우방을 제거하는 것이 모든 무슬림의 義務라고 역설하고 聖스러운 戰爭을 천명하고 나섰

다. 종교적인 신념으로 무장되어 자기 生命을 소위 聖戰을 위해 기꺼이 바치는 과격 분자들과 對話를 시도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아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야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民主主義를 지향한다는 미국은 언제나 정치적으로 올바른 길(politically correct)을 걸어가야 할 것이다. 제 3세계에 만연되어 있는 절대 빈곤과 상실되어 가는 인간의 존엄성이 쟁점인 것이다. Kennedy의 奮困에의 戰爭 같은 人道主義的 이념을 가지고 나갈 때 강경한 이슬람 국가와도 대화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런 희망은 엄격한 이슬람법을 적용하고 있는 이란에서 벌써 찾아 볼 수 있다. 사회 底邊에는 서방 문명에 대한 인식과 憧憬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反美 구호가 준비한 테헤란 시가지에서 젊은 세대는 西歐 音樂을 들으며 미국까지도 e-mail 을 교환 하고있다고 한다. 카다미 이란 대통령이 종교 보수파를 밀치고 당선된 것도 이러한 운동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中東政策에도 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독일 법무장관이 부시와 히틀러를 비교한 발언이나 유럽의 左傾 신문들이 이스라엘 주둔군을

나치군과 비교한 것은 크다란 논란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힘에 의존하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서구에서 고립되어 가고 있다는 징조라 볼 수 있다.

이라크 문제는 對話로 풀어나가야 한다. 10년이 넘는 經濟制裁도 이제 풀어 줄 때가 되었고 그리고 이라크 南部의 制空權도 돌려주어 그들의 자존심도 세워줄 때가 되었다고 본다. 지금 후세인은 UN 무기 감시관의 入國을 허용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대량학살 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있으며 테러범을 포용하거나 이웃을 위협하지 않고 있다"고 闡明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발언을 신빙성이 있든 없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에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反테러戰爭에 궁극적으로 이라크를 참여하도록 이끌어 나가는 것이 平和의 길이라 하겠다. 9.11이후 테러에 대한 전쟁이 美國의 民主主義를 변화시킨 것은 아니다. 서방 우호국의 진지한 반대 의사나 UN의 결의도 중요한 것이다. 선택에 여지가 없다고 한 부시 대통령의 말은 我執이다. 15세기 Columbus가 세울 수 없는 계란을 다른 방법으로 세웠다는 逸話는, 어떤 문제해결에 있어 한가지 논리로만 事物을 봐서는 안된다는 교훈이다.

美國時論

反美論의 대응방법 뉴욕타임즈(2002년 9월1일자)

Confronting Anti-American Grievance By ZBIGNIEW BRZEZINSKI

WASHINGTON - Nearly a year after the start of America's war on terrorism, that war faces the real risk of being hijacked by foreign governments with repressive agendas. Instead of leading a democratic coalition, the United States faces the risk of dangerous isolation. The Bush administration's definition of the challenge that America confronts has been cast largely in semireligious terms. The public has been told repeatedly that terrorism is "evil," which it undoubtedly is, and that "evildoers" are responsible for it, which doubtless they are. But beyond these justifiable condemnations, there is a historical void. It is as if terrorism is suspended in outer space as an abstract phenomenon, with ruthless terrorists acting under some Satanic inspiration unrelated to any specific motivation.

President Bush has wisely eschewed identifying terrorism with Islam as a whole and been careful to stress that Islam as such is not at fault. But some supporters of the administration have been less careful about such distinctions, arguing that Islamic culture in general is so hostile to the West, and especially to democracy, that it has created a fertile soil for terrorist hatred of America.

Missing from much of the public debate is discussion of the simple fact that lurking behind every terroristic act is a specific po-

litical antecedent. That does not justify either the perpetrator or his political cause. Nonetheless, the fact is that almost all terrorist activity originates from some political conflict and is sustained by it as well.

That is true of the Irish Republican Army in Northern Ireland, the Basques in Spain, the Palestinians in the West Bank and Gaza, the Muslims in Kashmir and so forth.

In the case of Sept. 11, it does not require deep analysis to note - given the identity of the perpetrators - that the Middle East's political history has something to do with the hatred of Middle Eastern terrorists for America. The specifics of the region's political history need not be dissected too closely because terrorists presumably do not delve deeply into archival research before embarking on a terrorist career. Rather, it is the emotional context of felt, observed or historically recounted political grievances that shapes the fanatical pathology of terrorists and eventually triggers their murderous actions.

American involvement in the Middle East is clearly the main impulse of the hatred that has been directed at America. There is no escaping the fact that Arab political emotions have been shaped by the region's encounter with French and British colonialism, by the defeat of the Arab effort to prevent the existence of Israel and by the subsequent American support for Israel and its treatment of the Palestinians, as well as by the direct injection of American power

into the region.

This last has been perceived by the more fanatical elements in the region as offensive to the sacred religious purity of Saudi Arabian custodianship of Islam's holy places and as hurtful to the welfare of the Iraqi people. The religious aspect adds fervor to their zeal, but it is worth noting that some of the Sept. 11 terrorists had non-religious lifestyles. Their attack on the World Trade Center had a definite political cast to it.

Yet there has been a remarkable reluctance in America to confront the more complex historical dimensions of this hatred. The inclination instead has been to rely on abstract assertions like terrorists "hate freedom" or that their religious background makes them despise Western culture.

To win the war on terrorism, one must therefore set two goals: first to destroy the terrorists and, second, to begin a political effort that focuses on the conditions that brought about their emergence. That is what the British are doing in Ulster, the Spaniards are doing in Basque country and the Russians are being urged to do in Chechnya. To do so does not imply propitiation of the terrorists, but is a necessary component of a strategy designed to isolate and eliminate the terrorist underworld.

Analogies are not the same as identity, but with that in mind one might consider the parallels between what the United States faces today in regard to Middle Eastern terrorism and the crises that America confronted domestically in the 1960's and 70's. At that time, American society was shaken by violence undertaken by groups like

the Ku Klux Klan (often in semi-autonomous klaverns), White Citizens' Councils, the Black Panthers and the Symbionese Liberation Army. Without civil-rights legislation and the concomitant changes in America's social views on race relations, the challenge that those organizations posed might have lasted much longer and become more menacing.

The rather narrow, almost one-dimensional definition of the terrorist threat favored by the Bush administration poses the special risk that foreign powers will also seize upon the word "terrorism" to promote their own agendas, as President Vladimir Putin of Russia, Prime Minister Ariel Sharon of Israel, Prime Minister Atal Bihari Vajpayee of India and President Jiang Zemin of China are doing. For each of them the disembodied American definition of the terrorist challenge has been both expedient and convenient.

When speaking to Americans, neither Mr. Putin nor Mr. Sharon can hardly utter a sentence without the "I" word in it in order to transform America's struggle against terrorism into a joint struggle against their particular Muslim neighbors. Mr. Putin clearly sees an opportunity to deflect Islamic hostility away from Russia despite Russian crimes in Chechnya and earlier in Afghanistan. Mr. Sharon would welcome a deterioration in United States relations with Saudi Arabia and perhaps American military action against Iraq while gaining a free hand to suppress the Palestinians. Hindu fanatics in India are also quite eager to conflate Islam in general with terrorism in Kashmir in particular. Not to be outdone,

he Chinese recently succeeded in persuading the Bush administration to list an obscure Uighur Muslim separatist group fighting in Xinjiang province as a terrorist organization with ties to Al Qaeda.

For America, the potential risk is that its nonpolitically defined war on terrorism may thus be hijacked and diverted to other ends. The consequences would be dangerous. If America comes to be viewed by its key democratic allies in Europe and Asia as morally obtuse and politically naive in failing to address terrorism in its broader and deeper dimensions - and if it is also seen by them as uncritically embracing intolerant suppression of ethnic or national aspirations - global support for America's policies will surely decline. America's ability to maintain a broadly democratic antiterrorist coalition will suffer gravely. The prospects of international support for an eventual military confrontation with Iraq will also be drastically diminished.

Such an isolated America is likely to face even more threats from vengeful terrorists who have decided to blame America for any outrages committed by its self-appointed allies. A victory in the war against terrorism can never be registered in a formal act of surrender. Instead, it will only be divined from the gradual waning of terrorist acts.

Any further strikes against Americans will thus be a painful reminder that the war has not been won. Sadly, a main reason will be America's reluctance to focus on the political roots of the terrorist atrocity of Sept. 11.

Zbigniew Brzezinski was national security adviser in the Carter administration.

미국시론

歷史의 교훈 - 帝國의 戰爭과 平和

뉴욕타임즈 2002년 9월15일자

A Whiff of Dread for the Land of Hope By SIMON SCHAMA



IS it heresy to suggest that America could use a modest dose of pessimism right now?

Historically, mainstream American culture is conditioned to treat calamity financial or fanatical - as an aberration, not the norm: an affront to the national commitment to singing in the rain. Confronted by breaking news of its vulnerability, only two alternative responses seem available: irrepressible up-and-at-em chirpiness or

apocalyptic hysteria, Pollyanna or Chicken Little. But neither approach, neither the smirk nor the shriek, offers the best foundation for imagining what perils might lie ahead, nor the most prudent way to come to terms with the unwelcome fact that, for the foreseeable future, the perils will be as much part of the American way of life as apple pie.

Of course politicians crazy enough to tell bleak truths about the aging process of the American empire have not been celebrated for their refreshing candor so much as

buried for the temerity of their pessimism, however smart. R.I. P, Jimmy Carter, hello 'morning in America' - that golden moment when optimism skyrocketed along with federal deficits. Any contest, especially in election years, between sunnyside-up breeziness and chastened realism will, of course, be no contest at all. When was the last time that political strategy-makers counseled their candidate to put on a sadder (if wiser) face? It is a truism of

contemporary political life that it will never be afternoon

in America, even though such cursory readings of world history as candidates can manage between fund-raisers will tell them that one day it must.

Out there in the Rest of the World, the unavoidable sadness of wisdom is taken as read. From the very beginning of its written record, European history was assumed to be a somber, ignoble story, "little more," as Gibbon mordantly confessed, "than the register of the crimes, follies and misfortunes of mankind." This verdict did not, however, reduce that history to fatalism. On the contrary, the assumption of the inevitability of disaster, humans being what they are, also presupposed the educative power of melancholy: the optimism, as it were, of pessimism. In the European tradition it has been an imagined immunity from the pratfalls of history that has ended up guaranteeing the most painful and the most sudden disappearing acts.

The tragic climax of Thucydides's "History of the Peloponnesian War" - the catastrophic Athenian expedition to Sicily - is just such a cautionary chronicle of hubris-laden comeuppance. The famous funeral oration for the fallen, imagined for Pericles by Thucydides, is a staple item of American college core curricula, principally for its eulogy of the sacrifices of citizen soldiers and its assertion of the singularity of Athenian democracy (a democracy, like the early American republic, supported on the backs of slaves).

Far more typical of Thucydides's pessimism, though, is his unnerving account of the city's meltdown during a plague epidemic, when (in the wonderful translation by another arch-pessimist, Thomas Hobbes) "dying men lay tumbling upon one another in the streets and men half-dead about every conduit through desire of water." Facing obliteration, the model democracy swiftly dissolves into grab-it-while-you-can plunder; debauchery, the stampede for the last Cipro.

Democracies, Thucydid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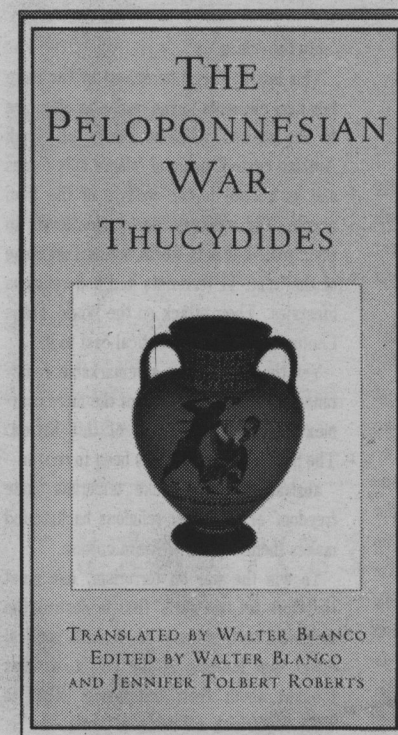
says, are no better armed against panic in the face of adversity, nor are they necessarily more virtuous and discriminating when they exercise their power against it. During the debates over the prudence of the Sicilian expedition, the most withering contempt is reserved for the belligerence of armchair hawks whose

enthusiasm for the campaign is in inverse proportion to their personal experience of combat. The warnings of the seasoned veteran, Nicias, against running "new dangers when the state of our own city hangeth unsettled" are allowed their full, cautionary eloquence. Nonetheless, the historian complains, "everyone alike fell in love with the

enterprise: the old men upon hope to subdue the place they went to or that at least so great a power could not miscarry; and the young men upon desire to see a foreign

country and to gaze, making little doubt but to return with safety."

In the carnage that follows it is Nicias himself who is left to watch the annihilation of the Athenian army and navy. Never suppose, implies Thucydides,



wagging his finger, that any empire is invincible. Survival depends, above all, on an understanding of the economy of force.

Roman historians like Tacitus narrating the fate of legions swallowed up in the German woods confirmed that a world empire, especially one mired in plutocratic selfishness and back-biting intrigue, could be a soft target. Expect the worst and you will not

be disappointed. The barbarians will always be at the gate, and generally they will find a way to squeeze through. Be of a stoical temper, urged the philosopher-emperor Marcus Aurelius at the climactic moment of Roman imperial power, and when misfortune strikes remember that all things - empires as well as emperors -

are mortal. The best that can be expected is the intelligent containment of damage. Such is the instruction of ruins.

RUINS were 18th century Europe's antidote to hubris. Gibbon conceived the idea of his "Decline and Fall of the Roman Empire," he tells us, "as I sat musing amidst the ruins of the Capitol, while the bare-footed friars were singing vespers in the Temple of Jupiter." The milords flocked to the Forum for lessons on the inevitable erosion of grandeur. Artists like Piranesi and Hubert Robert supplied engravings and paintings of moss-draped Roman monuments overrun by beggars and goats. Landscapists would custom build ruins for the parks of the Quality so they could

stroll soberly through gardens of wistfulness.

The attack on optimism reached its climax with Voltaire's Candide, whose faith in Dr. Pangloss's belief that we live in "the best of all possible worlds" is shaken by the Lisbon earthquake of 1755. Thirty thousand casualties unavoidably raise questions about either the benevolence or the competence of the Great Designer in the sky. Candide travels on through a landscape of unrelenting cruelty described by his raped sweetheart Cunegonde as "standard practice." All the greatest writing on the slaughter and mayhem that make up the sorry record of our modern centuries - Stendhal at Waterloo; Tolstoy at Borodino; Hasek's "Good

Soldier Schweik" - is run through with black absurdity; the scamperings and scufflings of animal panic rather than ennobling acts of valor.

Such, they say, is the human condition. Get used to it. America was created expressly as the rejection of those truisms. Ruins had nothing to say to a culture so deeply invested in freshness. Even now, those 職

anting to preserve Civil War battlefields like Chancellorsville as a place of meditation are up against developers for whom golf courses and front lawns whisper the great American mantra of "move on." Only at ground zero has the instinct to build over been checked by a comparably powerful yearning for a place of lament.

Against the stoical nostrum that man, wherever and whenever you look, is much of a muchness, the American claim was to have created a new kind of history-free citizen. When Alexis de Tocqueville came to America in the 1830's he was

struck by the intensity with which Americans boasted of their singularity. He granted them their novelty, but immediately understood it was, above all, the product of their liberation from social and spatial claustrophobia. The happiness to which, apparently, Americans were entitled by birthright (and that Tocqueville saw with shocking clairvoyance actually meant the raw pursuit of material satisfactions) was conditional on perpetual motion. Happiness for Voltaire was cultivating one's garden. Happiness for Thomas Jefferson was rolling across the continent, gathering the millions of acres needed to make the American homestead.

Tocqueville also saw that this epic was not, as the tribunes of American felicity advertised, a calamity-free process. The white man's entitlement to happiness was the

nonwhite man's guarantee of misery. For slaves there was the ordeal of confinement; for Native Americans ecological annihilation. European immigrants, on the other hand, were at last (relatively) free from the usual lot of the poor and defenseless. Sorrow and suffering, as a perennial way of life, became someone else's problem.

One of the most deeply felt narratives of catastrophe in the history of American freedom is Tocqueville's account of the uprooted Choctaws crossing the Mississippi in winter. "The snow had frozen hard upon the ground and the river was drifting with huge masses of ice. The Indians had their families with them and they brought in their train the wounded and the sick, with children newly born and old men on the verge of death.

<12면에서 계속>

They possessed neither tents nor wagons but only their arms and some provisions. I saw them embark to pass the mighty river and never will that solemn spectacle fade from my remembrance. No cry, no sob was heard from the assembled crowd; all were silent. Their calamities were of ancient date and they knew them to be irremediable."

IT is only in our time, only perhaps last year, that such calamity has come home to America, and it is to be feared that it may not soon go away. In one morning the shelter of distance was traumatically obliterated, the skies made a lot less spacious. In place of the luxury of isolation, Americans have no option but to accept the necessity of connection. Sustaining their way of life and constitutional entitlement to filling up at a buck fifty a gallon demands continuing engagement in the fate of the rest of the world and not just hit and run "regime change," a euphemism that would better please the ghost of Thucydides if it were called by what it is - invasion and occupation.

As a wrecking and removal crew Americans are, for the moment, unstoppable. But whether in Iraq or elsewhere, wrecking and removal is no strategy for their own survival unless they also sign the longer, more expensive, rebuilding contract.

If Americans are, for the foreseeable future, fated to live inside, rather than alongside, the imperfect, dangerous world, they are also likely to experience a greater, rather than a lesser, share of its ancient woes and misfortunes. The worst thing to do would be to treat such adversity as might come their way as if it were some sort of violation of American exceptionalism, when it is, in fact, the result of it. Perhaps, in any case, there are worse things than bidding farewell to the fond illusion that Americans would remain forever exempt from the ways of the world, calamities included. Besides, whoever said that growing older as a nation was going to be fun?

<필자 Simon Schama는 University Professor at Columbia University >

<美國時論>父부시의 사부의 공부 시에 대한 충고
월스트리트 저널 2002년 8월15일자

Don't Attack Saddam By Brent Scowcroft

Our nation is presently engaged in a debate about whether to launch a war against Iraq. Leaks of various strategies for an attack on Iraq appear with regularity. The Bush administration vows regime change, but states that no decision has been made whether, much less when, to launch an invasion.

It is beyond dispute that Saddam Hussein is a menace. He terrorizes and brutalizes his own people. He has launched war on two of his neighbors. He devotes enormous effort to rebuilding his military forces and equipping them with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e will all be better off when he is gone.

Think Carefully

That said, we need to think through this issue very carefully. We ne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Iraq and our other pressing priorities-notably the war on terrorism-as well as the best strategy and tactics available were we to move to change the regime in Baghdad.

Saddam's strategic objective appears to be to dominate the Persian Gulf, to control oil from the region, or both.

That clearly poses a real threat to key U.S. interests. But there is scant evidence to tie Saddam to terrorist organizations, and even less to the Sept. 11 attacks. Indeed Saddam's goals have little in common with the terrorists who threaten us, and there is little incentive for him to make common cause with them.

He is unlikely to risk his investment in weapons of mass destruction, much less his country, by handing such weapons to terrorists who would use them for their own purposes and leave Baghdad as the return address.

Threatening to use these weapons for blackmail-much less their actual use-would

open him and his entire regime to a devastating response by the U.S. While Saddam is thoroughly evil, he is above all a power-hungry survivor.

Saddam is a familiar dictatorial aggressor, with traditional goals for his aggression. There is little evidence to indicate that the United States itself is an object of his aggression. Rather, Saddam's problem with the U.S. appears to be that we stand in the way of his ambitions. He seek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not to arm terrorists, but to deter us from intervening to block his aggressive designs.

Given Saddam's aggressive regional ambitions, as well as his rethlessness and unpredictability, it may at some point be wise to remove him from power. Whether and when that point should come ought to depend on overall U.S. national security priorities. Our pre-eminent security priority-underscored repeatedly by the president-is the war on terrorism. An attack on Iraq at this time would seriously jeopardize, of not destroy, the global counterterrorist campaign we have undertaken.

The United States could certainly defeat the Iraqi military and destroy Saddam's regime. But it would not be a cakewalk. On the contrary, it undoubtedly would be very expensive-with serious consequences for the U.S. and global economy-and could as well be bloody. In fact, Saddam would be likely to conclude he had nothing left to lose, leading him to unleash whatev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he possesses.

Israel would have to expect to be the first casualty, as in 1991 when Saddam sought to bring Israel into the Gulf conflict. This time, us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he might succeed, provoking Israel to respond, perhaps with nuclear weapons, unleashing an Armageddon in the Middle East. Finally, if we are to achieve our strategic objectives in Iraq, a military campaign very likely

would have to be followed by a large-scale, long-term military occupation.

But the central point is that any campaign against Iraq, whatever the strategy, cost and risks, is certain to divert us for some indefinite period from our war on terrorism. Worse, there is a virtual consensus in the world against an attack on Iraq at this time. So long as that sentiment persists, it would require the U.S. to pursue a virtual go-it-alone strategy against Iraq, making any military operations correspondingly more difficult and expensive. The most serious cost, however, would be to the war on terrorism. Ignoring that clear sentiment would result in a serious degradation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us against terrorism. And make no mistake, we simply cannot win that war without enthusiastic international cooperation, especially on intelligence.

Possibly the most dire consequences would be the effect in the region. The shared view in the region is that Iraq is principally an obsession of the U.S. The obsession of the region, however, is the Israeli-Palestinian conflict. If we were seen to be turning our backs on that bitter conflict-which the region, rightly or wrongly, perceives to be clearly within our power to resolve-in order to go after Iraq, there would be an explosion of outrage against us. We would be seen as ignoring a key interest of the Muslim world in order to satisfy what is seen to be narrow American interest.

Even without Israeli involvement, the result could well destabilize Arab regimes in the region, ironically facilitating one of Saddam's strategic objectives. At a minimum, it would stifle any cooperation on terrorism, and could even swell the ranks of the terrorists. Conversely, the more progress we make in the war on terrorism and more we are seen to be committed to resolving the Israel-Palestinian issue, the greater will be the international support

for going after Saddam.

If we are truly serious about the war on terrorism, it must remain our top priority. However, should Saddam Hussein be found to be clearly implicated in the events of Sept. 11, that could make him a key counterterrorist target, rather than a competing priority, and significantly shift would opinion toward support for regime change.

No-Notice Inspections

In any event, we should be pressing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to insist on an effective no-notice inspection regime for Iraq-any time, anywhere, no permission required. On this point,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s have opined that Saddam Hussein would never agree to such an inspection regime. But if he did, inspections would serve to keep him off balance and under close observation, even if all hi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capabilities were not uncovered. And if he refused, his rejection could provide the persuasive casus belli which many claim we do not now have. Compelling evidence that Saddam had acquired nuclear weapons capability could have a similar effect.

In sum, if we will act in full awareness of the intimate interrelationship of the key issues in the region, keeping counterterrorism as our foremost priority, there is much potential for success across the entire range of our security interests-including Iraq. If we reject a comprehensive perspective, however, we put at risk our campaign against terrorism as well as stability and security in a vital region of the world.

Mr. Scowcroft, national security adviser under Presidents Gerald Ford and George H. W. Bush, is founder and president of the Forum for International Policy.

(The Wall Street Journal Thursday, August 15, 2002)

<실험보고서>

탁구 기술과 우울증 치료

이수일(사대 79졸, Ph.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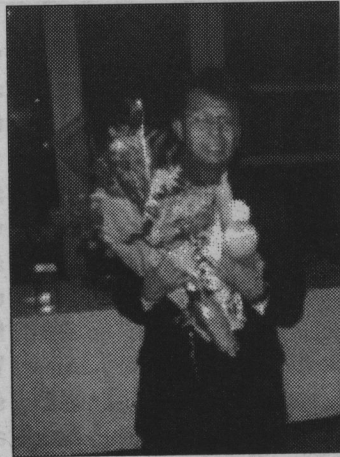
어느 날 34세인 흑인 여성 Brenda가 정신과 응급실(Emergency)로부터 6층 입원 병동으로 올라온다. 응급실에서 우울증(Major Depressive Disorder)으로 진단을 받았다. 우울증이 심해서 응급실에서 퇴원을 하지 못하고 결국 급성 입원 병동으로 옮겨져 온 것이다. 브렌다는 절망감, 삶에 대한 의욕 저하, 미래에 대한 희망감 결여, 식욕과 수면 및 에너지의 저하, 생활 활동들의 흥미 상실, 집중력 저하, 자신감 및 자아 존중감 상실, 죄책감 상승, 자살 생각 등의 우울증 증상들을 호소한다. 병동에 올라오자마자 실험 연구자인 필자는 브렌다에게 탁구 기술 지도를 받아 보겠느냐고 물어 본다. 그리고 본인은 탁구기술 향상이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하여 실험 연구를 하는 중이라고 설명한다. 탁구 기술 지도는 하루에 한 시간, 일주일 동안 실시가 되며, 다른 활동 그룹에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참가할 수 있으며 다른 의사가 처방한 항우울증(antidepressant) 약을 복용하면서 탁구 기술 지도를 받을 수 있고, 본인이 원하면 실험 중에 언제든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참가를 거부 혹은 중단할 수도 있으며, 그리고 환자의 정신 질환에 관한 개인적인 정보는 비밀유지가 될 것 등을 강조한다. 브렌다는 충분히 이해가 되었는지 실험에 참가하겠다고 한다. 곧 실험 참가 동의서에 서명을 한다.

곧 브렌다는 우울증(Depression)과 운동에 대한 자신감 및 자아 존중감(Self-esteem)의 수준을 검사하는 심리 검사에 응한다. 검사지로는 필자가 본 연구의 이론 체계화 과정에 채택한 Aaron Beck 박사가 개발한 Beck Depression Inventory II와 Susan Harter 박사가 개발한 자아 의식 검사지(Self-Perception Profile) 중에서 운동 자신감과 자아 존중(Global Self-Worth)의 항목들이 이용된다. 탁구 기술 지도 전, 즉 입원 시의 브렌다의 우울증 정도가 47이었다. 이 검사지에 의하면 가장 높고 낮은 점수는 각기 63과 0이며, 점수가 29이상이면 심한 우울증으로 진단된다. 그리고 최고가 4점, 최저가 1점인 자아 존중감과 운동 자신감 검사에서, 1.32와 1.5를 브렌다는 기록한다. 참고로 탁구 기술 지도를 받은 28명의 우울증 환자의 병동 입원 직후의 우울증 평균 점수는 34.32이었다. 그리고 자아 존중감과 운동 자신감은 1.73과 2.00이었다. 브렌다는 모든 항목에서 그룹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자신감이 아주 결여되어 있고 우울증이 심했음을 보여준다.

운동 자신감과 자아 존중감 수준을 측정하는 이유는, 탁구 기술 지도를 받으면서 운동 자신감이 향상되어 환자의 자아를 보는 눈이 달라졌는지를 관찰하기 위한 것이며 Harter박사를 위시한 많은 심리학 이론가들은 운동과 같은 여가 활동 등의 생활 영위 기술은 개인의 자아 개념을 발전 향상시킨다고 주장한다. 특히, Aaron Beck 박사는 미래와 자신에 대한 희망감의 결여와 절망감 상승 그리고 자아 존중감 결여 등이 우울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들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운동 기술 향상으로 운동 자신감을 향상시켜 자아 존중감을 유발하여 결국 우울증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연구의 이론적 근거의 요약이다.

심리 검사가 끝난 후 곧 브렌다는 Forehand Stroke과 Backhand Stroke의 탁구기술 능력 평가를 받는다. 이 양 부문에 대한 기



마음속에 즐거움이 생겨나고 그 즐거움으로 인해 내적 강화 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곧 브렌다는 첫 시간의 탁구 기술 지도를 받는다. 탁구대 한쪽 끝의 중앙에 서서 필자(Trainer/Therapist)가 보내는 공을 때릴 준비를 한다. 네트 넘어 다른 쪽 탁구대 위에 위치한 바구니 속에 탁구공 250개를 준비해놓았다. 공을 잘 넘겨 칠 수 있도록 Brenda 앞의 탁구대 위에 잘 보내 준다. 계속해서 날아오는 볼을 브렌다는 반응하며 쳐서 넘긴다. 처음에는 물론 공을 천천히 보내준다. 중간에 어떻게 공을 쳐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기도 한다. 브렌다는 가르쳐 준 대로 공을 때리려고 애쓴다. 손에 쥐고 있는 탁구채의 각도를 상하로

두 번째 바구니 시작! 이제는 제법 여유 있게 공을 때린다. 꽤나 잘 넘긴다. 본인도 놀라는 눈치다. 필자도 공을 점점 빨리 보낸다. 그녀가 리듬에 맞추어 공을 때릴 수 있도록 "One, Two! One Two!"하면서 구령을 붙여준다. 처음보다도 Feedback을 위해서 打球 중단의 횟수도 줄었다. 어느새 45분이 지났다. 브렌다는 참 재미있었다고 한다.

필자는 브렌다에게 저녁에 오늘 탁구 하면서 기분과 생각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기록할 것을 부탁한다. 브렌다의 달라진 기분과 생각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위한 목상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음 날 브렌다는 자신이 어떻게 그렇게 집중을 잘 할 수 있었는지를 몰랐으며, 마음이 참 가벼워짐을 느낄 수 있었고, 또 두 번째 시간이 너무 기다려졌으며 정신도 아주 맑아졌다고 한다. 두 번째 시간! 어제 연습했던 것 반복 설명 그리고 반복 연습. 어제보다 몸놀림이 훨씬 부드러웠다. 이제는 오히려 공이 반대 탁구대 위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지는 모양이다. 오늘은 운동의 強度가 어제보다 높다. 공도 아주 빨리 날아온다. 따라서 몸놀림도 더 빨라져야 한다. 끝날 무렵에는 심지어 아주 빠르고 강한 공도 쳐내야 한다. 제

수 있는 백 핸드를 가르쳐 준다. 포어핸드를 배우기 시작할 때보다는 훨씬 수월한 모양이다. 어느새 움직이면서 타구할 때의 피곤함을 잊은 것 같다. 백 핸드를 타구하는 모습이 아주 진지하다. 이제는 백 핸드 스매시까지 실시한다. 이렇게 Footwork과 백 핸드를 반복 연습 하면서 세 번째 시간 끝! 저녁에 또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 보도록 부탁한다. 탁구 기술이 늘었는지, 탁구 기술 시간이 본인의 기분을 바꾸어 놓는지, 그리고 아직도 나쁜 기분과 생각이 본인을 괴롭히는지를 차분하게 분석 기록해보도록 한다.

다음 날은 일요일! 필자가 오후에 病院에 도착한다. 그녀가 환하게 나를 맞으며 무척 기다렸다고 한다. 벌써 흥분이 보인다. 인사가 끝난 후 곧 탁구 훈련이 시작된다. 그런데 이 날은 시작부터 약간 피곤해하며 힘들어 하는 것 같다. 움직이는데 몸이 좀 둔해 보인다. 그러나 한 바구니의 반복 기초 훈련이 끝날 무렵 다시 신이 나 보인다. 두 번째 바구니부터는 움직이는 타구를 실시한다. 땀을 아주 많이 흘린다. 약 100개의 공을 쉬지 않고 때려 낸다. 약간의 휴식 후에 다시 시작한다. 이번에는 나머지 150개의 공을 약간 빠른 속도로 다 때려 낸다. 이번에는 가장 힘든 마지막 단계의 순서이다. 필자가 아무 곳에 보내는 모든 공을 포어핸드로 다 쳐서 넘겨야 하는 순서이다. 실 틀 없이 날아 오는 공을 때리기 위해서 몸놀림이 유연해야 한다. 당연히 정신을 차려야 한다. 필자는 브렌다의 반응 정도에 따라 보내는 공의 스피드나 때림의 강약을 조절한다. 100개정도를 마치고 약간 쉬게 그녀를 제안한다. 아주 힘든 모양이다. 약 5분의 휴식을 취한다. 휴식 시간에 그녀는 왜 우울하게 되었는지 앞으로 자기의 각오도 이야기한다.

이 번에는 제자리에서 할 수 있는 탁구, 백 핸드 연습을 실시한다. 어느새 30분이 지나간다. 이제부터는 공 하나를 가지고 천천히 連打하는 기술을 익힌다. 지금까지 익힌 기술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이다. 10개에서 15개를 무난히 연결하여 본인도 놀란다. 처음 하나도 넘기지 못할 때가 생각이 나는 모양이다. 아주 재미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탁구를 더 치고 싶다고 한다. 10분 정도를 더 하도록 허용한다. 끝난 후에, 역시 기분이나 탁구 기술이나 우울증 증세의 변화에 관해서 글을 쓰도록 부탁한다.

5일째인 월요일은 브렌다의 주치의와 간호원 등 여러 병원의료진들이 초대되었다.

그녀의 탁구 치는 모습을 관찰하기 위해서이다. 제자리에서, <15분에 계속>

<표-1> 7일 탁구 기술 훈련 전후의 실험 및 통제 집단의 운동 자신감, 자아 존중감과 우울증 점수 비교

측정 내용	집단	입원시(표준 편차)	7일 후(표준 편차)	변화/차이(표준 편차)
운동 자신감	실험(n=28)	2.00(0.71)	3.30(0.62)	1.31(0.55)
	통제(n=28)	2.21(0.95)	2.38(0.99)	(1.17)(.59)
	계(N=56)	2.10(0.84)	2.84(0.95)	0.74(0.80)
자아 존중감	실험(n=28)	1.73(0.69)	2.86(0.80)	1.13(0.64)
	통제(n=28)	1.82(0.64)	2.14(0.88)	0.32(0.85)
	계(N=56)	1.78(0.67)	2.50(0.91)	0.73(0.86)
우울증	실험(n=28)	34.32(8.74)	27.75(7.00)	-26.57(8.160)
	통제(n=28)	33.43(10.91)	27.43(11.49)	-6.00(11.93)
	계(N=56)	33.88(9.80)	17.64(13.64)	-16.29(14.50)

술이 모두 평균 0다. 자기 쪽 탁구대에 튀겨 날아오는 공을 탁구대의 Net 위로 넘겨 상대방 쪽 탁구대에 넘겨야 한다. 그러나 그녀는 전혀 공을 넘기지 못했다. 세 번의 기회가 주어졌으나 같은 결과였으며, 이전에 탁구를 해 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 참고로, 탁구 기술을 배운 실험 집단의 이 부분의 평균 수준은 각기 5.96과 7.35이다. 탁구 기술 지도 기간을 일주일로 선택하였는데, 이는 항우울증 약은 복용 시작 후에 약 2주 후부터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약물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탁구 기술 향상이 브렌다의 마음을 밝게, 자아를 재발견하도록 돕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그리고 필자의 약 20년 이상의 탁구 기술 지도 경험으로 보면, 1주일 동안의 기술 지도를 받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탁구를 좋아해 계속 하려고 하는 것을 보아 왔다. 이는

조절하기도 한다. 탁구채가 공에 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 몸을 앞으로 더 숙이기도 한다. 때린 공들이 반대 쪽 탁구대에 떨어지는 횟수가 점점 증가한다. 좀처럼 웃지 않던 브렌다의 얼굴에 어느새 웃음과 흥분이 일어나는 것을 본다. 브렌다의 포어핸드가 나아지면서 필자는 점점 공을 빨리 보낸다. 브렌다는 날아오는 공들의 리듬에 맞추어 신나게 춤을 추듯 반응하며 공을 친다. 한 바구니의 250개 공을 다 결국 때린다. 얼굴에 땀을 흘리며, "What a work! It is a good work out! Wow!"라고 한다. 마루에 떨어진 공을 필자와 함께 줍기 시작한다. 공을 주면서 브렌다의 포어핸드 스트로크에 관해 助言을 해준다. 공을 줍는 속도도 아주 빠르다. 한 바구니를 더 때리고 싶은 욕구가 눈에 보인다. 재미가 붙은 모양이다.

자리에서 공을 넘기는 기술을 어느 정도 익히면 움직이면서(Footwork) 공을 때리기도 하여야 한다. 이 쪽 저 쪽 양쪽 끝으로 뛰어 움직이면서 보내어진 공을 때려야 하는데 집중력이 상당히 필요하다. 아니, 공을 따라 다니며 때리다 보니 자동 집중력이 올라간다. 그녀가 오늘은 아주 땀을 많이 흘리는 데도 재미있는 모양이다. 오늘 저녁에도 느끼고 깨달은 것을 적어 볼 것을 당부한다.

세 번째 시간! 첫 시간부터 연습한 것을 반복한다. 이제는 제법 능수능란하게 공을 때린다. 제자리에서 공을 때리는 시간을 줄이고 곧 바로 움직이면서 공을 때리기 시작한다. 앞 뒤로 움직이면서 그리고 좌우로 움직이면서 타구한다. 한 바구니가 끝나자마자, "Wow! Wow!"를 되풀이한다. 아주 힘든 모양이다. 그래서 제자리에서 할

그리고 움직이면서 포어핸드와 백핸드로 공을 때리는 그녀의 모습에 모두들 무척 놀란다. 첫 날 입원했을 때의 의기 소침한 모습하고는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그녀도 자신감이 생겼는지 더 신이 난 것 같으며 몸놀림도 아주 가볍다. 의료진들이 나간 후에 계속해서 공 하나로 포어핸드와 백핸드로 連打 연습을 실시한다. 브렌다는 의사들 스텝들이 자기의 탁구 기술을 보고 찬사하니 기분이 좋다고 한다.

6일째, 브렌다는 하루 쉬고 싶다고 한다. 5일 동안 계속 탁구 훈련에 임했다니 팔과 온몸에 통증이 있다고 한다. 이제까지는 잘 참을 수 있는데 오늘은 하루 쉬고 싶다고 한다. 나는 대신에 앉아서 대화를 하기로 한다. 아직도 아주 우울한지에 관한 나의 질문에 그녀는 재미있는 답을 한다. 통증이 심해서 우울할 여유가 없다고 한다. 탁구 기술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물어 보자, 브렌다는 첫째로 너무 재미있어 계속 배우고 싶은 의욕이 생긴다고 한다. 그리고 계속 자신의 신나게 탁구 하는 모습이 머리 속에 떠올라 자신에 대해 기분이 좋다고 한다. 전에는 아무 것도 하기가 싫었는데 불과 며칠 사이에 자신이 아주 많이 바뀐 것 같다고 말한다. 나는 퇴원해서는 탁구를 칠 곳이 없을 텐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본다. 그녀는 조금 망설이더니, 자기가 좋아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을 찾아서 배우며 즐길 것이라고 강조한다. 아직도自殺할 생각이 있는지에 관한 물음에 전혀 없다고 답한다. 대답도 꽤나 적극적이고 표정도 아주 밝다.

마지막인 7일째 오늘은 집중적으로 공 하나로 연타하는 연습을 한다. 계속 무난히 25회 연속해서 때려 낸다. 연습 시간이 끝나고 그녀의 탁구 포어핸드와 백핸드가 얼마나 향상했는지를 평가 측정하는 시간이다. 측정에 임하는 자세가 아주 조심스럽고 진지하다. 세 번의 포어핸드 기회에 36회, 40회, 20회를 각기 때려 낸다. 그녀의 평균이 32회로 실험 집단의 평균 28.90회보다도 높다. 백핸드도 36회, 45회, 그리고 60회를 때려 낸다. "Wow! Wow!" 하면서 감탄사를 연발한다. 일주일 사이에 아주 많이 향상된 자기의 탁구에 본인 스스로 놀란다. 백핸드도 세 번의 평균 47회로 실험 집단의 평균 35.57회보다도 높다.

골이어 운동 자신감(Athletic Competence)과 자아 존중감(Global Self-Worth)과 우울증(Depression)의 재측정에 임한다. 운동 자신감은 3.35(실험 집단 평균 3.30)로 입원 직후의 1.32보다도 많이 올라갔다. 탁구 기술 향상으로 인해 운동에 대한 자신감이 붙은 것 같다. 보다 적극적으로 새로운 운동에 도전할 것 같고, 그냥

보는 것보다는 운동을 직접 시도해보고 싶으며, 보다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다고 한다. 그리고 남들만큼 자기도 운동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한다. 자아 존중감도 3.01(실험 집단 평균 2.86)로 처음의 1.5보다는 많이 향상되었다. 자기의 삶을 전보다 더 잘 스스로 영위하고 즐길 수 있을 것 같다고 한다. 자신의 현재의 삶에 대해 전보다 더 만족스러운 것 같다고도 한다. 이전보다 자기가 더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자신에 대해서 만족스럽다고 표현한다. 우울증 점수도 5(실험 집단 평균: 7.75)로 처음의 47보다 현저히 떨어졌다. 결국 운동 기술이 향상됨으로 운동에 대한 자신감이 붙음과 동시에 내적 자아 존중감도 올라갔고, 그 결과 우울증 증상들이 많이 사라지게 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브렌다는 많은 활동 그룹에도 참가하여 참가 수준에서 아주 높은 점수(130)를 기록한다. 첫 날에 거의 그룹 활동에 참석하지 않은 것(첫날 점수: 30)에 비하면 놀라운 향상이다. 활동에 대한 흥미도 많이 살아난 것이다.

이 번에는 26세인 백인 남성인 Paul의 경우이다. 그는 브렌다 뒤에 우울증으로 병동에 입원하였다. 그래서 풀은 자동으로 통제 집단(Control Group)으로 배정되었다. 본인이 탁구 기술 지도 실험 연구에 참가하겠다고 서명하였으나, 기술 지도를 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본인이 원하면 일반 탁구 활동 그룹에서 탁구를, 다른 그룹 활동에서처럼, 즐길 수 있도록 한다. 매일 한 시간씩 풀이 원하는 활동을 할 때 필자는 치료사로서 게임이나 활동을 통해서 대화를 함께 하기로 한다. 이는 브렌다에게 24시간 준 시간 만큼 풀에게도 비슷한 주목의 시간을 배려하기 위함이다. 즉 이를 다시 설명하면, 오직 탁구 기술 지도만이 브렌다가 속한 實驗集團과 풀이 속한 統制集團의 유일한 차이임을 부각시키기 위함이다.

풀도 브렌다와 같이 유사한 증상으로 입원했다. 풀은 우울증의 정도가 36으로 브렌다보다는 낮은 점수이다. 자아 존중감과 운동 자신감 검사에서, 1.70과 1.20을 풀은 기록한다. 참고로 통제 집단(28명)의 우울증 환자의 병동 입원 직후의 우울증 평균 점수는 33.43이었다. 그리고 자아 존중감과 운동 자신감은 1.82와 2.21이었다. 14명의 <표-1>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입원 시와 실험 기간(7일) 후의 운동 자신감, 자아 존중감 및 우울증 점수의 비교를 보여 준다.

그러나 풀은, 브렌다와는 달리, 모든 활동에 계속 소극적이다. 필자의 격려로 첫 시간에 약 20분 가량 당구를 치더니 중단하고 자기

방으로 가더니 침대에 눕는다. 두 번째 날도 유사하다. 필자가 계속 격려한다. 다른 치료사들의 보고에 따르면, 가끔 그룹 활동에 나타나나 그렇게 흥미나 관심을 보이지 못한다고 한다. 계속 기분 좋지 않은 생각들이 흥미를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모양이다. 자주 활동 그룹에 참가를 하다가도 중단한다고 한다.

일주일 후에 운동 자신감, 자아 존중감, 그리고 우울증을 다시 평가해 본다. 그다지 변화가 없다. 우울증 약을 복용한 지도 일주일일이 되었는데 아직 반응이 없다. 좀 더 시간이 지나야 藥物 반응이 일어날 모양이다. 그룹 활동 참가 수준도 첫날 수준 정도로 아주 낮다.

1995년의 全美精神科醫學報告書에 의하면, 일천 구백만(19 Millions)명 이상의 미국의 成人이 브렌다와 풀과 같이 우울증으로 고생하는데 다섯 명 중 한 명이 평생 동안 한 번 정도는 우울증 증상을 경험한다고도 한다. 이러한 우울증은 신체 및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여 생활의 기능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自殺까지 유도하는 심각한 정신 질환 중의 하나인데, 다행히 우울증은 早期 발견과 치료로 95% 이상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고 보고서들은 주장하는데, 이들은 통상 약물 치료가 주요 치료 방안으로 여겨지나 많은 환자들이 체중 증가와 성 기능低下 등의 부작용을 호소한다. 환자의 경직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과정을 바꾸어 놓는 심리 상담 치료도 약물 치료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최근 연구 보고서들이 밝힌다.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우울증 환자들은 삶의 동기 면에서 흥미가 손실되어 의욕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재미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입하여 도와주는 것이 중요한 치료 방법(Intervention) 중의 하나라는 것을 강조한다.

레크레이션 치료방법은 치료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행동주의적인 입장을 반영한다. 기분 전환 등의 일시적 만족을 올릴 수 있는 활동 기회를 부여한다. 더 나아가 본인이 그러한 활동을 탐구하여 계속 도전할 수 있도록 여가 교육도 병행한다. 삶의 만족을 위한 의식 체계 변화를 통해 취미 등의 지속적인 건전하고 생산적인 여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

보통 어느 정도의 우울증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다. 브렌다와 풀은 우울증이 너무 심화된 경우들이다. 이들은 본인들이 자살하려는 우려와 가정과 직장 및 학교에서 정상적인 삶의 활동을 계속 할 수가 없어서 스스로 혹은 가족 일원에 의해 정신과 응급실에 온 경우들이다. 운동이 환자들의 기분을 좋게 바꾼다는 많은 보고서들이 있다. 필자의 탁구 기술 훈련이 신체 활

동이나 환자들의 기분을 밝게 전환시키는 점에서 이러한 운동 생리 이론에 부합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필자의 의도는 "운동 기술 향상"이 관련 心理的 側面에서 內的 自信感을 배양할 수 있고 그리하여 自我 개념이 向上되어 우울증이 개선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탁구 기술지도 받은 브렌다가 속한 실험 집단은 일주일 후에 브렌다와 같이 운동 자신감과 자아 존중감에서 의미 있는($p < 0.05$) 점수의 상승과 우울증에서 의미 있는($p < 0.05$) 점수의 하향을 보인 반면, 통제 집단은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못했다. <표1참조> 이를 분석하면, 탁구 기술 향상으로 재미가 있어서 내면의 긍정적인 強化作用이 일어나 몸이 힘들기는 하지만 탁구 기술 훈련을 계속 한 것이다. 이러한 심리적 강화 작용은 자신감과 흥미를 다른 그룹 활동들 참가에도 적용시키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발전하게 한 것이다.

필자의 이 연구 실험은 New York University의 건강 교육학과(Department of Health Studies)의 박사 학위 논문으로 2000년 2월 1일부터 5월 중순까지 뉴욕 시의 Bronx에 있는 Bronx Lebanon Hospital Center의 단기 입원 정신 병동(Inpatient Units)에서 실시된 것이다. Recreation and Leisure Studies의 한 전문 분야인 Recreation Therapy의 정신과 현장 실험 연구이다.

정신과 치료의 한 방법으로 도입된 탁구는 좁은 장소에서도 나이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레크레이션 활동이다. 장비도 간단하고 기 후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실내 신체 활동이다. 그래서 필자의 경우처럼 정신과 병동에서 조직적인 치료 활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처음 배울 때에는 집중력과 눈과 손의 조정력 등 기초 신체 동작이 필요하다. 그러나 점점 기술이 향상될수록 빨리 움직이는 동작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속도(speed)와 스태미나(stamina) 향상으로 心肺持久力은 물론 신체 전반에 걸친 발달을 돕는다. 정신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특히, 집중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기도 한다. 날아오는 작은 공을 계속 치기 위해서 다른 것에 정신을 둘 여유가 없다. 그리고 공을 더 잘 넘기기 위해서 부단히 연구하는 생각을 요구한다. 이렇게 탁구 기술을 배우면서 환자는 자신에 관한 부정적인 생각이나 행동의 패턴을 바꿀 수 있게 된다. 환자는 자신이 탁구 기술 향상으로 인한 자기 보상 심리가 일어나고 나아가 만족감이 더해짐을 인식하게 된다. 결국 운동 자신감의 상승은 과거의 비현실적이고 왜곡된 생각(예: 본인이 살 가치가 없으며 미래와 자신에게 희망이 없고

도움을 받을 수도 없다는 인식)을 바꾸기 시작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결국 환자의 변화하고 싶은, 즉 나아지고 싶은 욕구는 재미있고 가치 있게 여겨진 활동(탁구)을 더 하고 싶은 마음을 강화하게 한 것이다.

탁구 기술로 인한 치료에 참가한 환자들 중의 6명의 글들을 종합해보면 아래와 같이 그 치료효과를 추출할 수 있다. 처음에는 탁구가 아주 쉬웠으나 점점 갈수록 탁구가 힘들게 느껴졌다고 한다. 도전하는 마음과 재미가 있어 그만둘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한다. 재미 이상으로 기분과 생각을 바꾸어 놓는 의미 있는 배움의 기회이었다고도 한다. 대부분이 자신감이 향상되었다고 한다. 마음을 다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도 한다. 집중력을 키워 주었다고도 한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재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는 목소리도 많다. 그리고 사물을 대하는 자세가 많이 달라진 것 같다고 말하는 환자들도 있었다.

환자들의 글에 나타난 생각들을 종합해보면, 자기들이 작성 기록한 운동 자신감, 자아 존중감 그리고 우울증에 평가와 일치한다. 초기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자신감이 향상되어 자아에 대한 눈을 열게 된 것이다.

필자의 연구는 치료 경비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커다란 의의를 둔다. 첫째는, 환자들이 입원 기간중에 그들의 자유시간을 생산적이고 건설적으로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도모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환자들의 빠른 심리적 회복은 바로 입원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정부의 의료 예산 삭감 등으로 모든 병원들이 환자들을 가능한 한 빨리 퇴원시키려고 한다. 환자의 증상이 가라앉고 안정을 보이면 바로 퇴원시킨다. 옛날의 한 달 혹은 3주의 입원 기간이 15일 정도로 줄어들었다. 물론 환자들의 증상의 심도에 따라 차이는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필자의 연구는 주목을 받고 있다.

끝으로, 필자의 논문 연구가 병원에서 입증이 되어, 현재 Bronx Lebanon Hospital Center의 정신과(Department of Psychiatry)에서 필자가 New York State Office of Mental Health의 2002 Achievement Award of Service in Excellence 부문의 수상자(사진)가 되었다. 그리고 수년내에 지어질 Activity 체육관에서 스포츠 치료 및 각종 신체 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난 4월에 Activity Therapy Coordinator로 필자가 승진되었다.

김정수 선배님, 사진에 56학번의 박순영 동문, 이은경 동문과 아들이이삭(10세)군입니다. 여러 장 중에서 한 장은 저가 수상 Acceptance Speech를 하는 것입니다.

物理學徒의 旅程

나의 人生, 나의 學問 (II)

標準模型을 넘어선 粒子物理學

이론수립을 향하여

姜慶植(문리대 59년 졸, Brown University 물리학 교수)

이러는 사이 나의 물리학 연구는 S-매트릭스론(S-matrix Theory)에서부터 쿼크理論(Quark Theory), 電流代數理論(Current Algebra Theory), 二重共鳴模型理論(Dual Resonance Model Theory) 등으로 흐름에 따라 점차 변모를 하게 되었고, 특히 70년 초반의 二重共鳴 散亂 振幅을 분석한 粒子生成이론[Dual Amplitude Analysis of Particle Productions: "Duality and Single Particle Production", Physical Review D4, 425 (1971) 이의 11편] 10여 편은 Maurice Jacob의 二重共鳴理論總論(Dual Theory Physics Reports Reprint Book Series, Vo. 1, North Holland Pub., 1974)을 비롯하여 여러개의 입자물리학 교과서에 크게 인용되었고, 오늘날 말하는 초끈이론(Super-String Theory) 형성의 기반에 큰 공헌을 한 것으로 당시에 활약한 이론학자들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컴퓨터를 쓴 引用度調査자료은행(citation survey data bank)을 SLAC에서 시작한 75년 이전의 일이라 인용도 조사 데이터 뱅크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 67년 이후 나의 학문활동무대도 미국을 넘어서서 파리대학교, 유럽 核物理/高에너지 물리학 실험소(CERN), 덴마크의 Niels Bohr연구소, 이스라엘의 Tel Aviv 대학교, 독일의 DESY, 영국의 Rutherford연구소, 이탈리아의 국제이론물리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Theoretical Physics) 등으로 확장되었고 특히, 파리 제 6대학교는 69년이래 매년 한두번씩 정기적으로 방문했을 뿐 아니라, 72-73년의 첫 번째 安息年을 비롯하여 네 차례나 초빙교수로 안식년을 보낸 제 2의 고향이 되었다. 그러나 그리운 어머님과 보고 싶은 친지들이 살고 있는 정작 내 고향과 고국 방문은 아직도 훨씬 더 기다려야 했고 유학길에 오른 지 15년 후에야 처음으로 이루어 졌던 것이다.

첫번 안식년때 파리대학교에서 당시 國家博士(Doctorat d'Etat) 학위를 마치고 있던 니콜

레스크(Basarab Nicolescu)와 오랫동안 함께 착안하여 75년 후반에 Physical Review에 발표한 "고에너지에서의 강입자들의 산란 모형이론[Models for Hadron-Hadron Scattering at High Energies and Rising Total Cross Sections, Physical Review D11, 2641(1975)]"은 오늘날 非攝動 陽子 色素 力學 [Non-perturbative Quantum Chromodynamics (QCD)]분야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논문 중의 하나로서 SLAC 데이터 뱅크에서도 "TOPCITE" 표시를 해 놓았다. 이 논문에서 나는 당시 CERN의 ISR실험에서 처음으로 암시를 해준 에너지에 따라 증가하는 散亂斷面積(Scattering Cross Section) 성질과 소위 포머론추크(Pomeranchuk) 假說과의 관계를 결부시켜 고에너지에서의 強粒子散亂振幅(Hadron Scattering Amplitude)을 대칭성(Symmetric Property)에 따라 분리하면서 고에너지 성질을 분석할 수 있는 微分分散式(Derivative Dispersion Relation)을 유도해서 포머론(Pomeron) 또는 Pomeranchukon의 略語)과 그에 대칭을 이루는 오더론(Odderon)이 자연스럽게 이 미분 분산식의 解法으로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특히 오더론은 그 후 실험의 추구대상이 되어있고 포머론과 아울러 QCD를 가미한 레지온場論(Reggeon Field Theory)의 중요한 새로운 영역을 전개해 주었을 뿐 아니라 이 논문이 실험 데이터가 劣惡할 때 이미 해석함수로서의 散亂振幅模型 이론 모두를 선별해 줄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해 주었으며, 최근들어 국제협력 입자 데이터 그룹(Particle Data Group)의 COMPAS 그룹이 나와 합세하여 지금까지 측정된 모든 강입자산란 실험 데이터를 써서 고에너지에서의 모형에 의존하지 않는 파라미터(model-independent basic parameters)의 결정을 해 주었고, 이 결과로 매 2년마다 발간하는 입자물리학 국제 합동 총결산 (Review of Particle Physics)에 1998년호부터 포함되기 시작하여 여름에 나온



2002년호[Review of Particle Physics, 2002; Physical Review D66, 010001-1 (2002); Particle Data Group (K. Hagiwara et al.)]의 고에너지 산란 종합결산의 중요한 부분으로 다시 취급되는 개가를 올렸다. 74년이래 나의 학문활동의 큰 변화는 새로 발전되고 있는 統一 게이지場論(Unified Gauge Field Theory)을 연구하게 된 것이고, 다른 한편 한국출신 후배들을 브라운 고에너지 이론 그룹에 채용하면서 한국의 입자물리학 발전에도 NSF의 SEED 프로그램이나 KOSEF와의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통하여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협조하게 된 것이다. Charmed Quark의 존재, tau 輕粒子(lepton) 그리고 비탄성 고에너지 산란(inelastic high energy scattering)에서의 s-scaling 특성 발견등 실험분야의 흥미로운 진전과 비교한 게이지場論(non-Abelian gauge field theory)에서 무한접근 자유(asymptotic freedom)와 재규격화(renormalization) 가능성 발견 등 이론분야의 획기적인 성취로 소위 오늘날 입자물리학 표준모형(standard model of particle physics)이라 부르게 된 이론구성이 토론폰되기 시작한 73년 이후의 그 무렵에는 나의 관심도 자연히 그쪽으로 쏠리게 되었다. 75년에는 로체스터 대학교에서 학위를 끝낸 김진의 박사를 브라운내 그룹의 연구원으로 채용하였는데 진영선 교수 서거 이후 다시 한국 출신 물리학자와 함께 일하는 계기가 되었고, 김박사와는 지금까지 15편의 논문을 공저 발표했는데 그중에서도 76년에 Physics Letter에 낸 "참과 헛시를 변하는 중성류[(charm and fancy-changing neutral currents, Physics Letters 64B, 386(1976)]"에서는 중성류 약작용(neutral current weak interaction)에서의 푸레이바 양자수 보존(flavor number conservation)을 정리 法則化했는데 Weinberg와 Glashow의 같은

내용 논문보다 실제로 6개월전에 완성되었으며 역시 SLAC 데이터뱅크에 TOPCITE 논문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 이외에 내가 현재까지 발표한 약 200편의 논문중에서 TOPCITE 표시가 되어있는 것으로는 86년에 당시 나의 박사과정학생과 Physical Review에 발표한 "星群에서의 액시온 발산[Axion Emission in Stars and Constrains on its Mass, Physical Review D33, 3509 (1986)]"인데 김진의 박사나 Raffelt 등이 쓴 여러 가지 액시온 리뷰논문들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뼈대를 만들어 주었다. 좀 아쉬운 것은 이 논문에서 다룬 super-nova 부분은 87년에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마젤란 銀河系에서 폭발되어 12만 光年이 걸려 지구에 도착한 Super-nova 87A의 불빛과 중성미자들의 관측보다 훨씬 전에 나의 이론적 가정을 써서 했었기 때문에 실제 측정과 좀 차이가 있었던 점이다. 그러나 그 후 다른 天體粒子物理學者들이 측정결과를 이용하여 좀더 정확한 계산을 하는데 나의 논문이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85년에는 하바드대학교에서 학위를 끝낸 Michael Shin(신명섭)박사 그리고 96년에는 과기원 출신 강신규박사를 연구원으로 채용하여 표준모형이론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quark flavor problem과 중성미자 혼성(neutrino mixing problem) 그리고 쿼크 질량매트릭스(mass matrix) 분야의 많은 주목받는 일을 했는데 이 부분과 나의 다른 업적은 지면관계로 다른 기회로 미루어야 하겠다. 브라운에서 38년 이상을 재직하면서 많은 한국학생들이 직접 간접으로 나와 관계를 맺고 배출되었는데 브라운 입자 이론그룹에서 학위를 마치고 귀국한 사람들로 鄭福根교수(현 경희대), 蘇光燮교수(현 서울대), 이주련 박사(Julian Lee, 현 고등과학원) 등을 비롯하여 여러 명이 있다. 76년 이후 89년까지 NSF SEED 기금과 KOSEF 협력 프

로그래프 기금을 얻어 과기원 金在觀 교수팀의 입자물리학 그룹과 협력하여 공동연구를 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배출된 사람중에는 高仁圭 교수(현 科技院), 이현규 교수(현 한양대), 지청룡 교수(현 North Carolina State Univ.), 강신규 교수(현 서울대) 등이 나와 직접 관계를 가졌다. 또한 92년부터 5년간은 브라운-서울대 이론 물리센터와의 학자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나는 수많은 한국의 젊은 교수와 후배 이론물리학자들이 브라운에 와서 연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개인적으로는 이미 78년에 미국 물리학회 Fellow로 선임되는 영광을 얻었고, 이 해부터는 브라운 입자 이론 물리그룹의 미국에너지부 연구계약(the U.S. Department of Energy Research Contract/Grant) 프로그램의 주임연구원(Principal Research Investigator)으로 승격되어 지금까지 그룹의 연구와 행정을 함께 맡아보고 있다. 또한 1980년에는 Glashow, Georgi, Frampton 등의 초청으로 大統一場理論(Grand Unification Theory) 워크샵의 조직위원 및 운영위원이 되어 10여년간 이 워크샵을 함께 주관해 왔다. 특히 자랑스런 것은 1990년에 중국연변대학교에서 전세계 韓人 물리학자를 중심으로 한 延邊 現代 物理學 學術會議(Yanbian Workshop on Modern Physics)를 순수 민간자본을 얻어 개최했는데 이 회의에는 北韓에서 러려기 교수를 포함하여 다섯명의 물리학자가 참가하였고 발표한 논문을 영어로 써서 제출하여 다른 발표 논문들과 함께 회의록(Proceedings)에 포함시켜 World Scientific 출판사에서 인쇄하여 전세계 도서관과 서점에 배포하여 판매하게 되었다. 이는 실로 학술회의를 통한 남북한 민간 접촉을 성취시킨 첫 성공사례라고 생각된다. 94년 이래에는 마르탱(Martin), 크리쉬(Krish), 니콜레스크(Nicolescu) 등과 함께 국제 블로아회의(International Blois Workshop)의 상임조직위원으로 일하는데 97년에는 내가 이화여자 대학교의 초빙석좌교수로 한 학기 봉사하는 동안 제7차 블로아 국제회의를 이화여대로 유치한 바도 있다. 또, 98년이래 해마다 고등과학원 초빙교수로 한두달씩 방문하면서 공동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17면에 계속>

<16면에서 계속>

또한, 대외적으로 1972년에 창립 회원으로 참가하여 재미한인 과학 기술자협회의 제 5대 부회장과 제 11대 회장을 역임했으며 그러한 사이 두 번에 걸쳐 대규모 재미 한 인과학 기술자 모국방문 학술회의 를 한국의 科學과 공동으로 조직 주관하였고, 한국정부의 요청에 따라 산업 발전에 필요한 재미한인 과학자, 기술자 및 기능인사 데이터 베이스와 총람 프로젝트를 책임 맡아 성공리에 끝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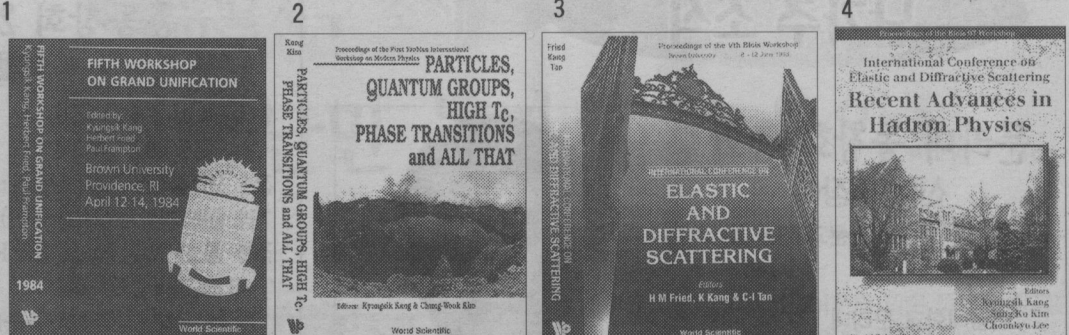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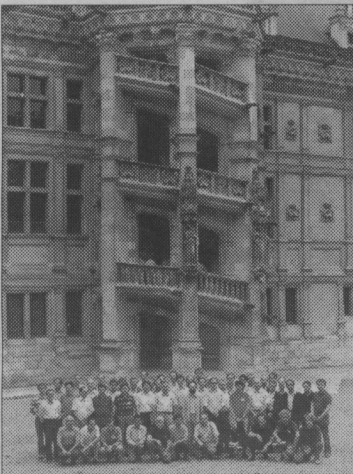
최근에는 과학기술자 협회 25주년 사업으로 무려 530페이지에 달하는 "한미 과학기술교류 100년 역사와 재미 과학협회의 역할" 편집 출판사업의 편찬위원장으로 이일을 성공시켜주었다. 다른 한편 1982년에는 한국 문교부(현 교육부)의 요청으로 미국 각지에서 雨後竹筍格으로 생기고 있는 한국/한인/한글학교들의 교사 훈련과 교재 발간등을 목적으로 재미 한인학교 협의회를 창립을 도왔고 이 단체의 제 2대 회장 제 2대 이사장등 책임을 맡아 교육부 감수 재미 교포용 교재를 발간했고, 교사연수회 및 한인 학교 운영자 수련회를 조직해 주었는데 그 사업이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단체의 연례행사로 진행되어오고 있다.

그러나 나의 학문연구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특히 Pomeron, Odderon 등 고에너지 強粒子 作用(Hadron Interaction), 쿼크 플레이바(quark flavor problem)와 중성미자 혼합(neutrino mixing)문제 등 標準模型을 넘어선 粒子 物理學 (particle physics beyond the Standard Model)은 지금도 나의 연구관심과 추구의 제목이며 최근에는 초끈이론(superstring theory)의 새로운 국면인 부가차원(extra dimension)에서의 물리학 맥락에서 위의 문제들을 연구하고 있다. 아직도 여행객이 마치 처음 봉우리를 겨우 정복하고, 앞으로 몇 개의 봉우리를 더 넘어야 旅程이 끝날지 모르지만, 첫 번째 한 봉우리를 넘어선 환희를 느끼면서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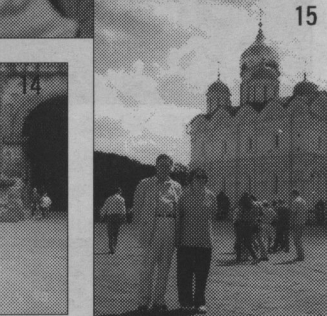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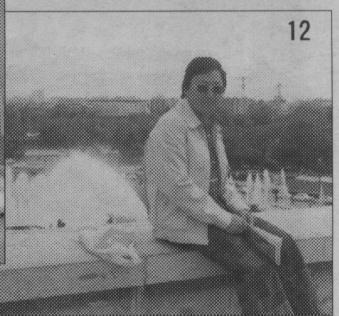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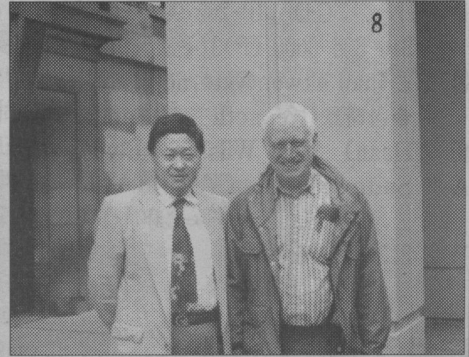
■사진 설명

<16면사진> 1985년 당시의 가족사진 큰아들 Peter는 현재 Skjerven, Morrill, McPherson에 법률회사의 Managing Partner로 San Francisco 지점장이고, 둘째 Michael은 영화감독 및 극작가로 금년 두번째로 Sundance Institute의 Fellow로 다시 선정되었고, 셋째 David는 Brown 대학의 졸업생이다. 아내는 Bryant College의 불란서어 교수를 오랫동안 했는데 지금은 로 드아일랜드 한인학교, 로드아일랜드 챔버뮤직 소싸이티, 그리고 브라운 교수부인회의

[편집자주: 각계각층에서 개척자적인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동문들의 삶의 기록을 여러 동문들과 친구로서 나누기 위하여 회고록과 의미있는 순간들을 재미서울대 동창회보는 기록하고자 합니다. 동문 여러분의 회고록과 사진첩에서 추억의 사진들을 보내주십시오. 여기 한 물리학도의 앨범에서 강경식 교수의 학문과 삶의 편린을 모아 그의 연구연보, 주요학술회의, 스승과 동료들과 가족들의 모습을 모았다.]



物理學徒의 사진첩에서



자선사업에 바쁘다. <사진1>Glashow, Georgi, Frampton 등과 1980년에 시작한 Grand Unification Workshop의 5차 학술회의를 Brown대에서 개최했다. 그 Proceedings의 표지는 Brown대의 Emblem <2>1990년 중국 연변 대학교에서 개최한 연변현대 물리학 국제회의 Proceedings의 표지에는 백두산 천지 사진을 실었다. 이 회의에는 이북에서 러칠 기교수를 비롯한 5명의 물리학자가 참가했는데 통일을 염원하는 교포 및 유지들의 후원만으로 이루어졌으나 실제로 남북한과 전세계에서 온 학자들의 모임이었다. 이는 학

술회의를 통한 남북한 민간 접촉을 성취시킨 첫 성공사례가 되었다. <3>1993년 Brown 대학에서 개최한 제 5차 Blois 국제 학술회의 Proceedings <4>강경식13- 1997년 제 7차 Blois 국제학술회의를 한국으로 유치하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개최하였다. 학술회의 Proceedings 표지는 이대의 본관전경. <5> 1985년 제 1회 Blois 국제 학술회의를 유치 깊은 Chateau de Blois에서 시작했을때의 참가자들 필자(두번째줄 우로부터 다섯번째 줄인 T-shirt) 왼쪽으로 두번째가 Martin 교수 <6>중국 연변에서 열린 국제 현대 물리 학술회의 참가자들. 필자(앞줄 좌로부터

터 여덟번째) 오른쪽이 김중전 연변대 부교장, 그 다음이 러칠기 교수, 그 다음이 고윤석(전 서울대 부총장)교수 <7>1995년 제 6차 Blois 국제학술회의 때 실행위원(Steering Committee Members)들이 10주년 기념 케이크를 자르기에 함께 기념 촬영. 왼쪽에서 두번째가 필자. <8>1998년 70 고회를 맞이한 은사 Marc H. Ross 교수를 Ann Arbor의 미시간대학교를 찾아 보았을 때. 선생님은 은회기념 Ross Symposium에서 필자에게 그의 제자들을 대표해서 강연할 영광을 베풀어 주셨다. <9>Krisch (Univ. of Michigan)교수는 필자와 함께 Blois 국제 학술회의 조직 실행위원으로 1980년 이래 함께 일하고 있는데 1999년 모스크바 교외의 Protvino에서 제 8차 Blois 회의를 마치고서. <10> 노벨 물리학 수상자인 Glashow 교수와는 1980년 대통일학술회의 조직위원으로 함께 일하면서 더욱 가깝게 지내게 되었는데 1999년 Glashow 교수를 서울의 고등과학원으로 초대했을 때 함께 경복궁에서. <11>1999년 Protvino에서

만난 연구협력자들인 Ezhela 교수와 Tkachenko 박사. 이들은 필자와 함께 COMPETE 공동연구팀의 일원으로 현재 일하고 있다. <12> 1973년 파리대학교의 초빙교수로 파리에 안식년을 지낼 때의 어느 일요일 오후, Tour Eiffel 을 내려다보는 Palais de Chaillot 분수에 물이 솟고 있다. <13>1976년 당시 변종화회장과 부회장이 필자가 재미과학협 제 2차 모국 방문 학술회의를 조직하여 서울을 방문했을 때 최형섭 과 기처 장관과 변종화 회장이 필자를 최귀하 총리에게 소개하고 있다. <14>1987년 3번째 안식년을 브라운대에서 허가 받아 파리대학교 초빙교수로 가 있을 때에도 유럽의 여러 곳에서 초청 강연 부탁을 받았다. 이 사진은 독일 Aachen 공대를 갔을 때 가족과 함께 로마제국때의 성 Triers를 방문했을 때 찍었다. <15>제 8차 Blois 국제회의를 참가했을 때 (1999년) Kremlin 관광안내를 받아 필자와 아내가 포즈를 취했다.

남가주 소식

문리대 동창회 총회 신임 회장에 김건진동문(영문과 62년 입)

"서울대학교 문리대 남가주 동창회"는 지난 8월 20일 라서올 가든 회관에서 임시총회를 갖고 공식중이던 동창회장에 김건진 동문(영문과 62년 입학, LA 중앙일보 부회장)을 선출하고 또, 남가주 총동창회에 문리대 동창회를 대표할 남가주 동창회 부회장에 권봉성동문(지리학과 64년 입학)과 남가주 동창회 선임이사로 한태호 동문(국문과 75년 입학)을 선출하여, 현 문리대 선임이사로는 김흥목(물리학과 60년), 김귀섭(물리학과 61년), 김상찬(지리학과 65년), 김장신(사회학과 75년), 한태호(국문과 75년) 동문이 수고하게 되었다.

문리대 동창회 임원들의 연락처
◆김건진(Kun Jin Kim) 21040 Tomlee Ave. Torrance, CA 90503 (H) 310-316-2350 (CP)



김건진동문(영문과 62년 입)

13-435-3705
◆권봉성(Bong Sung Kwon) 30924 Marne Dr. Rancho Palos Verdes, CA90275 (H) 310-265-9972 (B) 310-835-3000 (F) 310-835-3033 E-mail:bkwon@gte.net
◆한태호(Kenneth Taeho Haan) 3699 Wilshire Blvd. Suite 860, LA, CA90010 (H) 213-639-2900 (F) 213-639-2909

미서부 수의과 대학 동창회소식



Yorba Linda의 Reginal Park에서 동문회 आयु회장

7월 4일 2002년 Yorba Linda의 Reginal Park에서 동문회 आयु회를 개최하였다. 동문과 동문 가족 54명이 참석하였으며 한국에서 온 2명의 연수생을 환영하였다. 참석한 동문과 동문 가족은 다음과 같다.

이정재, 양희곤, 오갑출 가족, 박희규 가족, 박종수 가족, 이종인, 장철봉 가족, 문홍식 가족, 김영 가족, 하병래 가족, 권태삼, 강동원, 이병희, 승원표 가족, 신동국 가족, 윤동준 가족, 심형석, 김형석, 이재현 가족, 유한택, 전원혁 가족, 군정국, 정연우

#2. 동창회 사업으로 연수 초청

된 서울대 임상 대학원생 2명은 7월 한달간 여러 동문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모든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갔다. 수의방사선 석사 1년차 권정국과 수의산과학석사 1년차 정연우는 문홍식, 이병희, 이재현, 강동원 동문 병원에서 연수를 하였으며 방사선 과목은 Tustin Diagnostic Image 와 All Care Animal Referral Center에서 산과학과목은 하병래 동문 병원에서 연수를 하였다.

#3. 김영주와 김용수 동문은 오랜 노력으로 California 수의사면허를 취득하였고 김영주는 All Care Animal Referral Center

총동창회 2002년 가을 山行 10월 20일(일)

일시: 2002년 10월 20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장소: Mt. Baldy Cedar Glen Trail
거리: 왕복 5마일 (소요시간 5시간)
집합 장소: Mt. Baldy Ice House Trail Parking Lot
연락처: 동창회 사무국 213-365-9669
저녁시간 714-842-5886 (조정일)
참가요령: 편한 신발 신으시고, 물두병과 점심지참. 햇볕 가리는 모자 및 안경 또

는 등산용 지팡이도 곁함 **특기사항:** 한국인 정서에 맞는 곳임—개울물 흐르고 단풍도 볼 수 있음. Trail 도 잘 유지되어 있음. 목적지에 도착후 한시간 정도 점심과 휴식 후 하산함. 서울근교 도봉산처럼 한인 등산객이 많으며, 처음 산에 오시는 분도 감상할 수 있음. 개를 좋아하시는 분은 개를 데려와도 됨
<Mt. Baldy Ice House Trail 주차장위치> 1)10번 Fwy 동쪽으로 오시다가

Flaremont City가 나오면 Towne Exit으로 나오셔서 북쪽으로 올라가시면 Base Line을 만나게 됨. 여기서 우회전 하셔서 Mill Ave를 만나면 좌회전 하시면 산길로 접어들게 됨. 주차장은 10마일 정도 거리에 있음. Mills Ave끝에주차장 임 2)National Forest 1년 Parking permit이 있으면 잊지마시고 지참하시기 바라며, 당일 주차비는 5불임. 3) LA 시내에서 주차장까지 60마일정도이고, Orange County에서 주차장까지도 60마일정도임.



서울 모교 후배 연수생들

에서 김용수는 Buena Park에 근무중이다.
#4. 그동안의 동창회 소식을 정리하여 재미서울대동창회 신문에 투고하여 6월 신문에 게재하였다.
#5. 모교 이문한 부학장과 박용호 교수와 대학원생들이 샌디에고 학회에 참석차 방문하여 환영회를 가졌다. 6월 28일에는 박용호 교수와 일행 6명을 조선갈비에서 환영했으며, 김영, 문홍식, 승원표,

최인백, 박익순, 조병선 동문들이 참석했다. 6월 30일에는 샌디에고에서 이문한 부학장 일행을 강동원, 이재현, 전원혁 동문들이 환영했다. 7월 8일에는 용수산에서 이문한 부학장 일행을 환영했으며 박종수, 김영, 문홍식, 장철봉, 최재현, 강상봉, 이봉수, 유형규, 승원표, 신동국 동문들이 참석하였다.
#6. 총동창회 산악 축제가 7월

일 Mr. Islip에서 개최되어 김 영 동문부부가 참석하였다.
#7. 8월 15일에 서울대 복싱팀이 L.A.에서 친선 경기가 있어 문홍식, 최재현 부부가 관전하였고 다음날 복싱팀 환송연에 문홍식 회장이 참석하였다.
#8. 8월 24일 서울대 동창 가족의 밤 행사로 힐리웃볼에서 차이코프스키 스펙타클라에 김영부부, 문홍식부부, 최재현부부, 승원표가족이 참석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9. 하병래, 유형규동문이 한미 합동소동물 세미나에 강사로 선정되어 강의차 9월중에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10. 이우재회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되어 축하화환을 보냈다.
#11. 신동국동문은 7월말에 일주일간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서 어머니님 팔순잔치를 하고 돌아왔다. 권태삼 동문은 2주간 한국방문중이다.



#12. 서울대 음대 미국 순회 연주회가 8월 29일 한국종합교육관에서 거행되었으며 오영문부부, 이종인, 장철봉, 문홍식, 승원표 등이 참석하여 좋은 음악속에서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냈다.
#13. 추계 Golf 대회가 9월 21일 9시에 Los Verdes GC에서 있었습니다. 많은 참석과 예약 바랍니다.
#14. 동창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비를 납부 바랍니다.
회장 : \$1,000, 부회장 : \$500, 박종수 : \$300, 승원표 : \$300, 강동원:\$200
오영문: \$200, 오갑출 : \$200, 신동국 : \$200, 손수용: \$200, 권태삼 : \$200
김영 : \$200, 박홍락 : \$200, 심영춘 :\$150, 장철봉 : \$150, 정길택 : \$150
방유식 : \$150, 이병희 : \$150, 전호선 : \$150, 하병래 : \$150, 최인백: \$150
김민용 : \$50, 김익수 : \$50, 양희곤 : \$50, 이종인 : \$50.
<투고자 : 문홍식회장>



골프대회에 참가한 동문들

뉴잉글랜드 소식

서울대 동창회 2003년도 장학생 선발공고

뉴잉글랜드 지역 서울대 동창회에서는 2003년도 장학생을 아래의 요강에 따라 선발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인원: 4명
- 장학금액: 개인당 \$500.00
- 지원자격: 뉴잉글랜드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계 대학진학 예정자 및 대학 또는 대학원 학생(유학생 포함)
- 지원서류: 지원서 1통 (지원서 응지는 www.snua.org에서 download가능)
- 추천서 1통 (소속학교 교수와 본대학 동창회원으로 부터 각 1통)
- 성적 증명서
- 한글 또는 영문 Essay

선발규정: 경제적인 도움 필요 여건과 학업성적 참조
 지원마감: 2002년 12월 31일(sharp)
 서류제출처: Byong-le Han
 584 Walden St. Concord, MA 01742
 E-mail: benedict_han@hms.harvard.edu
 Tel: 978-371-7220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내용과 심사내용은 영 원히 비밀입니다. 장학금은 2003년 1월 18일로 예정된 본 동창회 총회 식장에서 지급합니다.
 뉴잉글랜드 서울대학교 동창회 장학위원회 위원장 한병의

뉴욕지구 소식

탈북난민 돕기 자선 음악회

9월 29일 오후 7시

The New York Art Songs Association Presents
탈북난민 돕기 모금 음악회
 Benefit Song Concert for the North Korean Refugees
 Sacred Songs & Art Songs - Solo & Ensemble Performances
 Special Guest Artist (Hwa Woon Moon at the Piano)
 Artists: STRADRIA, HANDEL, MALOTTE, ADAMS, HORN, KOREAN SONGS
 DATE: SUNDAY, SEPTEMBER 29, 2002 at 7:00 PM
 PLACE: 뉴욕천안교회 (성지교회, 목사시루) HYUN SHIN CHURCH
 121-14th St., Flushing, NY 11355 (at Hope St.)
 TICKETS: \$15.00
 문의: 뉴잉글랜드지역동창회 / 미주한인교회기공사업회 / 행사준비위원회: 차정규

뉴욕 예술가곡 연구회(회장: 서병선동문, 음대 65년 입학)가 주최하는 제 6차 탈북난민 돕기 음악회가 9월 29일 오후 7시에 뉴욕효신 장로교회 (42-15 166th St. Flushing, NY 11358)에서 열릴 예정이다. 동문들과 음악애호가들의 많은 참가를 바라고 있다. 이 음악회는 중국 등지에서 강제송환의 공포에 떨며 매일매일을 숨어 살아가고 있는 30만 탈북난민들을 돕는 자선 모금 음악회이므로 많은 동문들과 교인들의 성원을 바라고 있다. 이번 음악회에 출연자는 메조소프라노 정수연, 소프라노 이철하, 소프라노 박숙형, 소프라노 홍승희, 바리톤 노대산, 바리톤 최인달, 테너 소유영, 테너 서병선등이다. 예술가곡 연구회는 지금까지 음악회를 통하여 모금된 성금으로 탈북자들을 헌신적으로 도와온 최모 선교사의 탈북난민 돕기를 지원해 왔는데 지난 5월 9일 최선교사는 중국 연변에서 공안 요원들에 체포되어 억류되어있다. 이번 음악회는 미주 한인 처과 기공사협회의 후원으로 열리는데 입장권은 1인당 \$15이다.

하트랜드 소식

2002년 제 6회 정기총회 및 동문의 밤

9월 28일(토)

The Westin Crown Center Hotel

2002년도 제 6차 서울대학교 Heart land 지역 정기총회 및 동문의 밤이 미조리주 Kansas City 의 The Westin Crown Center Hotel 에서 오는 9월 28일(토)에 열린다. 지난 2001년 정기총회에서 2년 임기의 새 회장으로 취임한 이상문 회장, 김호원 이사장 및 임원들의 철저한 준비 하에, 예년과 같이 많은 동문 및 가족들의 호응이 예상된다. 이번 정기 총회에서는 동창회 집행부의 재무보고, 올해와 내년도 행사안내, 주제 강연 및 장학금 수여 등이 준비되어 있다. 또한 당일 오전에는 동문 및 가족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동창회장배 골프대회가 Heritage Park Golf Course 에서 있을 예정이다.

鄭東鶴(공대 55년 입) 하트랜드 동창회 차기 회장 別世

폐암으로 투병중이던 정동화동문이 최근 수술도중 악화되어 별세하였다.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는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다음호에 상보).

회원동정

이상철 동문 (공대 67입 이상문화장의 동생) 情通部長관 취임

하트랜드지구 회장인 이상문 동문(상 57)의 친동생인 이상철 동문(공 67)이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어 친형인 이상훈 동문(전 국방부장관, 현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장)과 함께 최초의 형제 장관으로 기록되게 되었다.

조지아 소식

모교 음대 연주단의 성공적인 공연을 지원하신 동문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이곳에도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N.Y. WTC Terror로 인한 미국인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달래주기 위해서 이곳 동문 여러분과 집행부 임원이 함께 정성들어 모금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일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아물기는커녕 새로운 전장을 향해 한발 한발 다가가고 있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지난 달에는 모교와 총동창회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모교 음대생 10명으로 구성된 미주 순회연주단이 8개지부 방문공연을 했으며, 이곳 아틀란타에서는 8월 27일 아틀란타 한인교회에서 300명에 가까운 관중을 모시고 성공적인 공연을 가졌습니다.

이날의 공연에는 후배 음악도들의 뛰어난 실력에 모두들 경탄하였으며 Program이 다양하여 시종일관 흥겨운 분위기가 그칠줄 몰랐습니다. 이번 음악회를 위해서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신 동문 여러분의 협조가 절대적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공사로 바쁘신 중에서도 후배들을 위해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총영사 조중표 동문과 백순희 동문께도 감사드립니다.

음악회 준비를 위해 밤낮으로 수고한 께민자 동문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과 가족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음악회는 이곳에 사시는 여러 동문들간의 유대를 강화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으며 아울러 모교와 이곳 서울대 동문회를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번 순회 공연이 해마다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회보 7면에 문중현동문 조지아 음악회 기사 참조).

오는 10월13일(일)의 추계 야유회에는 풍성한 음식과 많은 상품이 마련될 예정이오니, 많이들 나오셔서 학창시절로 되돌아간 기분으로 하루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야유회때 만나뵙겠습니다.
 회장 김 재 철 배상

조지아 동창회 행사일정



- ◆가을 야유회 : 10월 13일(일) 오전11시 - 4시까지 (Red Top Mountain state park shelter#2)
 Direction: I-75 North Exit 285에서 Right Turn 2마일지나 오른쪽 Shelter #2
- ◆골프모임 : 10월 20일(일) 12시
 Wolf creek Golf Course(Tel. 404-344-1334)
 연락처: 문중현 총무 (moonjh65@yahoo.com)
- ◆년말 파티 : 12월 7(토) 개최 (한우리, 저녁 7시)
- ◆◆조지아 관악회보 자료수집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빈 칸을 채울 길이 없어 항상 우울한 편집인을 돕는 뜻에서 회원 각자가 대소를 불문하고 재미있는 News를 잊지 말고 꼭 기록하여 자발적으로 Fax: (7)-426-0260 또는 Tel: (7)427-0005(꺽민자)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밴쿠버소식

동창회 소식 42호(8월호) 발췌

정기총회 및 송년회 개최공고 12월 8일

▶ 정기총회 및 송년회 · 장소: Executive Plaza Hotel
 405 North Road, Coquitlam (전화: 604-936-9399)
 금년도 정기총회 및 송년회 행사를 12월 8일(일)에 개최하오니 연말 계획에 우선 반영하셨다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2002년 12월 8일(일)
 저녁 5:00 - 10:00

장학생 모집 공고 후보자 추천마감 10월 31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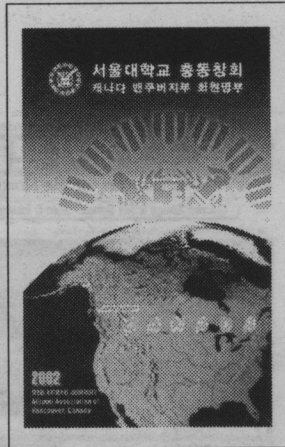
동창회에서는 동문 및 비동문 자제 중에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을 선발하여 매년 12월 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별지에 첨부한 장학생 선정지침 및 추천서 양식에 의거하여 주위의 모범적인 학생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생 선정 지침>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밴쿠버 지부 장학위원회 제정)

1. 목적: BC주에 거주하는 동문 및 비동문 자제 중 미래의 이민 사회를 이끌어갈 준재를 발굴하여 장학금을 수여, 격려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학문과 사회활동에 더욱 정진하게 함은 물론 나아가 다른 자제에게도 모범이 되게 하여 차세대 교육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장학금 수여: 장학금의 시상은 매년 12월 본 지부 정기총회시 수여한다.
3. 후보의 추천:
 - 1) 장학생 후보의 추천은 북미주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이거나 진학예정자 가운데 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3)항에 열거한 사항 중 3개 이상에 해당되는 자를 동문회원이 서명한 추천서에 의하여 추천한다.
 - 2) 추천자는 후보의 인적사항 및 3)항의 해당사항을 명기한 추천서를 작성, 서명하여 추천하여야 하며, 추천된 후보 본인의 소견서를 추천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3) 후보대상자 선정기준:
 - (1) 특수분야의 재능이 인정된 자
 - (2) 사회 복지 증진에 헌신하고자 하는 자
 - (3) 신체 장애자로서 학비조달이 곤란한 자
 - (4) 가정 형편상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
 - (5) 자선 사회봉사 활동에 3개월 이상 참여한 자
 - (6) 한인 사회나 모국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동문의 자녀
 - (7) 본 지부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동문의 자녀
4. 추천기간: 후보의 추천기간은 매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5. 후보선정: 장학 위원회에서 심사표에 의거 심사한 후 추천된 후보 중 적격자에 한하여 장학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5명 이하의 인원을 최종 선정한다.

밴쿠버 동창회원 명부 개정판배포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캐나다 밴쿠버 지부 회원명부> 2002년도 개정판을 발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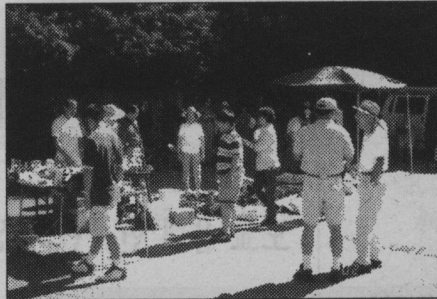
금년도 명부 개정은 지난 2000년 6월 명부 발행이후 변경된 동문들의 주소, 연락처 등 기본적인 사항을 파악하여 update 함은 물론, 회원명부를 동문 상호간에 전문지식 또는 사업정보 교환의 도구로 활용토록 하는 목적에서 내용과 구성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발간하였습니다.

또한 제작비용도 여러 동문들의 광고 참여 형태로 자체 조달함으로써 동문회 차원에서 참여와 협력의 좋은 기회가 되도록 시도하였습니다. 개정 명부는 일차로 7월 27일 아우회에서 배포하였으며, 아우회에 불참하였거나 아직 배부받지 못한 동문들께서는 이번 소식지와 함께 발송해 드립니다.

하계야유회 성황리에 개최(7월 27일)

2002년도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밴쿠버지부 하계 야유회가 지난 7월 27일 Warner Loat Park에서 동문 52명과 가족 포함 모두 106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니다. 예년과 달리 날씨 걱정없이 맞이한 화창한 여름날, 맛있는 초밥 도시락과 콩치구이를 포함한 점심식사를 즐기고 2부 재미있는 여흥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민속놀이(제기차기, 윷놀이, 투호 게임), 부부게임(징검다리 게임), 어린이 게임, 참석자 전원이 참가하는

빙고게임 등 다채로운 놀이와 푸짐한 상품으로 선, 후배간의 돈독한 우의를 다졌습니다. 참석해 주신 동문 및 가족들, 그리고 식사 제공과 상품 기증 등을 통해 당일 행사를 빛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김창훈 동문(농대 75): 점심 식사 Catering 제공 및 상품(태극미 20Lbs, 5부대) 기증
- 유동성 동문(공대 58): 손수 담근 맛있는 약주 20L기증



장학기금모집 Yard Sale 성황

동창회 장학기금 확충 일환으로 기획되어 2000년도부터 시작된 야드세일이 올해 세번째로 지난 8월 11일(일)에 개최되었습니다.

많은 동문들의 관심과 참여 덕분에 기증된 물품도 다양하였으며 간식을 제공하여 행사진행을 격려하는 등 서울대 동문들의 단합된 힘과 상부상조의 정신을 확인하고 다지는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판매 순이익금(\$764.51)은 전

액 장학기금에 편입하고, 팔고 남은 물건은 자선단체인 Society of St. Vincent de Paul 에 기부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하였습니다.

물품을 기부하고 행사에 도움을 주신 아래 동문 및 동문 가족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김종련(공대 49)장범식(문리대 49)박동숙(사대 51)업승용(상대 54)차동철(문리대

- 7) 황택구(미대 57) 김지영(공대 57)유형길(미대 57) ————— 물품 및 간식 제공
- 김평기(사대 57)유동성(공대 58)이인철(사대 59) 노민우(공대 60) ————— 골프채 기증 (\$180에 판매되었음)
- 김찬석(공대 70)김영배(약대 74)박영배(공대 75) 박병우(사회대 76)최승선(공대 76)김현승(인문대 79)

동창회비 납부에 감사드립니다.

· 보내실 곳: SNU Alumni Association, Vancouver, BC, Canada
 P.O. Box 3045, Vancouver Main Post Office
 Vancouver, BC, V6B 3X5
 · 수표 수취인: SNU Alumni Association

동창회 弔旗 제작 동창가족 조문용

동문 및 동문 직계가족 喪事에 사용하기 위한 弔旗를 서울 총동창회에 의뢰하여 제작하였기에 알

려드립니다. 앞으로 동문 가정에 喪事가 발생하게 될 경우 弔旗게 양이 용이하지 못한 지역을 제외

하고는 가급적 다른 조화들과 똑같은 花環 대신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밴쿠버지부' 弔旗로 대치할 방침입니다.

弔旗 디자인은 기존의 동창회기와 모양이 동일합니다만 검정 바탕 맨 위에 '謹弔' 표시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시카고 소식

시카고 지역동창회 사업 동창회 장학생 지원서 마감 10월 23일 지역사회 봉사 음악회 11월 7일



시작하고 상품은 골프볼로 일관하고, 점심은 김밥, 또 저녁식사는 Korea Garden에서 하기로 결정하였다.

장학생 선발(아래 광고참조) 항목에서는 이미 중앙일보에 장학생 선발 광고가 나갔으며 또, 서울대 Webpage에도 자세한 신청요령과 신청서류가 실려있음을 한재은 회장이 발표하였다. 몇 명의 장학생을 선출하느냐는 토론에서 현 증권시장의 불경기로 인한 타격으로 5명으로 국한하도록 다음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장학금의 지불은 현재 잠정되어 있는 투자금을 사용하는 대신에 현 동창회 운영자금에서 우선 빌려 지불하자는 의견도 검토하였다.

관악지 발간을 책임 맡은 육길원 편집간사는 개인사정상 회의에 불참하여 별다른 보고가 없었다. 관악지의 "간소화"를 여러모로 토론하는 중, 여러 번 반복되는 내용을 다시 내어 출판하는 대신 관악지 출판을 취소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금년에도 전례를 따라 관악지를 연말 총회 및 파티에서 배부하도록 준비하기로 결정되었다.

2002년도 지역사회 봉사활동 사업으로는 시카고 한인 복지 회와 공동주최로 서울대 교수이자 Violinist인 신수정과 Pianist 이경선 씨의 연주회를 Skokie Performing Arts Center에서 성공적으로 하도록 장기남 부회장의 주관하에 적극 협조할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또한 김선영 음대 동창회장과 총무 이소정 동문의 많은 수고가 기대된다.

제 2차 이사회(옆 광고 참조)는 다가오는 10월 5일 Oak Brook Hills Hotel에서 6시부터 있을 예정이며, 이에 대비하여 여러 토의가 있었으며 계속하여 마지막 행사인 연말 총회 파티 준비에 관하여 많은 토론이 있었다.

기타사항에는 미주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이용락 회장의 한국 방문관계로 구경희 사무총장의 간단한 인사/보고와 더불어 미주 총동창회의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6월 30일이므로 새 년도 재미서울대 동창회보 구독료/회비 \$60을 총동창회 재무이신 전현일 간사에게 내줄 것을 설명 당부하였다.

<투고자 이승자 총무>
사진설명
<사진 맨위> 한재은 회장과 학생동문들 기념촬영.
<가운데> 시카고 동창회의 구수회의(좌로부터 조대현, 김인원, 한재은, 이승자, 송순영, 최순분 동문)
<맨아래> 좌로부터 김동휘(부회장), 전현일(감사), 구경희, 박영규, 황치용(부회장) 동문

시카고 지역 동창회(회장 한재은)

2002년도 행사 계획

- ◇1월 12일(토)제 1차 임원회(한재은 회장대)
- ◇3월 23일(토)제 1차 이사회(Raddison Hotel, Lincolnwood)
- ◇5월 11일(토)제 2차 임원회(김동휘 부회장대)
- ◇6월 14일 -16일미주 총동창회 평의원회
- ◇6월 16일(일)춘계 Golf Outing
- ◇6월 22일(토)PicnicBusse Grove #12
- ◇9월 14일(토)학생 동문 환영회, 장기남 수석 부회장대
- ◇9월 14일(토)제 3차 임원회, 장기남 수석 부회장대
- ◇9월 21일(토)추계 Golf Outing
- ◆10월 5일(토)제 2차 이사회, Oak Brook Hills Hotel
- ◆11월 2일(토)제 4차 임원회, 황치용 부회장대
- ◆11월 7일(목)지역사회봉사: 신수정, 이경선 연주회 공동주최
Skokie Performing Arts Center
- ◇11월 30일(토)총회 및 연말 Party, Raddison Hotel(Lincolnwood)

2002년도 제 2차 이사회 개최 공고 10월 5일(토) 오후 6시

서울대학교 시카고 지역 동창회는 아래와 같이 2002년도 제 2차 이사회를 갖고자 하오니 바쁘신 중에도 꼭 참석하시어 계속 동창회 발전에 많은 협조와 격려를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2002년 10월 5일(토) 오후 6시
장소: Oak Brook Hills Hotel and Resort
(3500 Midwest Rd. Oak Brook, IL, 630-850-5555)
안건:

1. 차 차기 회장 (2004년도) 선출/ 인준
 2. 차기 회장단(2003년도) 선출/인준
 3.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인준
 4. 관악지 발간 중간 보고
 5. 신수정, 이경선 연주회 공동 주체건
- ※꼭 부부 동반 참석하셔서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2002년 9월 18일 시카고 지역동창회장 한재은 드림

서울대학교 시카고 지역 동창회 2002년도 장학생 선발 공고

본 동창회에서는 성적이 우수 회의 2000년도 회비를 납부한 하고 재정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찾아 그들의 향학열을 동창 회원으로부터 받아야 함) 고취시키고 도움을 주고자 아래 요강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하오니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발예정인원 5~7명
- 장학금 지정액일인당 \$1,000
- 응모자격 시카고 및 인접지역에 거주(permanent address) 하는 자로서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자(유학생 포함)에 한함

- 3. 성적증명서
- 4. Essay

•지원서제출처
Jae E. Han
6 Eagle Pointe Dr.
Barrington, IL 60010
(Tel) 847-428-4929
(Fax) 847-428-4929
(E-mail) hankim@concentric.net
<비고>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 응모마감 2002년 10월 23일
- 구비서류
1. 원서 1통(지원서 용지는 www. snuaachicago. org에서 download할 수 있음)
- 2. 추천서 2통 (한 통은 반드시 서울대학교 시카고 지역 동창

서울대학교 시카고지역 동창회 장학위원회 위원장 한재은

제 3차 임원회의/학생동문 환영회 9월14일(토) 장기남 수석부회장대

시카고 지역 서울대학교 동창회는 2002년도 제 3차 임원회와 시카고 지역 대학에 유학중인 학생동문 환영 및 좌담회를 지난 9월 14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장기남 수석 부회장 대에서 가졌다. 약 15명의 학생동문들과 20명의

임원들이 부부 동반하여 참석한 가운데 학생동문 환영회로 시작하여 진지하게 여러 동창회 행사 준비를 의논하고 결의하였다. 9월 21일에 예정된 추계 골프대회는 Oak Brook의 Wil-lowcrest Golf장에서 10시부터

모교소식

제23대 총장 취임식 거행

鄭총장 “用之不竭의 인재를 배출해야” 林회장 “책임만큼 경륜·정열 쏟아주길”



지난 8월 1일 모교 관악캠퍼스 문화관에서 본회 林光洙회장과 孫一根상임부회장을 비롯해 전임 高柄翊·權壽赫·李賢宰·趙完圭·李壽成·鮮于仲皓총장, 명지대 趙淳석좌교수, 고려대 韓昇洲총장, 연세대 金雨植총장 등 5백여 명의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3대 鄭雲燦총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신임 鄭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모교가 진리의 불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지성의 전당이 돼야 한다』며 『정의와 도의로 사회를 바르게 이끌 수 있는 지성과 덕성, 그리고 감성을 갖춘 用之不竭의 인재를 배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전임 李賢宰총장은 『신임 鄭총장께서는 국가와 민족의 최고 재산인 모교의 중책을 맡으셨다』며 『학자적 능력과 관리자적

2001학년도 후기 졸업 1천6백66명 학위 받아

모교 2001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이 지난 8월 28일부터 생활과학대학을 시작으로 30일까지 각 단과대학(원)별로 열려 학사 8백64명, 석사 4백42명, 박사 3백60명 등 모두 1천6백66명이 학위를 받았다.

이로써 동창회 총회원 수는 27만6천2백35명(준회원, 단기과정 포함)으로 늘어났다. 각 단과대학(원)별 졸업자수 및 동창회 회원수는 별표와 같다.

崔承熙교수 등

17명 정년퇴임

모교는 지난 8월 30일 관악캠퍼스 문화관 중강당에서 鄭雲燦총장을 비롯한 보직교수와 재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17명의 교수 정년퇴임식을 가졌다.

이날 퇴임한 교수 명단은 다음과 같다. (프로필 다음 호에 게재)

崔承熙(국사학)교수, 金容九(외교학)교수, 朴相大(생명과학)교수, 盧賢模(생명과학)교

인 뛰어난 능력을 모교를 위해 최대한 발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본회 林光洙회장은 축사에서 『신임 총장에게 조국과 국민은 물론, 서울대 구성원과 동문의 기대가 크고 이에 책무 또한 무겁다』며 『모교가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경륜과 정열을 쏟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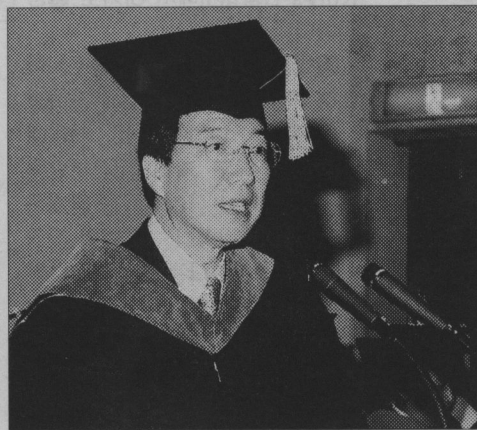
단과대학(원)별 회원현황

구분	8월 졸업	총 회원
인문대학	123	8,608
사회과학대학	119	11,023
자연과학대학	58	8,515
가정대학	28	3,254
간호대학	-	2,990
경영대학	54	5,143
공과대학	220	34,883
농업생명대학	57	18,181
문리과학대학	-	9,731
미술대학	15	4,275
법과대학	48	14,159
사범대학	116	22,899
상과대학	-	6,723
수의과대학	1	1,958
약학대학	1	5,550
음악대학	22	6,261
의과대학	-	9,906
치과대학	-	5,399
대학원	731	64,488
경영대학원	-	701
교육대학원	-	653
보건대학원	22	2,624
사범대학원	-	508
신문대학원	-	264
행정대학원	33	3,775
환경대학원	18	1,807
소계	1,666	254,278
준회원	-	13,338
(단기과정)	-	8,619
총계	-	276,235

수, 金相文(수리과학)교수, 李正浩(경영학)교수, 姜春植(재료공학)교수, 李華榮(응용화학)교수, 李炳驥(식품생산과학)교수, 崔大權(법학)교수, 任宰寅(교육학)교수, 申國鉉(제약학)교수, 徐桂淑(기약)교수, 李珍鏞(의학)교수, 趙斗英(의학)교수, 權泰煥(환경계획학)교수, 金安濟(환경계획학)교수.

(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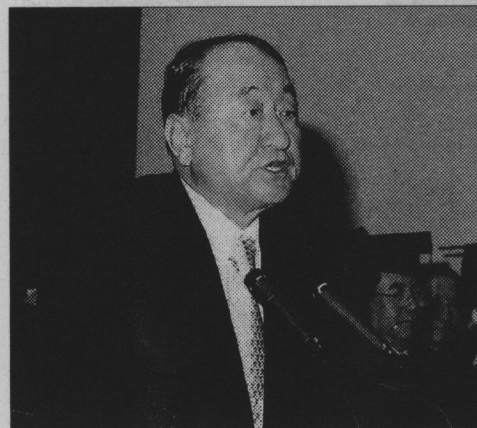
鄭雲燦총장 취임사 <요지>



교육은 진리 탐구의 또 다른 한 축으로 그 중요성이 결코 연구에 뒤지지 않습니다. 아마 한국의 여건을 생각해 볼 때 국민이 서울대학교에 거는 기대는 교육의 측면에서 더 클지도 모릅니다. 우리 대학에는 해마다 전국 각지에서 뛰어난 인재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나 이들이 우리의 교육을 통해 사회각계의 지도자로서의 소양을 갖추어 가고 있는지 결코 자신할 수 없습니다. 혹시 막스 베버가 말한 「비지성적 전문가」들만 양산하는 것이 아닌가 염려스럽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과 같은 혼탁한 사회에서, 부정과 부패를 물리치고 정의와 도의로 사회를 바르게 이끌 수 있는, 지성과 덕성, 그리고 감성을 갖춘 用之不竭의 인재를 배출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서울대학교가 한국 제일의 대학이라는 자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나날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더 이상 제일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부문도 생겨

林光洙동창회장 축사 <요지>



「서울대가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20萬 同門들의 團合과 參與, 獻身を 외쳐온 우리들 서울大人으로서도 鄭雲燦 總長에게 거는 期待가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님을 이 자리에서 確認합니다.

아무쪼록 21世紀를 열어가는 母校 總長으로서, 우리 서울大學校가 世界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당신의 經綸과 情熱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서울대 危機論」이 擴散되고 있습니다. 서울대 밖에선 「서울대 獨走」를 批判하는 一角의 輿論이 儼然히 있고, 서울대 내에선 構成員들을 中心으로 「改革과 變化」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昨今の 狀況이 서울大의 位相을 根本적으로 흔들 危機라고 저는 보지는 않지만, 이 같은 霧圍氣와 狀況이 持續될 境遇 長期的으로는 서울大의 沈滯, 더 나아가 國家 競爭力의 低下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일단의 걱정을 지울 수는 없는 點 또한 事實입니다.

分明 時代는 놀랄만한 速度로 變해가고 있습니

날지 모릅니다. 설사 제일의 자리를 지킨다 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의 주요한 경쟁 무대는 세계로 옮겨져 세계 유수의 대학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합니다. 저는 진리의 개방성을 굳게 믿고 있으며, 이에 바탕을 두어 우리 대학을 운영해 나가려 합니다. 한층 더 높은 차원의 진리를 위해 외국에 대해서도, 그리고 국내의 다른 대학이나 연구소에 대해서도 문을 활짝 열어 놓고, 국민에 대해서도 봉사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열린 대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높은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우리 모두의 자발적인 참여입니다.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저는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존중할 것입니다. 우선 총장인 저 자신부터 귀와 마음을 열어놓겠습니다. 널리 의견을 구하고 신중한 토의를 거쳐 의사를 결정하는 민주적 원칙을 분명하게 확립하겠습니다. 나아가 모든 관련 정보를 필요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총장으로서 저에게 맡겨진 임무는 오직 열과 성을 다해 대학 구성원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수 여러분들이 보람을 갖고 연구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이와 동시에 서울대학교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의 애로를 귀담아 들어, 우리 대학이 보람 있고 즐거운 일터가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는 총장으로서 학생을 위해 봉사하는 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우리 대학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며, 여러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데서 우리의 진정한 존재의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대학생활이 좀 더 윤택하고 활기차게 될 수 있도록 어떤 도움이라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 經濟나 科學技術의 變化는 歷史를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점점으로 막혔던 障壁 - 國籍이며, 國境이며, 年齡, 性別, 階層 등을 뛰어넘어, 個個人이 인터넷을 通해서 直接 온 世界를 接하는 등 프론티어(Frontier)가 一時에 넓어지고, 때와 경우에 따라서는 個人的 힘이 지금까지보다 몇 배, 몇 배로 커지고 있습니다.

領土가 크다고 해서, 地下資源이 많다고 해서, 人口가 많다고 해서, 나라의 힘이 큰 時代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21世紀는 教育이 있고 高度의 專門職能을 가진 Human Capital 즉, 人的資本이 國力の 基礎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知識의 生産者, 保全者, 傳播者로서 大學의 役割과 機能은 나라의 命運과 直結된다 하겠습니다.

눈부시게 變化해 가는 高級情報化社會에 適應해 나갈 수 있는 能力을 키워가는 일 - 人材의 養成이야말로 눈앞에 닥친 焦眉의 問題 中の 問題입니다.

앞으로 母校가 겨냥해야 할 무대는 韓半島의 남쪽 折半이 아니라 全 世界입니다.

따라서 보다 폭넓은 敎養과 進取의 創意性, 드높은 道德性, 그리고 깊은 專門知識을 兼備한 人材를 養成할 수 있는 教育體制와 制度를 갖추어야 합니다.

敬愛하는 서울大人 여러분!
서울大人은 祖國 앞에 無限責任이 있습니다. 새 總長의 就任을 새 출발의 契機로 삼아 母校의 發展, 祖國의 發展에 힘을 모아갑시다.

저 또한 서울大를 限없이 사랑하는 永遠한 서울大 同門의 한 사람으로서, 언제까지나 서울大의 發展을 위해 精誠을 보낼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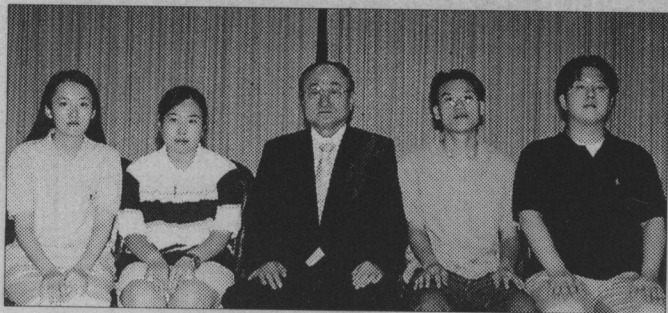
새 出發하는 者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鄭雲燦 總長의 꿈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모든 서울大 家族들의 뜻과 힘을 하나로 모아 「民族의 偉大한 相續者」인 서울大를 「타오르는 빛의 聖殿」으로 길이길이 빛내 주시기를 懇切히 祈願합니다.

亞南 특지장학금

아남그룹(회장 金柱津·54년 法大入)은 지난 8월 21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아남그룹 金綉雄전무가 대리로 참석한 가운데 2002학년도 제2학기 「亞南 특지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수여식에서 모교 재학생 任挑均(기계항공공학부 석사 2년)·韓銀俊(기계항공공학부 석사 1년)·金明俊(행정대학원 석사 1년)·金泰君(기초과학계열 2년)·趙仁國(공학부 1년)·尹水仙花(제약학과 3년)·양 등 7명에게 1천6백18만원을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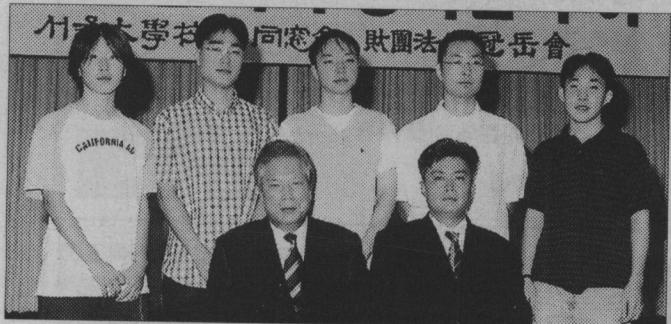
林光 특지장학금



본회 林光洙(52년 工大卒·임광도건 회장)회장은 지난 8월 21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2002학년도 제2학기 「林光 특지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林회장은 모교 재학생 鄭文棋(기계항공공학부 4년)·

權智勳(기계항공공학부 3년)·朴相源(기계항공공학부 2년)·趙炳鎬(경영학과 4년)·宋美愛(생물교육과 2년)·李愛娜(의류학과 3년)·양 등 6명에게 9백38만원을 전달했다.

洪性大 특지장학금



학교법인 상산학원 洪性大(63년 文理大卒·본회 부회장·관악회 상임이사)회장은 지난 8월 21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2002학년도 제2학기 「洪性大 특지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洪이사장은 이날 모교 재학생 鄭相鎬(응용생물화학부 4년)·宋旻斗(의학과 3년)·宋燦雨(경제학부 4년)·鄭雲慶(의학과 2년)·양 등 4명에게 1백50만원씩 총 6백만원을 전달했다.

孫致武 특지장학금

지질학과동창회 金英雄(67년 文理大卒)회장은 지난 8월 21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2002학년도 제2학기 「孫致武 특지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金회장은 이날 모교 재학생 朴泰胤(지구시스템과학과 3년)·金旻那·朴允貞·朴和妍(지



구시스템과학과 3년)·양 등 4명에게 1백만원씩 총 4백만원을 수여했다.

李鍾基 특지장학금

상영무역 李鍾基(73년 商大卒·관악회 이사)회장은 지난 8월 21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2002학년도 제2학기 「李鍾基 특지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李회장은 이날 모교 재학생 姜錫賢·柳賢明(경영학과, 3년)·李洞率(경제학부, 2년)



·양 등 3명에게 등록금 전액 3백67만1천원을 전달했다.

金讚淑 특지장학금

청아치과병원 金讚淑(60년 齒大卒·본회 부회장)회장은 지난 8월 21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2002학년도 제2학기 「金讚淑 특지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金회장은 이날 모교 치대 치의학과 朴斗南(3년)·朴勝範



(2년)·李修珍(본과 1년)·양 등 3명에게 등록금 전액 7백98만9천원을 전했다.

李吉女 특지장학금

경원대 李吉女(57년 醫大卒·본회 부회장·의대동창회장)총장은 지난 8월 21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가천의대 金勇一(61년 醫大卒)총장이 대리로 참

석한 가운데 2002학년도 제2학기 「李吉女 특지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수여식에서 모교 재학생 蔡依廷(인류학과 2년)·양과 石知沈(자연과학부 2년)·양이 등록금 전액 3백51만4천원을 받았다.

張世一 특지장학금

일성(주) 張世一(63년 工大卒·관악회 이사)회장은 지난 8월 21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일성(주) 李瑄恒고문이 대리로 참석한 가운데 2002학

도 제2학기 「張世一 특지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수여식에서 모교 재학생 張在貞(사회복지학과 3년)·金惠敬(수학과교육계열 1년)·양 등 2명에게 등록금 전액 총 2백61만원을 수여했다.

鄭八道·李慈倬 특지장학금

(주)흥인 鄭八道(1기 AIP·관악회 이사)회장은 지난 8월 21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2002학년도 제2학기 「鄭八道·李慈倬 특지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鄭회장은 모교 재학생 姜筆盛(산업공학과 4년)·



金泰植(경영학과 4년)·양에게 등록금 전액 총 2백83만7천원을 전했다.

鄭哲圭 특지장학금

신양문화재단 鄭哲圭(52년 工大卒·관악회 이사)회장은 지난 8월 21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2002학년도 제2학기 「鄭哲圭 특지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鄭회장은 이날 모교 재학생 金泰安(응용화학부



박사 1년)·金倫煥(응용화학부 2년)·양 등 2명에게 등록금 전액 총 4백24만5천원을 수여했다.

金秉順 특지장학금

(주)한국구아노 金秉順(4기 AMP·관악회 이사)회장은 지난 8월 21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2002학년도 제2학기 「金秉順 특지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金동문은 의대 黃善培(의학과 4년)·법대 朴達率(법학



부 2년)·양에게 등록금 전액 총 4백45만원을 전달했다.

郭永駟 특지장학금

(주)도화종합기술공사 郭永駟(60년 工大卒·본회 부회장)회장은 지난 8월 21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2002학년도 제2학기 「郭永駟 특지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郭회장이 지난 5월 2일 출연한 1억원을 본회에서 관리, 이날 공대 金原局(지구환경시스템



공학부 3년)·慎瑞元(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2년)·양에게 등록금 전액 3백59만4천원을 지급했다.

특지장학금 전달식

1천8백87만2천원 수여

각 특지장학회는 지난 8월 21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2002학년도 2학기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주)한국기술교류 朴柱鐸(74년 商大卒·관악회 감사)대표이사 설립한 「朴柱鐸 특지장학금」으로 체육교육과 2년 李旭弼군에게 1백84만3천원을 전달했으며, 간호대동창회 楊銀淑(54년 看護大卒) 명예회장이 설립한 「楊銀淑 특지장학금」으로 간호학과 박사과정 1년 金尹美양에게 2백49만5천원을 수여했다.

재미동창회 吳仁錫(62년 法大卒) 명예회장이 설립한 「吳仁錫 특지장학금」으로 인문계학과 2년 金아름양이 1백37만5천원을, 동일기술교류 黃海根(60년 工大卒)회장이 설립한 「李金玉·黃海根 특지장학금」으로 법학부 4년 崔宇辰군이 등록금 전액 1백12만3천원을 받았다.

鄭大永(55년 商大卒·前한주 통산 고문)동문이 부인 閔婉基 여사와 공동명의로 설립한 「鄭大永·閔婉基 특지장학금」으로 모교 재학생 林煥凡(경영학과 1년)·양에게 1백45만5천원을 수여했으며, 金鍾祺(55년 師大卒) 前인제고 교장이 설립한 「金鍾祺 특지장학금」으로 金동문이 특별히 지정한 인재高 출신 신입생 金秀寧(사회대 기초과정 1년)·양에게 1백45만5천원을 지급했다.

성지출판(주) 洪尙郁(87년 農大卒)회장이 설립한 「洪尙郁 특지장학금」으로 기초과학계열 2년 金康勳군에게 1백50만원을 전했으며, 화학과동창회(회장 金秀子)가 설립한 「화학과동창회 특지장학금」으로 화학과 4년 許 淵군이 등록금 전액 1백66만8천원을 받았다.

유니온테크 安聖哲(63년 法大卒·본회 부회장)회장이 설립한 「安聖哲 특지장학금」으로 모교 재학생 李大承(법학부 4년)·양에게 1백12만3천원을, (주)오미아코리아 鄭忠始(76년 工大卒·본회 부회장)회장이 설립한 「鄭忠始 특지장학금」으로 鄭동문이 특별히 지정한 공대 재학생 吳世源(응용화학부 4년)·양에게 1백73만원을 전달했다.

한국우드워드(주) 李海遠(55년 法大卒·본회 부회장)회장이 설립한 「李海遠 특지장학금」으로 모교 재학생 柳宇鉉(법학부 2년)·양에게 1백37만5천원을 수여했으며, 송원기업(주) 明泰鉉(50년 工大卒·관악회 이사)대표이사 설립한 「明泰鉉 특지장학금」으로 모교 재학생 柳行烈(기계공학과 3년)·양에게 등록금 전액 1백73만원을 전했다.

본회(주)대림(주)·수업(주)·(주)대림(주)·수업(주)·(주)대림(주)·수업(주)

동정

수상

▲**朴宇熙**(58년 商大卒·모교 경제학부 명예교수)=최근 ABI (American Biographical Institute)가 수여하는 「미국 명예의 메달(the American Medal of Honor)」 수상자로 선정됨.

▲**許鎭奎**(63년 工大卒·일진그룹 회장·本會 副會長)=지난 8월 21일 한국 경제신문과 한국 무역학회가 공동 주최한 「2002 무역학자 전국대회」에서 무역인 대상을 수상함.

▲**鄭城鎮**(63년 法大卒·국민대 총장)=지난 8월 19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대한변호사 협회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제33회 한국법률문화상을 받음.

이동·선임

▲**安秉萬**(64년 法大卒·한국의대 교수)=지난 8월 23일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한국의국어대 제7대 총장 취임 축하연을 가짐.

▲**李成俊**(69년 文理大卒·前한국일보 부사장·本報 論說委員)=지난 8월 21일 언론중재위원회 제16대 대선 선

거기사심의위원에 선임됨.

▲**楊興準**(69년 工大卒·LGCI 생명과학사업본부장)=지난 8월 1일 LG생명과학 창립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됨.

▲**金一燮**(69년 商大卒·이화여대 경영부총장·冠岳會理事)=지난 8월 8일 벤처기업협회 벤처윤리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위촉됨.

▲**金基道**(72년 新大院入·한국방송기자클럽 회장)=최근 2002년 한국방송대상 심사위원회에 위촉돼 지난 8월 5~10일 개인 및 작품상부문 3백여편의 작품을 심사함.

▲**梁欽在**(74년 工大卒·모교 환경계획학과 교수)=지난 7월 31일 서울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에 임명됨.

▲**鄭夢準**(75년 商大卒·대한축구협회장·국회의원·本會 副會長)=지난 8월 14일 말레이시아 팔라룸 푸르 매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AFC) 총회에서 AFC가 선출하는 국제축구연맹(FIFA) 부회장에 재선임됨. 이로써 지난 94년 첫 FIFA 부회장에 당선된 후 세 번째 연임으로 2006년까지 부회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金東奎**(78년 醫大卒·모교 신경외과학교실 교수)=최근 미국 신경외과 학회 학술지인 「NEUROSURGERY」의 International liaison and advisory panel 위원에 선정됨.

행사·출간

▲**李應百**(49년 師大卒·모교 명예교수·重峯趙憲선생기념사업회장)=지난 7월 26~28일 白川 趙氏장학회와 공동으로

김포 청소년수련원에서 제2회 청소년 인성교육 수련을 실시함.

▲**姜仁淑**(56년 文理大卒·건국대 명예교수·寧仁文學館長)=지난 9월 7일부터 10월 20일까지 평창동 영인문학관에서 「작가의 뒷안길 : 문인육필·애장품전」을 개최함.

▲**俞東濬**(60년 農大卒·한국담배연구협회장·晶月 羅惠錫기념사업회장·수원지부동창회장)=지난 8월 26~31일 우리

민족서로돕기운동의 일환으로 대북농업지원 협의를 위해 평양을 방문함.

▲**李基俊**(61년 工大卒·모교 응용화학부 교수·한국공화한림원 회장)=지난 8월 25~31일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세계 공화한림원 평의회 심포지엄과 총회에 참석함.

▲**李相禹**(61년 法大卒·서강대 교수·신아세아질서연구회장·本會 副會長)=지난 9월 5일 서울클럽 지리산룸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으며 조선일보 金宗來(75년 文理大卒)편집부국장을 초청, 「21세기는 유목민 세기」라는 주제로 제6차 교양강좌를 실시함.

▲**韓和甲**(63년 文理大卒·새천년민주당 대표최고위원)=지난 8월 30일 국회 의원회관 중앙홀에서 「화합으로 으뎠던 남자」 출판기념회를 개최함.

▲**卞柱仙**(64년 師大卒·대림성모병원 행정원장·한국아동단체협의회장·本會 副會長)=최근 한국아동의 상황을 점검하고 체계화하여, 정책수립의 귀한 자료로 활용될 「한국아동상황보고서 2001」을 발간함.

▲**李玉姬**(64년 音大卒·서울튜디앙상블 이사장)=지난 8월 26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서울튜디앙상블 제27회 정기연주회 겸 「청소년을 위한 문화환경콘서트」를 개최함.

▲**金明子**(66년 文理大卒·환경

편집주간석

특지 및 기금장학회 제도는 선배에게는 존경을, 후배에게는 신뢰를 일구는 場이 됩니다

흙머밍데이 겸 서울대 가족 친목 등산대회

10월 20일 일요일, 동문 여러분을 모교로 초대합니다

서울대인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제24회 흙머밍데이 겸 서울대 가족 친목 등산대회가 오는 10월 20일 거행됩니다. 모교를 방문하여 그동안 잊고 지내던 선·후배·동기들과 재회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등산대회에서는 참가하신 동문 가족에게 성악가 曹祥鉉(51년 音大卒·서울뮤직클럽(SMC) 회장·바리톤)동문과 자녀로 구성된 조TRIO의 협연 CD를 기념품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아 모교의 품에서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일 시: 2002년 10월 20일 (日) 오전 9시

△집합장소: 모교 관악캠퍼스 대운동장

△참가대상: 동문 및 서울대 가족

△참가비용: 없음

△제공물품: 도시락, 식음료, 기념품 등

△경 품: 다량의 선물 추천

△문의전화: 702-2233



부 장관)=지난 9월 2~4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에 참석, 각국 정상 및 환경장관들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함.

▲**李富植**(66년 文理大卒·교통개발연구원장)=지난 8월 23일 건설공제회관에서 개원 15주년을 맞아 「수도권 교통대책: 평가와 당면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가짐.

▲**崔洋夫**(68년 農大卒·농식품신유통연구회장)=지난 7월 26일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산지 유통 전문조직의 수확후 관리평가와 발전과제」라는 주제로 신유통 심포지엄을 개최함.

▲**張萬基**(68년 經大院卒·인간개발연구원 회장)=지난 8월 22일 롯데호텔 에메랄드룸에서 삼보컴퓨터

李龍兌(57년 文理大卒·本會 副會長)회장을

초청, 「선진국 마음먹기에 달렸다(e-Korea에 대한 구상)」라는 주제로 제1262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를 개최함.

▲**李相驥**(69년 工大卒·에너지경제연구원장)=지난 8월 21일 연구원 대강당에서 국내 에너지분야 CEO들을 대상으로 16주간의 일정으로 「제1기 에너지 고위 경영자 교실」을 개강함.

▲**金仁圭**(73년 文理大卒·KBS 뉴미디어본부장·本報 論說委員)=지난 8월 2일 일본 도쿄에서 한국어 전문 위성채널 KNTV와 약정서를 체결하고, KBS 국제위성방송인 「TV KOREA」 방송을 본격 개시함.

▲**金貳煥**(75년 新大院卒·아남반도체 사장·한국광고주협회 부회장)=지난 8월 21일 대전대에서 보직교직원을 대상으로 「21세기 대학경쟁력과 대학PR전략」을 주제로 강의함.

「아시아 차세대 리더」

康錦實동문 등 10명 선정

지난 8월 22일 세계경제포럼(WEF)이 올해 처음으로 선정하는 「아시아 차세대 지도자(Asian Young Leaders)」의 한국대표로 康錦實(79년 法大卒)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趙俊鎬(82년 社會大卒)LG전자 부사장 △鄭鐵(83년 自然大卒)삼보컴퓨터 고문 △卞大圭(83년 工大卒)휴맥스 사장 △李星圭(84년 經營大卒)국민은행 부

행장 △金映基(84년 工大卒)삼성전자 상무 △安哲秀(86년 醫大卒)안철수연구소 대표 △李相樺(86년 工大卒)한국과학기술원 교수 △崔昌源(89년 社會大卒)SK글로벌 부사장 △金澤辰(89년 工大卒)엔씨소프트 사장 등이다.

국대표로 선정된 동문은 △康錦實(79년 法大卒)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趙俊鎬(82년 社會大卒)LG전자 부사장 △鄭鐵(83년 自然大卒)삼보컴퓨터 고문 △卞大圭(83년 工大卒)휴맥스 사장 △李星圭(84년 經營大卒)국민은행 부행장 △金映基(84년 工大卒)삼성전자 상무 △安哲秀(86년 醫大卒)안철수연구소 대표 △李相樺(86년 工大卒)한국과학기술원 교수 △崔昌源(89년 社會大卒)SK글로벌 부사장 △金澤辰(89년 工大卒)엔씨소프트 사장 등이다.

「아시아 차세대 지도자」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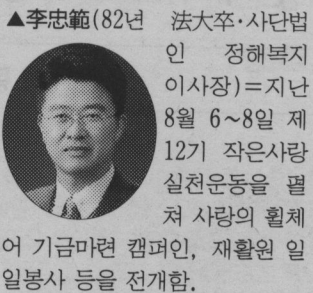


파인트리클럽
총재·한국청소
년연구소 이사
장·冠岳會 理
事)=지난 8월
2~5일 경남
하동군 양포수련원에서 제37회
전국 대학생 하계수련회를 개최



함.
▲李珉柱(80년 美大卒·한국화
가·모교 강사)
=지난 7월 24
일부터 28일까
지 스페인 마베
야에서 개최된
국제 아트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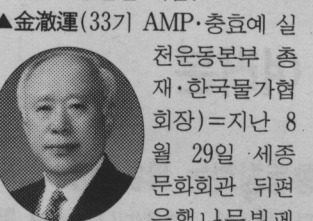
(MAC21)에 작품을 출품, 전문
컬렉터 및 미술계 인사들의 호
평을 받음.



▲李忠範(82년 法大卒·사단법
인 정해복지
이사장)=지난
8월 6~8일 제
12기 작은사랑
실천운동을 펼
쳐 사랑의 휠체
어 기금마련 캠페인, 재활원 일
일봉사 등을 전개함.

▲金惠林(85년 美大卒·모교 강
사·한국여류화
가회 회원)=
지난 7월 12~
21일 종로구
팔당동 갤러리
IHN에서 「대
지」를 주제로 개인전을 가짐.

▲권호정(90년 音大卒·천안대
교수)=지난 9월 6일 세종문화
회관 소극장에서 쇼팽, 슈만의
작품으로 피아노 독주회를 가짐.
▲민병희(90년 音大卒·협성대
강사·바이올리니스트)=지난 9
월 5일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
에서 바이올리니스트 오유진(93
년 音大卒·강남대 강사)동문 등
과 함께 「비스 현악 4중주단」의
네 번째 공연을 가짐.



▲金澈運(33기 AMP·충효에 실
전운동본부 총
재·한국물가협
회장)=지난 8
월 29일 세종
문화회관 뒤편
은행 나무뒤편

올해의 건축가 承孝相작품전

국립현대미술관서 10월 27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이 선정한
올해의 작가상을 수상한 承孝
相(75년 工大卒·종합건축사사
무소 이로재 대표)동문(사진)
이 지난 8월 28일부터 10월
27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제1
전시실에서 「Urban Void」라
는 주제로 전시회를 갖는다.
承동문은 한국 현대건축을
대표하는 중견건축가 중 한사
람으로 최근 미국 건축가협회
명예회원에 추대된 바 있다.
故 金壽根(50년 工大入·前

空間 대표) 문하에서 건축을
시작한 承동문은 「빈지의 미
학(Beauty of Poverty)」이라
는 건축적 화두를 통해 자신만
의 독자적인 건축세계를 발표
해 왔다.

그는 건축의 공간적 배경을
이루는 주변의 역사적, 사회
적 환경과 그 속에서 거주하는
사람의 삶의 가치가 공유되는
새로운 개념의 건축을 제시한
다. 그는 건축이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承동문은 「수출당」(1993),
「대학로 문화공간」(1997),
「수백당」(1999), 「웰컴 시티」
(1999), 「파주출판단지」
(2000) 등의 대표적인 건축작
품을 통해 건축가협회상, 한
국건축문화대상, 김수근 문화
상 등을 수상했다.

에서 충효에 실천운동본부 제
12차 임시총회 및 제15차 상임
위원회를 개최함. 또 9월 2~5
일 중국을 방문, 광주시 및 백
운구청과 건축자재 백화점 개
설 등에 대한 업무제휴를 맺
음.

▲崔烈坤(6기 ACAD·한국교육



삼락회 총연합
회장)= 최근
전국경제인연
합회와 공동으
로 현직 교사들
에게 수여하는
「한국 師道 대상」을 제정, 오는
11월 11일 첫 시상식을 갖는
다.

▲朴尙東(2기 EPHPM·동서한
방병원장)=지
난 7월 25일
경희대에서 열
린 경희대·경
희의료원 공동
주최의 국제심
포지엄에 참석,
「한·양방의 협
진 실태」라는 제목으로 주제발
표를 함. 또 8월 10일 강서구
등촌7동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
역주민을 대상으로 한방 무료진
료를 실시함.

(정리=安興燮기자)

8·8 국회의원 재보선

전국 13개 지역서 7명 당선

지난 8월 8일 전국 13개
지역에서 실시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동문 7명이
당선됐다.

서울에서 종로 朴 振(78년
法大卒·김&장법률사무소 고
문)동문, 금천 李佑幸(62년
獸醫大卒·獸醫大同窓會長)동
문, 영등포를 權寧世(81년
法大卒·법무법인 바른법률
변호사)동문이 승리했으며,

인천 서·강화을 李敬在(64년
文理大卒·前대통령 공보수석
비서관)동문, 광주 북갑 金
相賢(27기 ACAD·국가정책
과정동창회장)동문, 경기 안
성 李海龜(39기 ACAD·前내
무부 장관)동문, 전북 군산
康奉均(69년 商大卒·前한국
개발연구원장)동문이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방송위 선거방송심의위원

劉載天동문 등 6명 위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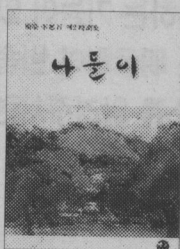
방송위원회(위원장 姜大仁·
72년 新大院卒)는 오는 12월
19일로 예정된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난 8월 21일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劉載天
(61년 文理大卒)교수 등 동문
6명을 선거방송심의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다음과

같다. 郭東憲(65년 法大卒)변
호사, 조선일보 李永德(66년
文理大卒)는설위원, 한양대 언
론광고사회학부 李敏雄(68년
文理大卒)교수,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申澈永(78년 工大卒)
사무총장, 한양대 신문방송학
과 姜南俊(78년 師大卒)교수.

新刊

■나들이
—李應百 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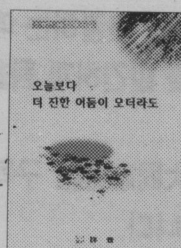
蘭臺 李
應百(49년
師大卒·
모교 명예
교수·한국
어문회 이
사장·전통
문화협의
회장)동문이 두 번째 시조집
을 출간했다.

생활 경험과 염원을 담은 시
조를 비롯해 先人들의 한시를
번역한 글, 시조로 인연을 맺
은 이에 대한 用辭와 추모의
글 등이 담겨 있다. <동경판·
값12,000원>

■오늘보다 더 진한
어둠이 오더라도
—曹祥鉉 著

바리톤 曹祥鉉(51년 音大
卒·한국슈베르트협회 이사장)
동문이 네 번째 시집을 발표했
다.

올해로 부인과 부산 피난 시



모았다. <상음판·값5,000원>

■아이들을 위한
모차르트 이펙트

—曹洙哲 著



인간의 발달과의 관계에 대한
책을 펴냈다.

태아기부터 11세에 이르기
까지 각 단계마다 아동의 음악
과의 관계를 쉽게 풀어 나가면
서 모차르트 음악의 풍부하고
도 강력한 표현력, 단순함,
명료함, 선율의 아름다움이
아동들의 발달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과학적으로 제
시했다. <황금가지판·값15,000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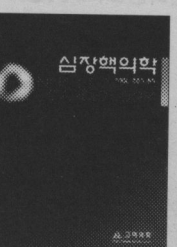
■世界 麻將
—金太業 著



마장협회 공동대표)동문이 정
통 麻雀의 바이블을 펴냈다.

초보자라도 쉽게 마장을 배
울 수 있도록 많은 예를 제공
하고 있으며, 고수들도 이해
하기 어려운 수학적인 수읽기
방법도 제시돼 있다. <중앙M
&B판·값12,000원>

■심장학의학
—李明哲·鄭俊基 編著



수가 편저로 「심장학의학」이
라는 전문서적을 발간했다.

이 책은 심장학의학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여 가장 흔히 쓰
이는 심근관류 SPECT 이외에
도 심근 PET, 심장혈액폴스
캔, 일회통과스캔 등을 기술
했으며 관상동맥질환, 심근경
색증에서의 이용에 중점을 두
어 설명했다. <고려의학판>

公演

■池恩惠바이올린독주회
—9월 29일 OPUS Hall



바이올리니스트 池恩惠(91
년 音大卒)동문이 「스트링앤
보우가 추천하는 영 스트링 플
레이어 시리즈 2002」의 일환
으로 독주회를 갖는다.

나사렛대, 목원대에 출강하
고 있는 池동문은 이날 바르토
크, 힌데미트, 스트라빈스키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공연
문의 : 음연 3436-5222>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화촉을 밝힐 동문을 소개한
다.

- * 오상우(92년 法大卒)군·노
문경 양=9월 28일 17시.
- * 손경완(99년 大學院卒)군·
송은경(97년 看護大卒)양=9
월 29일 12시 30분.
- * 김신우(95년 社會大卒)군·
강선아 양=9월 29일 14시.
- * 박수찬(96년 自然大卒)군·
이혜영(96년 看護大卒)=10
월 3일 14시.
- * 윤동환(97년 農生大卒)군·
최희경(00년 農生大卒)=10
월 5일 14시.

동창회보 구독료 지부별 납부 현황 후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2년 7월 1일 ~ 2003년 6월 30일

지역 번호	지부명	명단
01	남가주	58 이강훈(치대 65입) 손학식(공대 61입) 김동산(법대 59입) 정경화(의대 70입) 박계영(공대 57입) 김은종(상대 59입) 이정재(수의대 45입) 김건진(문리대 62입) 오재인(치대 33입) 최호준(의대 77졸) 권길상(음대 46입) 이호준(공대 55입) 오길평(치대 61입) 이현세(법대 68입) 김선명(공대 75입) 김희재(사범대 66입) 최복영(사범대 56입) 정조웅(공대 60입) 이성호(의대 72졸) 김영(수의대 63입) 조성윤(법대 46입) 홍진(간호대 55입) 김용채(문리대 61입) 신정자(사범대 63입) 박인창(농대 65입) 김희봉(공대 72졸) 노상규(공대 60입) 송두빈(사범대 57입) 김영기(의대 54입) 김군빈(법대 56입) 이남경(음대 66입) 남정우(치대 48졸) 이건설(치대 54입) 우원섭(치대 65졸) 김일영(의대 65입) 한종철(치대 62입) 강동순(법대 59입) 한홍택(공대 60입) 신상화(공대 58입) 박임하(치대 56입) 박해옥(간호대 69입) 이근원(공대 67입) 임문빈(상대 58입) 조종웅(공대 45입) 엄세옥(간호대 69입) 권기상(경영대학원 72입) 육중훈(상대 67입) 강경수(법대 58입) 정원훈(상대 38입) 임택선(공대 52입) 김석구(공대 66입) 최숙규(간호대 65입) 문덕수(공대 73입) 최승륜(상대 53입) 서치원(공대 69입) 지인수(상대 59입) 이환진(상대 68입) 임택선(공대 52입)
02		
03	샌프란시스코	0
04	뉴욕 (NY, NJ, PA일부CT)	21 김진승(문리대 53입) 성기호(약대 57입) 심정섭(의대 53입) 김기훈(상대 52입) 김희국(약대 54입) 최취웅(문리대 64졸) 김병술(약대 52입) 조종수(공대 64입) 이국진(사대 51입) 전민욱(간호대 66입) 이정순(법대 53입) 최영태(문리대 67입) 노용면(의대 55졸) 한용호(법대 52졸) 이문휘(문리대 54입) 김세환(공대 65입) 박창익(농대 64입) 전희근(의대 54입) 이덕인(미술대 56입) 허선행(의대 58입) 김영두(농대 61입)

재미서울대 同門 여러분

우리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는 母校를 한국의 最高大學으로 부터 세계적인 先進 高等教育 기관으로 高揚하는 牽引車의 一翼을 담당하며, 美州대륙에서 開拓者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 同門들의 發展을 성원하고 지하는 조직입니다. 在美 서울大同窓會報는, 한국의 최고 知性人인 우리 동문들의 矜持와 友情을 글로써 나누고 동문과 그 가족들의 소식을 기록하여 고국과 재미 동문전체를 연결하는 매체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보내주시는 동문들의 誠心으로써 우리 동창회보가 이번 102호를 발간하게 됨을 동문여러분과 함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새 회계년도(2002년 7월 1일~2003년 6월 30일)의 "在美 서울大同窓會報 구독료" \$60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격조있고 내용있는 회보를 만들기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 구독료 납입 요청서는 주소 변동시 배달이 안되는 동창회보와 달리, 현재의 주소를 확인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이미 회보 구독료를 납부하셨거나 관악 후원 이사회비를 내신 동문들께서는 그 사유를 明示하여 반송하여 주시면 정확한 자료 은행 유지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웃에 오신 동문 선후배들의 주소를 알려주시면 동창회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02년 9월 5일 재미서울대학교 총동창회

동창회보 구독료 지부별 납부 현황 후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2년 7월 1일 ~ 2003년 6월 30일

지역 번호	지부명	명 단	
05	시카고(IL, IN, WI, MO, MI, OH)	39	고영철(의대 45입) 성흥환(\$160, 수의대 75입) 김윤화(음대 72졸) 서승환(치대 61졸) 손기용(의대 55입) 김한철(사범대 61입) 김세종(경영대 79졸) 김용우(공대 58입) 박홍근(공대 64입) 허서룡(의대 60입) 정병욱(의대 59졸) 김병윤(문리대 65입) 이용락(공대 48입) 전영자(미대 58입) 하계현(공대 64입) 계명수(의대 69입) 박연희(간호대 65졸) 김정주(문리대 64졸) 임근식(문리대 56입) 이승자(사범대 60입) 김갑중(의대 57입) 정의철(의대 55입) 유준석(의대 53입) 조 철(\$50 공대 49입) 정 태(\$100 의대 57입) 이덕수(\$100 문리대 62졸) 최승정(공대 60입) 이진주(문리대 55입) 송재현(의대 48입) 안창현(의대 55입) 유석홍(상대 61입) 서경원(공대 53입) 구경희(의대 59입) 안은식(문리대 55입) 유효명(\$100 의대 58입) 김정수(문리대 69년입) 홍혜례(사대 76년졸) 도상탁(\$100, 의대 56년졸) 최애옥(간호대 47입)
06	워싱턴 DC (MD, VA)	6	최경수(문리대 58졸) 박홍우(문리대 65졸) 박명영(의대 66입) 전경철(공대 55입) 윤개일(약대 60입) 주 일(의대 46입)
07	워싱턴주 (WA)	1	허윤행(사범대 57입)
08	휴스턴 (HOUSTON)	6	이규진(약대 60입) 명인성(공대 50입) 박민자(사범대 58입) 김중열(의대 5입) 최관일(공대 54입) 강영빈(\$120 문리대 58입)
09	달라스 (DOLLAS)	1	김인호(공대 47입)
10	미네소타 (MN)	1	조형준(문리대 62입)
11	조지아 (GA)	1	윤민자(음대 65입)
12	아리조나(AZ)	1	이용길(의대 62졸)
13	유타 (UT)		
14	하와이 (HI)		
15	오레곤 (OR)	2	김상순(상대 67입) 최동근(문리대 50입)
16	기타 (서부)		
17	기타 (중부)		
18	기타 (동부 & 캐나다)	4	조무정(약대 62입) 조동림(의대 56졸) 김미현(문리대 52졸) 손정호(의대 53입)
19	필라델피아(PA)		
20	뉴잉글랜드 (MA, RI)	7	김영일(사대 59입) 이재신(공대 57입) 김제호(상대 56입) 김유경(음대 ?) 김병국(공대 71입) 노인규(의대 52입) 김장태(문리대 53입)
21	하트랜드	1	오택요(의대 56입)
22	펜실베니아	5	송영두(\$100, 의대 56입) 오진석(치대 56입) 이규호(공대 56입) 이윤성(수의대 81입) 김화섭(의대 55입)
특별기부금			
계		154	9,590



재미서울대 동창회보의 발행재원을 마련하고 동문들의 현재 주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보내는 "구독료 청구서". 5000여명의 동문들의 주소를 정비하여 동문들의 성금을 모금하기 위한 "청구서"를 전부 발송하기 위해서는 2주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동문들께서 주소 변경시에는 동창회 사무실로 새주소를 알려주시면 행방불명되는 동창회보로부터 생기는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미주관악후원회 이사회비 납부 현황

후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2년 7월 1일 ~ 2003년 6월 30일

지역 번호	지부명	후원이사(후원금)	납부인원	합계
01	남가주	정원훈(250 상대38입) 정유석(200 의대 58입)	2	450
02				
03	샌프란시스코			
04	뉴욕(NY, NJ, PA 일부 CT)			
05	시카고 (IL, IN, WI, MO, MI, OH)	송순영(1000 문리대 52입) 구경희(500 의대 59입) 시카고 지역동창회(4000) 한재은(1500 의대 59입) 이용락(5000 / 종신이사비 3000 일반이사비 2000 공대 53졸) 업무광(500 문리대 61입)	7	12,500
06	워싱턴 DC (MD, VA)			
07	워싱턴주	허윤행(250 사범대 57입)	1	250
08	휴스턴			
09	달라스			
10	미네소타			
11	조지아			
12	아리조나			
13	유타			
14	하와이			
15	오레곤	김상순(200 상대 67입)	1	200
16	기타1(서부)			
17	기타2(중부)			
18	기타3(동부 & 캐나다)			
19	필라델피아	정정수(200 의대 56입)	1	200
20	뉴잉글랜드			
21	하트랜드			
22	중부펜실바니아			
	특별후원금			
일반 이사 합계			11	\$10,600
종신 이사 합계			1	\$3,000
총 계			12 명	\$13,600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관악 후원금 납입현황

(2002년 7월 01일~9월 28일)

종신이사

강영빈, 박경민, 박병기
방은호, 서영석, 심상은
오인석, 오홍조, 윤선홍
이교락, 이기영, 이병준
이세열, 이전구, 정 태
이청광, 전희택, 윤정옥
한홍택, 조시호, 이용락

300달러이상

송순영(\$1,000)
구경희(\$500)
시카고지역동창회(\$4000)
한재은(\$1,500)
이용락(\$5,000)
업무광(\$500)

300달러이하

허윤행(\$250)
정원훈(\$250)
김상순(\$200)
정유석(\$200)
정정수(\$200)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백만달러 기금 납입 현황

(2002년 1월 19일 ~ 6월 30일)

Anchor-Donor (2만달러 이상·약정)

- 방은호 (워싱턴 DC · 약 42입)
- 윤정욱 (뉴욕 · 약 50입)
- 김영덕 (뉴욕 · 공 53입)
- 이병준 (남가주 · 상 55입)
- 김병수 (뉴욕 · 상 55입)
- 최수용 (뉴욕 · 상 55입)
- 유창남 (뉴욕 · 의 58입)
- 오인석 (뉴욕 · 법 58입)
- 이전구 (뉴욕 · 농 60입)
- 임낙균 (남가주 · 약 64입)

3,000달러이상

1,000달러이상

이용락 (공대 53졸) \$1000

300달러이상

정정수 (의대 56입) \$500
워싱턴DC 지역동창회 \$510
(조수미 CD 34장 판매대금/
CD 판매 총액 300장 총 \$4500)

300달러이하

이소정 (음대 84입) \$200
변만식 (사범대 49입) \$100
장병건 (보건대학원64졸) \$250

母校와 後進을 위한 1백만불 기금 지부별 입금 현황 基金을 출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0년 7월 1일 ~ 2002년 9월 28일

지역 번호	지부명	후원이사(후원금)	납부인원	합계
01	남가주(CA)	한홍택(\$1,000)황석우(100) 정인환(200)권길상(100)한상철(333,400) 이병준(20,000) 심상은(1,000) 조용명(500) 임낙균(500) 이명선(300) 박취서(200) 이종열(200) 이강훈(150) 임택선(100) 김옥권(100) 권기상(100) 이정재(100) 신동국(100) 김일영(100) 유병원(100) 도영미(100) 황석우(100)	22	358,550
		이양숙(200) 박우선(200)	2	400
03	샌프란시스코	김양주(300)	1	300
04	뉴욕 (NY,NJ,PA일부,CT)	김기훈(\$250)최수용(5,000)김석식(100)진성호(19,400) 추재욱(10,000) 오인석(20,000) 김병수(7,000) 최수용(5,000) 김영덕(5,000) 윤정욱(5,000) 이전구(4,000) 황관일(1,500) 김진승(1,000) 허리훈(1,000) 허선행(500) 이준행(500) 강영선(500) 김용재(500) 이기범(500) 이재진(500) 변찬의(500) 김상각(300) 홍선경(300) 이경림(300) 방준재(300)주의돈(300) 남상래(300) 조성준(300) 김기훈(250) 박승서(250) 이기형(200)김연석(200)동형근(200) 리준국(150) 황진환(100) 조대영(100) 허병렬(100) 심기련(100) 유진형(50)	39	91,600
05	시카고 (IL, IN, WI, MO, MI, OH)	이용락(1000) 이소정(200)소진문(100) 임춘수(200) 이용락(1,000) 조영재(300) 정태, 최호승(500) 배영섭(200) 전영자(200) 임춘수(200) 강영국(200) 박종수(200) 구자원(200) 이기훈(200) 김윤태(100) 문병훈(100)	17	5,900
06	워싱턴 DC(MD, VA)	변만식(100) 지역동창회(510, 조수미CD 34장 판매대금) 방은호(5,000) 지역동창회(3,990) 조수미 CD 266장 판매대금) 이규섭(150) 방은호(5,000) 박우수(1,000) 박용경(100) 오인환(200) 김창호(50) 장병건(50) 이서명(50)	11	16,200
07	워싱턴주(WA)			
08	휴스턴(HOUSTON, TX)	강영빈(500) 박승균(300) 유금용(100) 김충열(200) 박민자(100)	5	1,200
09	달라스(DALLAS, TX)	김인호(200)	1	200
10	미네소타(MN)	송창원(100) 변우진(100) 김태환(300) 왕규현(100) 변우진(100) 남세현(100)	6	800
11	조지아(GA)	장병건(250) 장병건(100)	2	350
12	아리조나(AZ)	박양세(100) 박양세(200)	1	300
13	유타(UT)			
14	하와이(HI)			
15	오레곤(OR)	이태호(100) 익명(300)	2	400
16	기타(서부)			
17	기타(중부)	이회백(1,000)	1	1,000
18	기타(동부&캐나다)	한광수(333.33)	1	333.33
19	필라델피아 (PHILADELPHIA, PA)	정정수(500) 정정수(500) 서중민(1,000) 이정필(800) 정정수(500) 한혜원(300) 현재원(300) 정홍택(300) 강형진(200) 윤경숙(100) 정구영(100)	11	4,600
20	뉴잉글랜드(MA)	도은희(200) 이재신(3,000) 이금하(200) 정태진(100) 김재호(100)	5	3,600
21	하트랜드	오태요(500) 김명자(500) 이상문(250) 배한홍(100)	4	1,350
22	펜실바니아			
	특별 후원금	간호대동창회(13,560) 모교동창회/모교수방단(3,000) 임광수 서울대총동창회부회장(5,000) 한규남(유화1점: 현재 경매 중)	4	21,560
	총 계	당회계년도 모금액 총액 \$24,190 기금위원회 직접 접수분 \$ 1,000 방은호 동문 기여금 \$ 5,000은 기금위원회 직접 접수	136	508,894.33

약정하신 동문들

*2002년 7월1일부터 2002년 9월 28일까지 납입하신 분 5명
(작년도 집계표에서 강영빈씨를 중부 기타지역에서 텍사스주로 이동하였음)

	후원이사<후원금>	납부인원	합계
현금 약정	방은호(워싱턴 DC/\$20,000약정 \$10,000납입) 서동영(남가주/\$100,000:생명보험 중 일부) 윤정욱(뉴욕/\$20,000중 \$5,000납입) 임낙균(남가주/\$20,000약정) 김영덕(뉴욕/\$20,000중 \$5,000납입) 김병수(뉴욕/\$20,000중 \$7,000납입) 최수용(뉴욕/\$20,000중 \$10,000납입) 이전구(뉴욕/\$20,000중 \$4,000납입) 유창남(20,000약정) 강영빈(기타 중부 /\$500중 \$500 납입) 강경식(뉴잉글랜드/생명보험 중 일부)	11명 (7명 납입)	\$260,500 (\$41,500 납입)
기타	방은호(유증) 김태환(유증) 정태	3명	
총 합 계		143 명	727,893.33

재미 서울대 동창회보 광고안내

재미 서울대 총동창회는 재미 서울대 동창회보의 북미주(미국/캐나다)전체동문에게 배포되는 동창회보발행 財源 부족분을 보전하고 재미 서울대 총동창회의 새로운 사업과 운영자금의 안정된 확보를 목표로 재미 서울대 동창회보에 <有料 廣告란>을 설치하기로 결의하고 아래와 같은 광고 기준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광고원칙 : 광고가 동창회보의 질과 존엄성을 손상하지 않는다.
2. 광고자격 : 同門들의 사업체(전문직, 비전문직 및 일반 공고등) 및 단체를 우선하되, 일반대중의 사업체 및 단체도 광고의 평등 원칙에 준하여 환영한다.
3. 광고지면 : 회보 현 발행지면 32면 중 가능하면 뒷쪽 3-6면을 할애할 예정이며, 마지막 면(뒷표지)는 전면 색상(color)광고를 게재한다.
4. 廣告料 : 1) 뒷표지 칼라 전면 : 한번에 \$1,000.00 , 전문인의 디자인 관계상 최소 일년치(12번)을 원칙으로 한다.
 2) 흑백광고 : 전면 : 한번에 \$500, 일년에 \$5,000
 1/2면 : 한번에 \$300, 일년에 \$3,000
 1/4면 : 한번에 \$175, 일년에 \$1,750
 1/8면 : 한번에 \$100, 일년에 \$1,000
 3) 직종별 분류광고(Classified AD)면: 한번에 4줄
 (한줄 24 alphabets, 혹은 한글 15자 미만) \$25 , 추가 한줄에 \$5, 일년에 \$300 + \$
5. 광고료는 先拂을 원칙으로 한다.
6. 재미 서울대 동창회보는 현재 매월 5,000부 이상이 인쇄되어 북미주(미국/캐나다)와 모국에도 매월 배포되고 있지만, 계속 새로운 동문들이 등록 되고있으므로 배포 부수가 확장 될 잠재력이 크다.
7. 광고란의 기사란에 특별광고(특별 디자인, 칼라등) 게재를 원할 경우에 광고료는 광고위원회와 상의를 거치기 바랍니다.
8. 문의처 : Tel. (847)981-1464, Fax. (847)981-1465
 e-mail : snuaausa@snuaa.org

재미 서울대 동창회보 광고위원장 강영국(수의대 67년 입)

동문이 운영하는 우편주문 가능한 Gift Shop

지명식 동문(사대 65입)부부는 시카고 근교 Northbrook의 White Plains Shopping Center내에서 **Modern Gifts & Dundee Shiseido**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취급 품목으로는 한국인 피부에 적합한 Shiseido, 참존, 아모레 화장품 품과 지성피부, 여드름 전용화장품 Dr. Eslee를 취급하고 있다.

그 밖에 각종 선물용품, 가정용품, 부엌용품, 속옷류, 전기제품, 악세서리, 영양제, 비타민 등을 구비하고 있고, 전자파를 방지하여 편안한 잠자리에 들 수 있는 Sheild Life 제품도 갖추고 있다. 귀국 선물로 인기있는 로얄제리, 커피 및 꿀가루등도 간단히 전화 한 통화로 구입할 수 있다. 전화주문이나 우편주문은 UPS로 즉시 발송하고 크레딧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영업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10:00AM-8:00PM, 일요일 1:30PM-5:00PM 이다. 많은 동문들의 이용을 기다리겠습니다.

MODERN GIFTS & DUNDEE SHISEIDO

지명식 동문 (사대 65년 입)

Tel: 847-559-1005

Northbrook, IL

*UPS, Mail Order 가능

재미 총동창회 지부회장 / 동창회보 지국장 명단

지 부	회 장	총무 / 동창회보 지국장
뉴욕	한창섭 B:212-594-0493 H:201-848-8665	김종을 B:914-714-0587 F:914-686-0186
남가주	임낙균 B:213-999-1600 H:310-530-4353	백옥자 B:213-365-9669 F:213-365-1686
샌프란시스코	정조용 B:408-496-6838 H:408-972-4026	임승배 B:415-777-1133 H:510-537-5369
시카고	한재은 B:847-741-7990 H:847-428-4929	이승자 B:773-553-1930 H:847-564-5948
뉴잉글랜드	이재신 B:508-577-9424 H:508-923-0031	변종원 H:508-366-2743 B:508-389-1760<ext.3038>
조지아	김재철 B:770-944-2775 H:770-579-5615	문종현 B:770-409-8844 H:770-449-0301
미네소타	김태환 B:612-863-4060	남세현 B:651-733-7287 H:651-768-8939
워싱턴 DC	진금섭 B:703-205-8064 H:703-631-0631	김 국 B:703-304-2129 H:703-830-7979
워싱턴주	허윤행 B:360-683-4195 H:360-683-4197	이혜숙 B:253-927-8668 F:253-627-2542
휴스턴	김영창 B:713-431-6071 H:713-859-8182	변중무 B:713-743-9301 H:713-783-3178
달라스	이병규 B:817-251-8789 H:972-304-0748	강성호 B:972-570-0234 H:214-496-9393
아리조나	윤성수 H:480-283-9806 yunss@cox.net	최윤근 B:480-967-9461 H:602-502-9988
하와이	정재훈 B:808-951-7242 H:808-926-6089	정광수 B:808-956-7653 H:808-395-1678
유타	한성양 B:801-272-7444 H:801-485-2065	황선종 B:801-582-1695 H:801-582-1695
오레곤	라제관 B:503-696-3422 H:503-645-5550	정성국 B:503-226-6467 H:503-524-7741
필라델피아	강영배 B:610-623-8560 H:610-651-7834	주기목 B:215-745-9030 F:215-745-3055
하트랜드	이상문 B:402-472-3915 H:402-483-0221	장명우 F:402-472-5290
중부펜실베이니아	송재훈 B:814-865-6998 H:814-466-0542	이 옥 B:814-862-0494
캐롤라이나	김기현 B:919-560-6451 H:919-560-5012	Fax : 919-560-5012
캐나다/온타리오	유희자 B:416-960-0074	노정희 B:905-886-4152
캐나다/밴쿠버	황태구 B:604-433-8539	박병우 B:604-570-0803 H:604-420-7034
캐나다/에드먼튼	정기진 B:780-437-7669	

동문 사업체 안내

<p>강 권 Pusan Pipe America 이병준(상 55입) (562)692-0600 Sant Fe Springs, CA</p> <p>골프용품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 (농 60입) (212)564-2255 New York, NY</p> <p>공인회계사 Young Sik Oh Cpa 오영식 (법 72입) (201)569-1177 Englewood Cliff, NJ</p> <p>이범선 (상 48입) 이경림 (상 64입) (212)768-9144 New York, NY</p> <p>Young Tail Choi EA 최영태 (문 67입) (212)695-0206 New York, NY</p> <p>Delloitte & Touche LLP 김낙구 (상 67입) (213)688-5585 Los Angeles, CA</p> <p>Wesley Y Chung 정일화 (상 55입) (212)736-6590 New York, NY</p> <p>이규섭 (상 68입) CPA, CFA (703)642-2900 Annandale, VA</p> <p>국외사업 IBECONS INT'L 김재철 (공대 58입) (212)460-2815 New York, NY</p> <p>관 리 진리교회 김태철목사 (공대 76입) (718)225-1000 New Hyde Park, NY (L.I.E. Exit 33 South)</p>	<p>국제금융 Sit/Kim International Investment Associate 김병수 (상 55입) (212)750-7215 New York, NY</p> <p>PTC International 이태영 (법대 60입) (410)962-8409 Baltimore, MD</p> <p>금 고 Alco Lock & Safe 경인식 (상 58입) (212)867-3377 New York, NY</p> <p>금 + 지</p> <p>부 역 Nina America Inc. 김석권 (법 61입) (212)683-6462 New York, NY</p> <p>EAC Trading Inc. 윤정옥 (약 50입) (516)466-5678 Great Neck, NY</p> <p>Oregon Hide Co. 조형원 (수 55입) (503)620-1001 Lake Oswego, OR</p> <p>G. A. Marketing Company 지인수 (상 59입) (310)216-7929 Los Angeles, CA</p> <p>변 호 사 최형무 변호사 최형무 (법대 69입) (718)463-3500 Flushing, NY</p> <p>한국서적 전문 서울서점 권희진 (문 60입) 창업 (773)463 7756</p>	<p>김영화 변호사 김용학 (법대 69입) (212)619-1770 New York, NY</p> <p>명 인 사 Joon J Bang, MD 방준재 (의 63입) (718)768-1264 Brooklyn, NY</p> <p>법 실 수 리 (부동산) Charles H. Sung, DVM DVM 성홍환 (수의 75입) (330)534-8383 Hubbard, OH</p> <p>법 실 수 리 (의료) Rim and Sul, MDPC 임춘수 (의 57입) (313)882-2922 Grosse Pointe,</p> <p>법 실 수 리 (사무) Kenneth Song 송관호 (의 58입) (212)423-4817 New York, NY</p> <p>법 실 수 리 (기타) Chang Ho Suk 석창호 (의 66입) (718)461-6212 Flushing, NY</p> <p>법 실 수 리 (지리) Sung Bo Hong, DMD 홍성보 (치 63입) (201)871-0007 Tenafly, NJ</p> <p>부 역 Gold Plus 서재숙 (음 65입) (212)354-8988 New York, NY</p> <p>모 관 KOI 종합보험 김성희 (상 67입) (213)387-5252 Los Angeles, CA</p>	<p>한미종합보험 박일순 (상 59입) (718)458-3551 Jackson Hts, NY</p> <p>한영종합보험 한영우 (공 59입) (718)463-9100 Flushing, NY</p> <p>부 동 산 Cosmo Realty 이재덕 (법 60입) (201)944-4949 Palisades Park, NJ</p> <p>C-21 Infinity 이재원 (법 60입) (201)944-5353 Palisades Park, NJ</p> <p>REMAX (회망부동산) 최 호 (문 61입) (201)461-3525 Palisades Park, NJ</p> <p>Gateway Title Co. 박인수 (농 64입) (213)388-3333 Los Angeles, CA</p> <p>ERA Premier Properties 변만식 (사대 49입) (703)750-0000 Annandale, VA</p> <p>로얄 부동산 임무광 (문 65입) (800)474-0200 SKOKIE, IL</p> <p>Pacific Hotel Motel Specialists, Inc. (HMBA American Hotel Broker) 김동호 (농대 58입) (206)972-3675 Everett, WA</p> <p>설 계 Booming World Design & Engineering 김상익 (공 49입) (310)539-7760 Court Lomita, CA</p> <p>Queens Plumbing Supply 김승호 (공대 71입) (718)392-0111 L.I.C. NY</p>	<p>업 식 Care Tex Industries, Inc. 강봉창 (약 50입) (562)602-6567 South Gate, CA</p> <p>운 수 투 기 S. Y. Shipping 김종표 (법대 58입) (592)467-5455 Artesia, CA</p> <p>주 지 Equitable Financia Service 원영배 (미 74입) (213)368-5705 Los Angeles, CA</p> <p>Hanin Federal Credit Union 이영일 (문리 57입) (213)368-9000 Los Angeles, CA</p> <p>의 료 기 구 MASH 심상은 (상 54입) (213)487-5695 Los Angeles, CA</p> <p>의 료 Jeffrey Allen Corp. 이기영 (농 70입) (201)863-5160 Secacus, NJ</p> <p>Jade Eastern Trading, Inc. 이재량 (상 61입) (201)440-8500 Moonachie, NJ</p> <p>인 터 넷 사 업 KS E biz 장세완 (농 69입) (201)722-4796 River Vale, NJ</p> <p>인 터 넷 사 업 MODERN GIFTS & DUNDEE SHISEIDO 지명식(사대 65년 입) Tel: 847-559-1005 Northbrook, IL UPS, Mail Order 가능</p>	<p>인 터 넷 사 업 Aladdin USA 이형광 (문 79입) (323)692-9888 LA, CA</p> <p>자 루 지 부 동 Knox-Seeman Whse, Inc. 서동영 (사대 60입) (310)327-1006 Gardena, CA</p> <p>진 지 Amkor Anam 정홍택 (상 61입) (214)580-1879 Philadelphia, PA</p> <p>부 동 산 Smithtown Wines & Spirits 이지현 (문리 73입) (613)265-1121 Smithtown, NY</p> <p>의 료 Kumon Educational Institute 김형덕 (상 57입) (718)358-0538 Flushing, NY</p> <p>인 터 넷 사 업 Joong-Ang Medical Center 이수호 (보건대학원 71입) (718)353-6207 Flushing, NY</p> <p>브롱스 약국/시호 한의원 박경룡 (약대 63입) (718)733-1399 Bronx, NY</p> <p>인 터 넷 사 업 Revicci(레비치) 신정택 (약대 52입 · 화장품, 약품개발) (973)994-1421 Short Hill, NJ</p> <p>의 료 Flowers On Lexington 박상원 (음 65입) (800)2525-way New York, NY</p> <p>Seward Florist 김수환 (간호 72입) (626)287-6161 San Gabriel, CA</p>
---	---	--	---	--	--

금년에도 재미총동창회와 동창회보 100호 간행을 후원하여 주신 동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동창회는 전 동문의 네트워크를 위해 Data Base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직 응답하지 않으신 동문은 이 설문지를 기입한 후 오려서 동창회 사무실로 우송바랍니다.

재미 동문직업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위한 설문 및 웹사이트 주소록 일반공개 여부 설문 2002. 7. 1 ~ 2003. 6. 30 회보 구독료 납입서

재미 서울대 전 동문들의 직업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인 모교 지원사업 및 동문 지원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설문에 간단히 답하시어 동봉의 반송봉투를 이용 설문지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창회보를 받지 않는 주변 동문들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본 설문지 여백에 적어 보내시면 고맙겠습니다.

1. 성명 : 한글 _____ 영문 _____
2. 모교 입학년도 _____ 졸업년도 _____
3. 졸업전공 : _____ 대학 _____ 학과 _____
4. E-mail 주소 : _____
5. 새 자택 주소 : _____
6. 새 자택 전화번호 _____ Fax _____
7. 직장주소 : _____
8. 직장 : Tel. _____ Fax _____
9. 웹사이트 주소록 일반에 공개 무방 (), 가급적 동문들에게만 공개 원함 ().
10. 동문 자료 은행구축과 모교와 조국을 위한 지적 봉사단의 자료를 위하여 귀 동문의 자세한 이력사항을 기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 동창회보 일년 구독료 \$ 60은 동창회보 발간 사업 뿐 아니라 모교지원을 위한 업무 및 재미 동문 지원사업을 위하여 긴요한 자원입니다. 재미 총동창회 집행부는 모든 회원들을 위하여 재정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높이 유지하겠습니다.

본인은 2002. 7. 1 ~ 2003. 6. 30 구독료 \$60을 함께 우송합니다.

Yes. ()

No. ()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수표 보내실 곳 : SNUAAUSA (SNUAA in the USA)
790 Busse Road, Suite #201 Elk Grove Village, IL 60007
Tel. (847)981-1464 Fax. (847)981-1465

12. 소속 지역동창회 이름 : () 지역동창회

1

재미서울대 동창회보 구독료 \$60(2002.7. 1. ~ 2003. 6. 30 회계년도)을 납부합니다.

2

미주 관악후원회 4차년도 후원 이사회비 出捐書

본인은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의 활동재원 확보와 미주동창회보의 지속적인 월간발행을 후원하기 위하여 결성된 「미주관악후원회」 회원임을 명예스럽게 생각하며, 제 3차년도 관악후원회비를 아래와 같이 보냅니다.

- 매년 불입 후원이사
 - 년 \$ 200이상 (금액명기 \$)
 - 년 \$ 500이상 (금액명기 \$)
 - 년 \$ 1,000이상 (금액명기 \$)

●일시불 종신후원이사
\$ 3,000이상 (금액명기 \$)

▷이 후원금은 세금 보고서 세금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차 후원금에 대한 세금보고용 영수증은 별도로 송부하겠습니다.
: \$ 250 이상만)

3

母校와 後進을 위한 기금 出捐書

본인은 영원한 서울대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모교와 후진을 돕기 위한 1백만달러 기금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다음과 같이 기금을 낼 것을 동의합니다.

- ◎총액(금액명기 \$)
- ①일시불 ()
- ②3년 분할 납입 ()
(\$)씩 ()회 분납

▷이 기금은 면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미 총동창회는 재산을 이 1백만달러 기금에 남겨주실 유언 (A Will) Program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관심있으시면 표시해 주십시오.()

Check Payable to :

SNUAAUSA(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Check 보내실 곳 :

SNUAA in the USA

790 Busse Road, Suite #201
Elk Grove Village, IL 60007
Tel. (847)981-1464 Fax. (847)981-1465
e-mail : snuaausa@snuaa.org